달마 for Windows 95
사찰 종무 관리 프로그램
사찰 전산화의 선두 기업 아란타 (02)3142-0108

현대불교

人蔘의 약효!
원비-디®

회장:노대행/발행인 겸 편집인:김광삼/논설고문:고은/편집국장:최정희/인쇄인:김규석/등록번호:다-3379/@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대표전화:737-8881/편집국:722-4162 FAX:737-0698/광고국:737-0692/구독신청:737-888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2년(서기 1998년) 10월 21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제 194 호

작은 실천 큰 기쁨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동경에 사는 재일교포 2세 김홍수씨(31세)는 올해 초부터 선·후배에게 전화를 할 때 꼭 빼놓지 않는 말이 있다. "우리도 한 핏줄인데, 북한동포를 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북한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어린이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김씨가 북한동포돕기에 나서게 된 것은 연초 한국에서 열린 한·일 청년포럼에 재일한국청년연합(이하 한청련) 회장 자격으로 참석했을 때, 한국에서 청년불자들이 전개하고 있는 북녘동포돕기 운동을 지켜보고 큰 감명을 받았기 때문이다.

"JTS에서 북한의 기아 실상을 담은 사진을 처음 보았을 때,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동참하고 싶은 생각이 절로 생겨났죠."

처음 김씨는 모금운동을 한청련 단위 사업로 추진하려고 했다. 일본 전역을 아우르는 조직망을 갖춘 한청련이라면 고액 모금이 쉬울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그러나 종교단체도 아닌 한청련의 힘을 빌리기 보다는 자신의 원력과 벗들의 도움만으로 모금운동을 벌리기로 했다. 더 값진 신행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이때부터 김씨는 선·후배에게 모금에 동참할 것을 권해온 것이다. 이같은 노력에 힘입어 함께 모금에 나선 사람은 어림잡아 1백40여명. 이들은 매달 능력껏 김씨에게 성금을 보내고, 김씨는 지난 5월부터 이것을 모아 한국 JTS에게 송금하고 있다.

현재 김씨는 선봉이 조산탁아소에 3백80달러, 나진시 유현농장유치원에 2백70달러 등 6백50달러(한화 88만여원)를 매달 지원하고 있다. 김씨가 지금껏 후원한 금액은 총 4천여달러(한화 5백5십여만원)로 국내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큰 규모의 모금액이다.

김홍수씨는 "10월부터는 동경·오사카 거리모금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미사일 사건이 터져 무산돼 안타까웠다"며 "재일교포 2세에게 북한동포돕기 모금운동은 단절된 시간의 벽을 뛰어넘어 한 핏줄 한 민족을 확인하는 작업인 만큼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북한동포돕기 운동

인터넷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현대불교신문 http://news.buddhapia.com
부다피아갤러리 http://gallery.buddhapia.com
부다피아쇼핑몰 http://mall.buddhapia.co.kr

외국인 목사가 보낸 훼불사과 편지 2통

"기독교인의 잘못 조계종에 사과"

"예수의 이름으로 불교 사찰과 성물을 방화하고 무자비하게 파괴한 기독교인들의 옳지 못한 행위에 대해 사과합니다."

올해 들어 잇따라 발생한 각종 훼불사건에 대해 한 미국인 목사가 사과편지를 보내와 화제가 되고 있다.

미국 성공회 목사인 존 키난은 지난 9월 23일 조계종총무원 사회국장 종서스님 앞으로 편지를 보내 존 교수는 "그런 (훼불) 행동들이 정의와 평화를 지향하는 주예수의 이름으로 자행된다는 사실에 몹시 당황스럽다"고 밝히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존 목사는 또 불교-기독교학회에서 피해복구 기금을 마련하고 있다며 "우리의 슬픔의 표현이자 잘못을 보상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알아주면 고맙겠다"고 밝혔다.

존 목사는 자신을 버먼트주의 미들버리대학 종교학과 교수이며, 이 학교의 '불교-기독교학회' 감사라고 소개하고 기독교적 신념체계를 바탕으로 불교의 경전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앞서 캐나다 토론토의 이반 랄렌폰트 목사도 9월 종교편향대책위원회로 편지를 보내 "일부 기독교인들의 만행에 관한 글을 생각할 때면 눈물이 나온다"며 "기독교계가 정의 문제에 무관심하였음을 참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의 자도적인 개신교인들의 이같은 사과편지는 훼불사건이 코리아헤럴드 등 국내 영자신문과 영국의 영향력있는 일간신문 인디펜던트(The Independent, 8. 29일자), 로이터통신(8. 13), 세계방송 동아시아(영국, BBS World Service East Asia, 9.2) 등 국내외언론에 잇따라 보도되면서 나타난 반응이다.

종교편향대책위원회 손상훈 사무국장은 "양식있는 한국의 개신교인들 스스로가 일부 극단적인 한국개신교계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외국인들의 사과편지를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해와 올해에만 개신교인들의 소행으로 추정되거나 확인된 사찰방화 불상훼손 등 훼불사건은 모두 13건이 발생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16일 진각종이 주관한 국난극복 참회대법회에서 교계대표를 비롯 각계 지도자들이 한마음으로 참여해 위기극복을 기원했다. 고영배 기자(ybgo@buddhapia.com)

"호국불교의지 재결집할 때"

진각종 총인원 16일 '국난극복 참회법회' 2천여 대중 동참

오늘의 경제난을 참회로 극복하고 만다라 정신으로 민족화합을 기원하는 '옴마니반메훔' 6자진언비가 진각종 총인원 앞마당에 세워졌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월주)가 주최해 전국을 순회하며 열고 있는 '국난극복을 위한 참회대법회'의 제6차대회로 진각종이 주관해 16일 봉행된 제막식은 교계 대표를 비롯한 각계 지도자 등 2천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여한 가운데 탑주심인당에서 장엄하게 치러졌다.

1부 진언비 제막식에 이어 총인원 법당에서 열린 2부 회향법요식에서 성초 진각종통리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국가적 경제위기를 반드시 극복한다는 의지로 진언비 건립을 하게됐고, 그 공덕으로 조속히 국난이 극복돼고 민족화합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원주 종단협회장(조계종총무원장)은 법어를 통해 불자들의 참회수행과 호국불교의지로 국가 어려움을 극복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전두환전대통령 김모임 보건복지부장관 신계륜 서울시부시장, 전운덕 현대종총무원장, 총지화 총지종통리원장의 기원사가 있었다.

전 전대통령은 "남을 원망하거나 패배의식에 빠지기 쉬운 때 불자들이 참회대법회를 통해 국난극복의 선봉에 서니 참으로 장한 일"이라고 지적하고, "끈질긴 생명력과 의지 지혜 근면성으로 이뤄내자"고 기원했다.

김 복지부장관은 "불교계의 각종 구휼사업이 오늘의 실직 노숙자 등 소외된 이웃의 큰 힘이 되고 있다"면서 불자들의 현실극복을 위한 정성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서울시부시장도 "불자들이 국난극복의지의 상징으로 진언비까지 세워 원을 모으는 호국불심은 1천6백여년 불교의 역사구현"이라며 부처님의 가피가 있을 것이라고 기원했다.

이어 박상규 국민회의 연동회회장은 불자들의 발원을 모아 참회를 통한 새출발을 다짐하는 발원문을 낭독했다.

이에 앞서 진각종도들은 15일 오후8시부터 11시까지 전국 1백22개 심인당에서 일제히 '옴마니반메훔' 3정근을 했다.

한편 부대행사로 16일부터 18일까지 탑주심인당에서 열린 농축수임산물 직거래장은 불자들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의 참여속에 성황을 이루었다.

이번 행사에 모아진 수익금은 모두 복지기금으로 쓰여진다.

위영란 · 김원우 기자 (yryu@buddhapia.com)

불교문화 체험기행

11월 불교문화 체험기행은 속리산 법주사, 흥덕사지 고인쇄박물관 등을 찾아갑니다.

이번 기행에서는 정이품송(천연기념물 제103호), 현존하는 국내 유일의 목조 5층탑인 팔상전(국보 제55호), 쌍사자석등(국보 제5호), 세계최대 규모의 청동미륵대불 등으로 널리 알려진 법주사를 참배합니다. 또 세계최초의 금속활자를 제조한 흥덕사가 있었던 곳으로 인쇄술의 발달 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청주 고인쇄 박물관에서는 우리 선조들의 슬기를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1월 "금속활자를 통해 본 선조들의 슬기"

'법주사 · 흥덕사지(고인쇄박물관)'

◇출 발: 11월15일(일) 아침7시 조계사 앞
◇회 비: 3만원(점심 제공, 박물관 입장료 포함)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37-8881, 722-4162
혜초여행사 (02)722-3900
◇은행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선정호)

주최:현대불교신문사 주관:혜초여행사
협찬:일양약품

제4회 신행수기 공모

교계에서 정평과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현대불교신문 신행수기 공모가 제4회째를 맞게 됐습니다. 가슴에 묻어두기에는 너무나 뜻깊은 신행의 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감동적인 신행이야기는 더 많은 불자들의 삶에 귀감이 될 것입니다. 푸짐한 상품이 준비돼 있으며, 현대불교신문 지면에도 게재됩니다.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원고지 30매…마감 12월15일

△주 제: 생활 속 수행 신행이야기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분 량: 2백자 원고지 30매 안팎
△접수처: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담당자, (02)722-4162
△당선작 발표: 현대불교신문 99년 신년호
△시상내용
■유마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본사 사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특별상
· 종단협의회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 현대종총무원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응모자 전원: 기념품 증정

현대불교신문사

불자 화장-장기기증 소극적 23면
불우이웃돕기 전시-음악회 7면
조계종 선거 이모저모 3면



윤장대(보물 제684호)를 돌려서 무명을 밝히자

예천군 용문면 소백산에 신라시대 이후 부처님 가르침을 지켜온 법보대찰 용문사가 있습니다. 1,200년동안 경전을 수호하고 널리 알려온 화엄도량 용문사의 사적은 한국불교의 역사와 정신을 대표하는 근본도량으로서 이천만불자의 자존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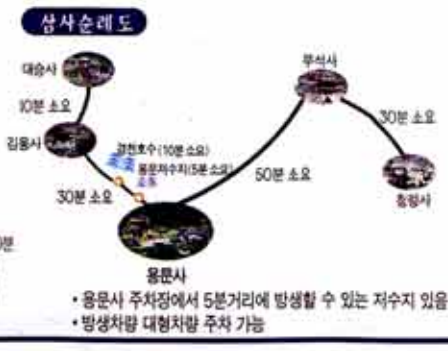
용문사에는 우리나라 유일의 회전식 장경각인 윤장대가 보존되어 있고, 대장전, 목불좌상, 목각탱화 등 많은 국보급 보물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구산선문의 5백명 스님들이 모여 담선회를 열어 한국불교의 정통선맥을 잇고, 고려 명종 때에는 3만명의 스님들이 워기에 빠진 조국을 구하고자 3만승재 대법회를 여는 동안 이러한 보물들은 함께 호국과 한국불교 중흥에 앞장서온 불교인의 정신인 것입니다. 특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배우고 싶어도 그럴 기회조차 주어지지 못했던 이 땅의 대다수 중생들에게 대장전의 윤장대는 부처님을 대신하여 자상하고 자비로운 가르침을 일천년동안이나 설해 왔습니다. 모든 정성을 모아 기도하며 윤장대를 돌리는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은 중생들에게 복덕과 지혜의 길을 열어 주셨던 것입니다.

용문사에서는 근대 이래 최초로 윤장대를 공개하여 윤장대 운전 대장경 불사를 시작하려 합니다. 윤장대를 돌리면서 업장이 소멸되고 각자 구하고 원(願)하는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며, 남북통일과 IMF 국난극복이 원만히 성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특히 수험생을 둔 부모님들과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경전을 읽는 공덕을 지어 업장을 소멸하고 지혜가 구족하여 학업이 성취하며 사업이 번창하도록 꼭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주지 청 안 합장





· 입 재 : 1998(불기2542)년 11월 23일(음 10월 5일) 오전 10시 · 회 향 : 1998(불기2542)년 11월 29일(음 10월 11일) 오전 10시

· 등(1인1등) 5,000원 · 영가 위패(1위당) 5,000원 · 대장경을 이고 법성도를 돌면서 윤장대를 운전하실 분만 동참금 1만원을 준비하십시오.
· 동참 온라인 구좌 농 협 : 747028-51-009313 예금주 : 용 문 사 · 당일은 혼잡하오니 미리 전화로 접수하여 주십시오.

윤전 대장경 초청 법회 : 영허 록원 큰스님, 화산 큰스님, 자광 큰스님

대한불교 조계종 법보대찰 **소백산 용문사**

문 의 : (0584)655-8695(종무소), 655-1010, 8405
(02)582-4665, 522-0770 서울포교당 청안사

조계사앞 버스출발 안내 11월 23일~ 11월 29일까지 매일 오전 7시 출발(당일 왕복) ☎ : 720-1656 (전화로 출발일을 접수하여 주십시오)

사 설

정토 가꾸기 10년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을 때 철학자들은 기이하게도 자신의 내면 속으로 침잠해 들어갔다. 인간의 유한성을 자각하고, 숙명적 염세주의를 유포했으며, 고립된 공간 속에서 소극적 평화와 안전을 도모했던 것이다. 스토아의 금욕주의와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가 그것이다. 이것은 역설이다. 외면적 광창과 풍요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감과 삶의 의욕을 불어넣어주기보다 소외와 불안감을 증폭시킨 것이다. 제국이란, 문명이란 다 그렇다.

행복의 길을 잘못 잡은 탓이다. 에피쿠로스가 제창한 쾌락주의를 생각한다. 그들은 쾌락을 추구했다. 그렇지만 일반적 상식과는 달리 감각적 자극이나 세속적 성취를 추구하지 않았다. 그 반대로, 그들은 진정한 쾌락이 자연의 진행에 순응하고 그와 조화를 이룰 때 얻어지는 조용한 평화(ataraxia)임을 역설했다. 그러자면 욕망은 줄이고, 생활은 단순하며, 비상하게 독립적이어야 했다.

역사는 반복된다. 근대 이후의 문명이 쌓아올린 눈부신 성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욱 불행해지고 황량해지고 있다. 자신의 힘을 거세당했으며 이웃과의 유대를 단절시켰고, 물질의 관성과 독성에 찌들려 가고 있다. 파국은 인간에게 한정되지 않고 주변의 동식물과 산하까지를 병들게 해 놓았다. 인간을 행복하게 해 주리라 믿었던 산업과 기계문명의 발전. 그리고 정보와 커뮤니케이션의 혁명이 오히려 인간의 목을 옭죄며 미래의 시간까지를 위태롭게 하기에 이른 것이다.

문명에 지친, 그리고 현대에 위기를 느낀 서구인들이 동양의 지혜를 주목하고 있다. 거기에 특히 불교가 있다. 치열하고 철저한 내면적 성찰, 그리고 단순소박한 생활, 그리고 이웃과 공동체에 대한 희생의 정신이야말로 전지구적 위기를 치유할 구원의 가능성이다.

그 책무를 어디 이방인들에게만 맡겨둘 것인가. 한국의 불교도 이런 시대적 요청을 자각하여 전통적 유산을 창조적으로 혁신시켜 나가야 한다. 벌써 크고 작은 조직과 활동이 종단에서 그리고 재가자들 사이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 가운데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활발한 활동을 벌이는 신행단체가 있으니, 정토회가 그것이다.

정토회는 그 강령과 이념부터 새롭고 참신하다. 그러면서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에 튼튼히 발딛고 있다. 연기법(緣起法)을 세계관으로 삼고, 부처님과 보살님을 삶의 모범으로 삼으며, 무아(無我)와 무소유(無所有)를 수행의 지침으로 삼는다 했다. 기실 그곳에 모든 것이 있다. 나 없이 남이 없고 남 없이 나가 없으니, 네가 불행한데 내가 어찌 행복할 것이냐. 이때 남은 나 자신일 수도 있고, 또한 이웃이기도 하며, 말없는 짐승초목과 산하대지이기도 하다. 이 인식을 구현하게 위해 나 자신의 정신적 자각을 위해 수련과 교육에 힘쓰는 한편, 그것의 사회적 응용으로 복지와 구호사업에 힘쓰며, 나아가 이를 환경과 생태의식에로까지 확산시켜나가고 있다.

그러한 정토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았다. 그 기념으로 16일 태국의 환경운동가인 슬락 시바락사를 초청해 존재와 깨달음, 그리고 평화와 환경에 대한 심포지엄을 열었다. 불교의 이념과 현대의 대안을 정면에서 다루는 의미있는 장이었다. 우리 함께 정토를 일구어 나가자. 그곳은 저 멀리 서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일구어야 하는 나라이다. 그것을 정토회는 이렇게 그리고 있다.

"개인은 행복하고 사회는 평화로우며, 자연은 아름다워 살기좋은 청정국토, 그것을 정토라 합니다."

두 회장직대 공동소집 23일 운영위 열고 대의원총회 시기 결정

中信會 정상화 될듯

회장 사퇴와 두 명의 회장직무대행체제로 내홍을 겪었던 조계종중앙신도회가 홍옥진 김한곤 두 회장직무대행이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키로 해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중앙신도회는 23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이번 운영위원회는 홍옥진, 김한곤 두 회장직무대행이 공동으로 소집하는 것으로, 대의원총회 시기 결정, 후임회장 선임 문제, 사무국 운영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두 직무대행은 지난 9월 두 차례 만나 중앙신도회 정상화를 위해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키로 합의했다. 10일에는 부회장들이 모여 운영위원회 공동소집안을 신도회 정상화를 위한 방안으로 받아들였다. 두 직무대행은 또 이같은 결정을 조계종총무원에도 통보했다. 이에 대해 총무원도 "중앙신도회 문제는 신도회 자체적으로 해결하길 기다려왔다"며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두 직무대행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며 '운영위원님께 드리는 글'을 통해 "회장직무대행 문제로 그동안 신도회가 정상화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한다"며 "신도회를 하루빨리 정상화해 새 회장이 뽑힐 때가지 살신성인의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앙신도회는 5월 송재건회장이 사의을 표명해 회장 유고 상태에 이름에 따라 김한곤 부회장을 회장직무대행으로 지명하고 업무 인수인계 및 총무원 통보 등의 절차를 마쳤다. 그러나 회장유고시 연장자순에 따라 회장직무를 대행한다는 회칙에 따라 다시 홍옥진부회장이 회장직무대행으로 선임돼 사실상 두 명의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돼 왔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천태종 관문사 낙성

천태종 관문사(주지 운덕 총무원장) 낙성 및 삼존불 봉안 법요식이 천태종 도용 종정, 운덕 총무원장, 조계종 월주 총무원장, 가명 중국 국청사 방장, 후지 일본천태종무청 종무총장, 우소비타 미얀마 불교협회 원로회의 의장, 박상규 국민회의 연등회 회장, 박철언 자민련불자회장, 함종한 한나라당 불교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3만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봉행됐다. 또 이날 법요식에 이어 낙성축하 불공법회와 한·중·일·미얀마 4개국 대표 회향만찬도 열렸다.

도필선 기자(psdo@buddhapia.com)

조계종 교과서연구위 책임연구원 56명 선정

조계종 교과서연구위원회(위원장 원혜스님)는 13일 각급학교 과목별 교과서 책임연구자 56명을 선정했다.

교과서연구위원회는 연구자들의 모니터 결과를 취합, 자료집을 만들어 12월 9일 열리는 세미나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성운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후보 초청토론회 연다

한국불교언론인회(회장 신광식)와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하춘생)는 11월 5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동국대 학술문화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후보자초청 합동 종책토론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번 총무원장 후보초청 토론회와 관련 각 총무원장 후보 선거대책본부들은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준비위원회는 불교TV와 불교방송도 참여하여 합동토론회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금산사 -도영스님, 백양사 -지선스님

새 주지 추천


◇도영스님


◇지선스님

조계종 제17교구 본사 금산사 주지에 도영스님, 백양사 주지에 지선스님이 추천됐다.

금산사는 9일 산중총회를 갖고 후임주지에 도영스님을 만장일치로 추천했다. 도영스님은 "금산사 1천4백주년 기념 행사를 원만 호향토록 매진하겠다"고 재임 소감을 밝혔다.

또 조계종 제18교구본사 백양사 차기주지에는 지선스님이 재추천됐다.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서옹스님은 8월 27일 지선스님을 재추천했다. 이에따라 백양사는 9월 10일자로 총무원에 추천서류를 접수했다.

임연태 기자

조계종 구족계 381명 수계

조계종 제19회 단일계단 수계산림이 12~18일 일정으로 통도사에서 개설됐다.

사미 2백1명, 사미니 1백80명 등 3백81명이 입재한 이번 산림은 18일 수계식을 갖었다. 12일 고불식에서 통도사 방장 월하스님은 "계는 본래 각을 그치고 세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며 정은 교리를 거두어 육천(六天)에서 초월케 한다. 이 계법이 아니고서는 깨달음의 길이 아니니 계는 진실로 자기 마음에 두어야 한다"고 설했다.

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고침 193호 2면기사 중 중국불교체협 수행단장 무비스님과 수행단 학인은 중앙승가대학이 아니라 은해사 승가대학원장 및 학인이기에 바로 잡습니다.

풍산한식 동기와 판매및 시공
◆ 서푼짜리 기와때문에 천냥짜리 대들보가 썩어서야?
◆ 사찰기와 재보수 이젠 걱정 없습니다.
천년을 이어갈 가람, 풍산 한식 동기와로 보존 하십시오
전문 시공업체 —— 대표 최 대 룡 함장
成源産業 TEL (02)3663-1737 FAX (02)3664-8216
H.P (011)445-7811 야간 (02)502-7811,7827

연변은 불교불모지대

사찰 1곳뿐…80%이상 개신교인
중국불자 1억명 사찰 1만3천곳

김룡민 연변자치주 종교국장 밝혀

중국 종교인구의 70%가 불교신자이지만, 우리 동포들이 모여 살고 있는 연변자치주의 종교인구 분포는 개신교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기독교신문협회가 주최한 '중국 조선족 종교문제 심포지움'에 참석한 중국 연변 조선족자치주 김룡민 종교국장에 따르면, 인구 2백13만명인 연변 조선족자치주에 있는 2백23개 종교시설 가운데 사찰 1, 성당 19, 이슬람 예배당 10곳이며, 나머지 193개는 개신교 교회다. 연변 종교국에 등록한 5만명의 종교인 가운데 4만명이 개신교 신자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국장은 "연변의 조선족은 항일투사의 후예들이므로 마땅히 한국의 종교인들이 연변동포를 도와야 한다"며 "종교단체의 의료·교육 등의 지원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불교 도교 이슬람교 천주교 개신교 등 5개의 종교를 인정한다. 종교인구는 중국인구의 10% 가량인 1억4천2백만명이다. 불교신자가 1억명으로 중국은 불교대국이다.

▲불교-사찰 1만3천곳, 출가승 20만명, 신자 1억명. 한나라 때 전래돼 2천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중국 사상·문화의 전통성은 불교에 있다. 오늘날도 생명력을 잃지 않고 발전하고 있다.

▲도교-사찰 1천5백곳, 출가승 2만5천명, 노자의 도덕경을 경전으로 삼고 있다.

▲이슬람교-예배당 3만곳, 신자 1천8백만명. 중국 서부지방 10개 민족이 신봉. 민족문제와 결합되어 중국정부가 매우 어려워하고 있다.

▲천주교-120개 교구에 성당 4천6백곳, 교직자 4천명, 신자 4백만명(해방 전(1949년)에는 80만명이었다).

▲개신교-교회 3만7천곳, 교직자 1만8천명. 해방 전 신자 수는 70만명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2천만명에 이르러 중국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다.

중국은 헌법 36조에 △종교의 신앙·비신앙의 자유 △종교 선택의 자유 △종교내 교파 선택의 자유 △개종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컴퓨터 프린터 보내주세요"

연변 조선족사찰 교각사 요청

중국 연변 조선족자치주의 유일한 조선족 사찰인 교각사 주지 성룡스님이 컴퓨터와 프린터 스캐너가 필요하다며 고국불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왔다고 부산불교신도회가 9일 밝혔다.

부산불교신도회에 따르면, 성룡스님은 중국어와 한국어로 법회를 하고 있으며, 회보를 두 나라 언어로 만들어야 하므로 컴퓨터 등의 장비가 필요하다고 알려왔다. 성룡스님은 구화산 방장 인덕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최근 교각사를 창건하고 수행·교화활동을 펼치고 있다. 문의: 부산불교신도회 (051)464-2020.

정성운 기자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8881

현대만평

박구원



너그럽게…

공 고

종헌 제34조, 85조 및 중앙종회의원선거법, 교구종회의원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12대 중앙종회의선거 및 제2대 교구종회의원 선거일을 다음과 같이 공고함.

◆ 다 음 ◆

1. 제12대 중앙종회의원 선거일(직선) : 불기 2542(98)년 10월 29일(목요일) (음 9월 10일) 오후 1시~4시까지
2. 제12대 중앙종회의원 선출일(직능) : 불기 2542(98)년 10월 26일(월요일) (음 9월 7일) 오후 1시
3. 직능대표 선출위원 소집 및 장소 : 직능선출일정과 동일(장소:총무원4층 회의실)
4. 제2대 교구 종회의원선거일(10인) : 중앙종회의원선거일(직선)과 동일함.
5. 선 거 구: 직선중앙종회의원선거 및 교구종회의원선거 : 당해 교구본사
6. 중앙종회의원 입후보자 자격(직선) : 승람15년이상, 년령 35세이상의 승려로써 중앙종회의원 선거법 제11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자
7. 중앙종회의원 입후보자 자격(직능) : 승납 15년이상, 년령 35세이상의 승려로써 중앙종회의원 선거법 제40조에 규정된 해당분야(율원, 선원, 강원, 포교, 사회, 복지, 문화, 법제, 행정)의 전문성을 갖춘 종사자
8. 교 구 종 회 의 원 입후보자 자격 : 승랍 10년 이상, 연령 30세이상의 교구 재적승 및 거주승(주민등록상1년 이상 거주자)으로써 교구종회의원선거법 제11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자
9. 입후보자 등록기간(중앙, 교구) : 불기 2542(98)년 10월 19일~10월 21일(3일간) 오후 5시
10. 입 후 보 자 등 록 기 간 (직 능) : 불기 2542(98)년 10월 16일~10월 18일(3일간) 오후 5시
11. 입 후 보 자 등 록 서 류 : 1. 등록신청서(선관위 양식) 1부
    2. 호적등본(원적이 표시된 등본) 2부
    3. 이 력 서 1부
    4. 사진(반명함판) 5매
12. 입 후 보 자 등 록 장 소 : 당해 교구선거관리위원회 교구본사
    ※직능직 중앙종회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에 등록
    ※비구니 중앙종회의원은 전국비구니 대표단체(전국비구니회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13. 중앙종회의원 선거권자자격(직선) : 구족계를 수지한 자로써 중앙종회의원선거법 제10조 및 동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써 선거권이 있다.
14. 직능대표 중앙종회의원 선거권자 : 직능대표선출위원회
15. 교구 종회의원 선거권자 자격 : 구족계를 수지한 자로써 교구본사 재적승(비구), 재직승(본말사주지, 본사국장, 본말사 암자 감원), 거주승(비구로서 주민등록상 1년이상 거주자)
16. 거주승신고기간 : 불기 2542(98)년 9월 26일~10월 2일(7일간)
17. 선거인명부열람기간 : 불기 2542(98)년 10월 19일~10월 23일(5일간) 오전 9시~오후 5시까지
18. 선거인명부 열람장소 및 투표소 : 당해 교구본사
19. 문의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전화 : 02)735-5860)

불기 2542(98)년 9월 25일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 현 해

미래지향적 종책준비 '분주'

조계종 제29대 총무원장 선거가 후보등록일(11월 2~4일)을 보름여 앞두고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각 후보진영은 마지막 종책 다듬기와 중앙종회의원선거에 비상한 관심을 모으며 막판 세몰이 전략을 세우기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계종 선거

월주스님 출마건의 수락
3선출마 위헌 심판청구
불법선거운동 중단촉구
2백명 종회의원 선거못해
비구니 종회의원 10명추천
후보등록전 선거운동 불법

월 주스님은 14일 오후3시 '송월주총무원장후보추대위원회' 소속 스님들의 출마건의를 수락하는 형식으로 출마의사를 밝혔다. 추대위원회는 이에앞서 관훈빌딩 1101호실에서 출범식과 기자회견을 가졌다. 추대위는 스님들의 종합복지대책 마련, 전국적 포교전략 구축및 수도권 포교방안 마련, 문화유산 효율적 관리 방안 제시, 정보화시대 종단 위상 정립, 종단의 사회적 위상 상승 노력 등의 종책 기조도 발표했다.

조 계종 총무원장 3선반대를 위한 범불교도연대회의(공동의장 청화 외)는 14일 송현클럽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월주 총무원장 후보 추대위원회'의 자진해체를 촉구했다. 또 연대회의는 "총무원장 3선 출마에 대한 위헌성을 조계종 법규위원회에 심판청구할 것"을 밝히는 한편 20일까지 불출마 선언을 공식 발표할 것을 요청했다.

연대회의는 '월주 총무원장 후보 추대위원회' 발족과 관련 15일 논평을 발표, "선거에 엄정중립을 지켜야 하는 교구본사 주지와 종단법규위원회 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참여하는 '월주 총무원장 후보추대위원회'는 총체적인 불법 선거단체"라며 자진해체 할 것도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8일부터 12일까지로 요청한 월주스님 면담이 성사되지 않았으며 13일과 14일 방문도 월주스님의 회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 정선거를 위한 범불교도협의회(상임공동대표 석담스님, 김재일)는 13일 조계종 총무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주총무원장후보추대위원회' 명의의 각종 광고 및 홍보물 배포는 사전선거운동이며 불법행위"라며 중단을 촉구하고, 총무원장의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에 대한 입장발표를 요구했다. 또 현 총무원 소임자 스님과 종무원의 엄정중립과 각 후보들은 공정선거와 정책선거 확립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공선협 상임대표 법타스님(불교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은해사 주지)은 14일 공선협 상임대표직을 사임했다.

중 앙선관거관리위원회(위원장 현해)는 14일 제32차 회의를 열어 중앙종회의원선거법 부칙 6조를 이번 선거에서 그대로 적용키로 결의했다.

중앙종회의원 부칙6조는 "당해교구에서 선거권을 행사한 자가 4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타교구에서 행해지는 각급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현재 이에 해당하는 스님은 2백1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선관위는 또 종단의 관장하입을 밝히지 않은 백련문화재단의 임원과 소속 사찰의 주지들에 대해서 "선거권이 없다"고 결의 했다. 공정선거를 위한 범불교도협의회가 고발한 성타스님의 사전선거운동에 대해서도 "명백한 사전 선거운동 행위로서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전 국비구니회(회장 광우)는 12일 마포 석불사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제12대 중앙종회 비구니의원 추천자를 확정했다.

추천된 스님은 도준(석남사), 일법(대둔사), 지형(청암사), 본각(보타사), 계호(보광사), 경륜(석불사), 수현(안흥사), 운달(미타암), 해주(등국대교수), 법성(자비사) 등. 비구니회가 추천한 스님들은 직능대표선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최종 선출된다. 직능직 종회의원 선출일은 26일이다.

조 계종의 각급 선거관련법에는 사전선거운동을 따로 정의하는 대목이 없다. 때문에 중앙종회의원 선거법 제15조와 총무원장 선거법 제11조에 명시된 선거기간 10일 이전에 행해지는 모든 선거관련 행위를 사전선거 운동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관례로 하고 있다.

사전 선거운동에 대한 유형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가 고발 진정등의 사례를 접수받아 사항을 검토해 사전선거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 이를 선거법에 위배되는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정하는 것. 그러나 사전 선거운동으로 규정된 사안과 관련한 해당자의 징계 조항 역시 선거관련 법에는 정리되어 있지 않다. 선관위는 징계권이 없으므로 해당자를 호법부에 고발하게 되고 호법부는 선관위와 일반 고발자의 고발 접수 내용을 토대로 자체 조사를 벌이게 된다. 고발된 사안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경우 '승려법' '종무원법' 등의 종법을 토대로 징계 절차를 진행한다

임연태 · 도필선 기자
(ytlm@buddhapia.com)

목어 아시아적 가치

유럽의 3대 사회학자로 꼽히는 영국의 앤서니 기든스교수(60 · 런던 정치경제대 학장)와 독일의 철학자 카를 오토 아펠박사(76)가 한국에 와서 21세기의 전망을 주제로 12~13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두 석학은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는 아시아가 21세기 새로운 가치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시아적 가치관은 시장개방이 가속화 되는 21세기에도 증시되는 덕목이다. 다만 아시아적 가치를 다른 문화와 연계, 코스모폴리탄적인 가치로 승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기든스)

"아시아문화는 세계보편문화를 만드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아펠)

때마침 한국과 일본정상의 공동선언과 함께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위한 행동계획'이 발표돼 두 석학의 말은 더욱 눈길을 끌었다. 43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된 '행동계획'은 실천 여하에 따라 코스모폴리탄적인 가치를 창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행동계획'에는 일본대중문화에 대한 한국시장개방안이 담겨있다. 일본은 국회의원들이 박수를 칠 정도로 환영하고 있지만 우리쪽은 사정이 다르다.

"개방이 일본의 일방적 이익이 되지 않도록 수입의 상호주의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일본시장 진출을 위해 국내 문화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자."

일본대중문화개방이 한일불교교류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까. 문화관광부는 한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일본불교들이 공식적으로 등록을 할것으로 보고있다. 현재 일본불교는 미등록 상태에서도 날로 교세를 넓히고 있다.

이미 한국불교속에는 낙태아 천도 '수자공양', 사찰경내 납골당 설치등 일본불교문화가 들어와 있다. 그럼 한국불교는 일본불교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가.

김대중 대통령 방일 만찬에서 아키히토 일왕은 "일본 불교는 백제에서 전래됐다. 한국의 문화는 일본에 큰 영향을 끼쳐왔다"면서 두나라의 우호협력 구축을 바랐다.

아시아적 가치를 말하면서 불교를 빼놓을 수 없다. 불교는 아시아적 가치와 동양의 문화를 이루는 중추이기 때문이다.

한일 기독의원 연맹은 김대통대통령 방일에 맞춰 도쿄에서 국제포럼을 갖고 "남북통일운동과 함께 건전한 일본 문화가 한국에 전파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불교가 세계보편 문화를 만들려면 한일불교교류의 지표를 다시 설정해야 한다.

'국난극복' 진각종 총인원법회 이모저모



◇진각종 총인원 법당에서 열린 참회대법회.


◇15일 입재식으로 3시간동안 진각종도들이 '옴마니반메훔' 정근을 했다.


◇국난극복과 민족화합을 기원하는 8m높이의 '옴마니반메훔' 6자 진언탑이 진각종 총인원 앞마당에서 제막됐다.

8m 6자 진언비 제막

○…국난극복을 위해 전국순회 제6차대회로 열린 진각종 법회는 민족화합과 국난극복을 기원하는 6자진언비 제막으로 의지를 한데 모으는 힘찬 감동속에 진행됐다. 8m높이의 장엄한 진언비는 각계 지도자가 제막버튼을 누루자 거대한 풍선이 덮개를 벗기고 진언비가 웅장한 자태를 드러냈다.

죽비소리에 '옴마니반메훔'

○…15일 밤 열린 민족화합과 평화통일을 발원하는 옴마니반메훔 6자진언 정근은 각해총인부터 성초통리원장을 비롯 종단간부와 탑주 · 밀각심인당 신도 등 2백여명이 참여했다. 죽비소리에 맞춰 총무부장의 선창에 이어 대중은 정진에 들었다. 진호국가를 발원하는 "옴마니반메훔…" 창마염송은 3시간동안 밤하늘을 궤뚫고 퍼져나갔다.

마당 · 잔디밭도 야단법석

○…16일 탑주심인당 마당은 마당대로 야단법석을 이뤄 눈길을 끌었다. 법회장에 입장하지 못한 신도들이 앞마당에 설치된 멀티비젼앞에서 법회를 보는가 하면, 잔디밭에는 백일장과 사생대회로 학생과 어린이들이 차지하고 농축수산물 직거래장터는 좋은 물건을 구입하느라 분주했다. 하월곡동 탑주심인당 진입로에서부터 심인당 담을 따라 둘러쳐진 국난극복기원 깃발 3백여장은 법회장을 의호하며 흩날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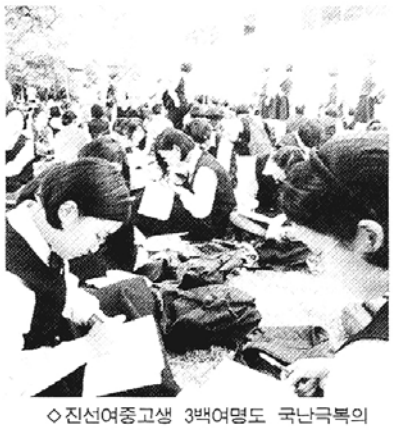
어린이들 글 · 그림솜씨 뽐내

○…푸른 잔디밭을 수놓듯이 진각종 소속 유치원생들과 진각복지재단 소속 어린이집의 원생등 1백50여명은 고사리같은 손으로 '부처님' '가족' '통일'을 소재로 국난극복의 큰 주제를 그림으로 담아내기에 열심이었다. 또 한쪽의 잔디밭에는 진선여중 · 고생 3백20여명이 삼삼오오 모여앉아 글솜씨를 뽐냈다.

농수축산물 장터 '북적'

○…농축수협 중앙회의 협찬으로 우리 농어민들과 서울시민을 직접 연결해 저렴하고 싱싱한 농축수산물을 판매한 농수산물직거래장터는 온 국민을 하나로 뭉치기는 실질적인 행사. 즉석에서 버무린 김치와 깍두기는 인기품목으로 꼽혔다.

한편, 진각종 총인원이 주택가에 위치해 주민들의 관심과 발길을 모으기도한 이번 행사를 위해 진각종은 5만부의 홍보전단을 인근지역에 배포 홍보했다.


◇진선여중고생 3백여명도 국난극복의 의지를 글로 표현했다.



◇국난극복 진언비.


◇복지기금 마련을 위한 우리 농축산물 직거래장이 부대행사로 열렸다.

●초대합니다●

태고 보우국사 전서 완결판 출판 기념법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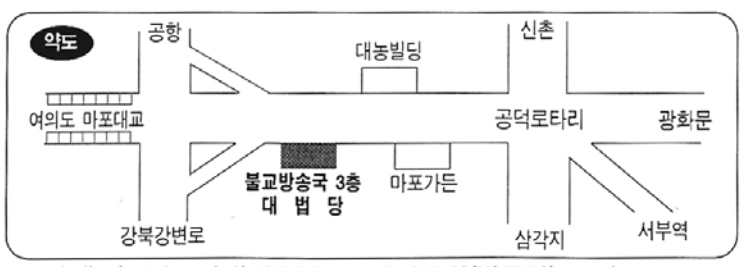
태고 보우국사 연구 2차 학술 발표회

초대의 말씀

귀의 삼보하옵고
현 IMF난국과 온갖 천 · 인재 속에서도 동체대비의 인연관계를 바로 깨닫지 못하고 부정과 비리, 갈등과 대립, 도덕성 문란 등 인간본성을 상실하여 민족적 생존위기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태고국사 탄신 697주년을 맞아 원융회통 사상과 화쟁 · 화합 정신으로 고려말 오교 · 구산을 통합, 원융부를 설치해 조계종의 종지를 확립하고 한양천도를 건의하는 등 쇠퇴기를 이 국운을 바로잡아 보고자 진력하셨던 **태고 보우국사**의 사상과 법통을 재조명해보고 큰 깨달음의 선풍을 진작, 국민 각자가 스스로를 바로 깨닫게 하는 계기를 만듦으로써 한국불교계와 국가사회에 올바른 진토를 찾게 하고자 합니다.
태고 보우국사 연구 제 2차 학술발표회 및 태고 전서(완결판) · 출판기념 법회에 두루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기 2542(1998)년 10월 일

사단법인 대륜불교문화연구원 이사장 안덕암 원장 서무공



■ 안내 및 문의 : (사)대륜불교문화연구원(법륜사) : 02)732-3920
불교방송국 : 02)705-5114

● 학술발표 및 출판기념법회 ●

■ 일시 : 1998년 11월 18일 수요일 오후 1시
■ 장소 : 서울 마포구 마포동 140 불교방송국 3층 대법당

■ 학술발표 (13:10~15:10)
▪ 주 제 : 태고 보우국사의 사상과 법통의 재조명
1. 임제의현의 생애와 선사상, 성본스님(동국대학교 교수)
2. 태고 법통확정의 사적 고찰 · 김영태(동국대학교 전교수)
3. 서산 문도의 태고, 법통설 천명 · 김상현(동국대학교 교수)
4. 태고선풍, 정태혁(동방불교대학장)

■ 토 론(15:10~16:10)
1. 권기종 교수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장)
1. 서윤길 교수 (동국대학교 교 무 처 장)
1. 이법산 스님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장)
1. 이봉춘 교수 (동국대학교 불교대학교수)

■ 출판기념법회 (16:10~17:30)
■ 출판내용 : 태고 보우국사 전서 제 3권 완결판
(사상, 선풍, 법통, 자료 등 1200쪽)
(※I권 법어 : 기타 450여쪽 II권논총 : 논문23편 1,000쪽 : 비매품)
■ 출판 기념품 증정 : (참석자 전원)
태고 보우국사 전서 제3권 완결판 1권 보시함

· 후원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한국불교태고종, 대륜화상문회, 각신문 방송국

교차로 승가



해인승가대 육성방안 논의

설정 해인승가대학 총동문회장(조계종 종회의장)은 23일 오후2시 서울 구룡사에서 해인승가대 육성지원 방안 등을 안건으로 98년 정기총회를 연다.



시각장애인 · 노인 위안잔치

삼중 부산 자비사주지는 부산교육대학옆(구 대법사 자리)으로 자비사를 이전하고 26일 오전11시 주지 취임법회 및 지역노인들을 위한 잔치를 갖는다.(051)467-2366



탑전 철야정진 법회

밀운 봉선사 주지는 22일 오전 10시 탑전철야정진기도법회를 입재해 24일 회향한다.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성운 인덕원 이사장(삼천사 주지)은 14일 제2회 노인의 날을 맞아 은평구청에서 치매노인복지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사명대사 388주기 추모법회

성오 부산불교연합회장은 15일 부산 어린이대공원 사명대사 동상앞에서 경제난 극복을 위한 호국정신 계승 사명대사 열반 제388주기 추모법회를 봉행했다.



군포교 전산화 사업 논의

성광 예비역군법사회장(조계종 총무원장 사서실장)은 9일 회장단 회의를 열고, 군포교전산화 지원사업과 정기총회 개최, 회원 포교활동지원 등을 논의했다.



생보자 22가구에 백미

대운 양주 지장사 주지는 추석을 맞아 지역내 생활보호대상자 22가구에 백미 1가마씩을 전달했다.



개산 6주년 기념법회

송암 안성 도안사 주지는 11일 개산 6주년을 맞아 '돈오돈수와 그리스도교 신앙'을 주제로 서명원 신부초청 강연회를 가졌다.



加 건강식품 세미나 참석

시연 여래한방원장은 캐나다에서 열리는 자연식 건강식품 세미나 참석차 1일 출국했다. 또한 스님은 6일 미국 렌실베니아주 템플대학에서 인체공학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



노인초청 칠순합동잔치

보안 대전 법동종합사회복지관장은 17일 대덕구 청소년 수련관에서 법 1·2동 거주 어르신 20명을 초청, 칠순합동 잔치를 열었다.

동시통역 법회



Focus

11일 천태종 관문사 낙성법요식이 국내법회 사상 최초로 동시통역으로 치뤄져 눈길을 끌었다. 참석인사도 국제적이었지만 법회를 국어·영어·일어·중국어 등 4개국어 동시통역으로 진행할 만큼 법회장 시설이 국제적 수준이었던 것.

법요식장 단상에 오른 2백여 내외빈 가운데 동시통역 헤드폰을 낀 외국대표단은 중국 국청사의 가명 방장(사진 왼쪽)을 비롯 7인과 일본 천태종 좌주를 비롯한 18인, 또 관문사 옥불전에 봉안된 옥불과의 인연으로 미얀마 소비라 종정(사진 중앙)을 비롯한 6명 등이다.

2시간 가까운 법회시간 동안 옥불전 2층에서는 동시통역 진행을 하기 위한 통역사들이 각각의 통역실에서 신속하게 작업을 했다.

위영란 기자(yryui@buddhapia.com)



방한 인디아 JTS 회장 프라자나스님

빈민구호 · 마을개발 · 경전보급

"인도불교 미래 밝아요"

"인도불교의 미래는 밝아요. 극빈층에게는 빈민 구호, 중산층에게는 경전 배포 및 각종 세미나 활동 등으로 인도 불교의 중흥을 일궈 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한국 불자들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합니다."

10일 JTS 창립 10주년 행사에 참석코자 방한한 '인디아 JTS' 회장 프라자나(Ven.G.Prajnananda) 스님(사진 오른쪽). 1928년 스리랑카에서 출생한 스님은 꺼져가는 인도 불교의 불씨를 지피기 위해 고군분투해 왔다.

10여년 전에는 상카시야 석가족 마을에서 현재 '인디아 JTS' 산하 수자타아카데미 원장인 유발 상좌 슈레스(Suresh Chandra Bauddh, 사진 왼쪽)와 법륜스님(한국JTS이사장)을 만나면서부터 극빈층에 대한 교화와 구호활동을 본격화했다.

93년 인디아JTS를 설립, 인도에서 가장 극빈한 지역으로 꼽히는 비하르주 보드가야 등 게스와리 지역에서 학교와 병원을 세우면서 지속적인 활동을 결쳐왔다. 현재 어린이 교육을 맡은 수자타아카데미와 의료사업을 위한 지이바가병원 등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식수개발, 주택개량 등 마을개발사업을 의욕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내년 2월 15~16일 '세계불교도 회의(Worlld Bbuddhist Council)'와 함께 유피주 아오디아(가야의 왕비 허황옥의 고향)에서 전세계의 50여만명의 불자가 모이는 대집회를 열어 본격적인 불교 중흥의 서막을 알리겠다"는 스님은 "5천만명에 이르는 석가족과 콜리족, 이차리족 등 불교와 인연있는 종족을 개종시킬 경우 불교세(힌두교 무슬림, 기독교에 이은 4번째)가 더욱 커질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김재경 기자(jgkim@buddhapia.com)

"영상으로 한국불교 알릴 터"

美·加·멕시코서 포교 일시귀국 삼우스님



"삼보사찰과 적멸보궁, 관음도량등 한국불교의 성지를 사진과 영상에 담아 미국내 불자들에게 한국불교를 보다 널리 알릴 생각입니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불교포교에 매진하고 있는 삼우스님의 말이다.

스님은 영상포교자료 촬영을 위해 지난 9월28일 미국인 제자인 안젤리와 함께 입국해 이미 강원도 지역의 적멸보궁과 관음도량 촬영을 마쳤다.

스님은 오는 11월 중순까지 강화도와 중남부 지역의 불교성지 촬영을 마치고 11월23일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이은자 기자(ejlee@buddhapia.com)



조계종 호법부장서리 현각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16일 호법부장 서리에 현각스님(원주 성불원원장)을 임명했다. 스님은 1970년 월정사에서 희찬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해인사 강원과 동국대를 졸업한 스님은 영월보덕사 주지를 거쳐 원주 성불원을 건립, 현재 성불유치원장, 원주시립복지원장, 명륜사회복지관장 등을 맡고 있다.

교차로 재가

한국불교연 홈페이지 개설



정병조 한국불교연구원 이사장(동국대 부총장)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학술자료와 故 이기영 박사 저술목록, 원효학당, 구도회 등에 대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http://www.kibs.or.kr

'21세기 한국불교' 학술대회



조희영 교수불자연합회장은 24일 오후1시 교수불자연합회 10주년을 기념해 '21세기 한국불교의 좌표'를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연다.

은해사 신도회장에



안종학 청명산업개발 회장은 최근 조계종 10교구본사 은해사 신도회장으로 취임했다.

자원봉사자상 수상



조달현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중앙사무국장은 9월30일 대검찰청에서 주최한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1주년 기념행사에서 자원봉사자상을 수상했다. 조국장은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범죄예방위원실 운영실장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해왔다.

밀양 삼양사 주련 현판전



송문영씨(서각가)는 22일까지 경남 밀양 문화의 집에서 밀양 삼양사 주련 현판전을 갖는다.

결식아동 돕기 1일 바자



유혜주 신도림복지관장은 27일 복지관에서 결식아동을 위한 1일 바자회를 연다. 생필품, 먹거리, 기증품을 저가에 판매한다.(02)631-9792

백양사서 '먹으로부터 사색전'



류종갑씨(화가)는 24일까지 백양사 고불미술관에서 '먹으로부터 사색전'을 연다. (0685)92-7502



평생 만해스님 얼 기린

김관호 옹 별세

만해스님의 숙가 제자였던 김관호옹이 12일 93세를 일기로 별세, 14일 서울 삼성병원에서 영결식을 치른 후 고양시 벽제 선산에서 영면에 들었다.

故 김관호옹은 생존해 있던 만해스님의 제자로 그동안 논문과 육성증언을 통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만해스님의 행장을 알려왔다. 80년대 초부터 전국 각 대학을 돌며 만해사상을 강연하면서 한 준의 강연비도 받지 않아 주위 사람들로부터 "만해스님과 같은 분"이라는 존경을 받기도 했다는 일화가 있다. 특히 독립선언문의 '공약삼장'이 만해스님이 쓴 것이 아니라는 일부 학자들의 주장에 대해 만해스님 입적시 스님이 쓴 '공약삼장' 친필을 자신이 직접 수습했다는 증언 등을 통해 만해스님에 대한 그릇된 주장을 불식시키는데 앞장서 왔다.

또 만해기념회 대표 및 95년 발족한 '만해학회'의 산파역할을 하기도 했으며, 불교거사림회 고문법사로 활동하면서 만해스님의 독립운동 정신을 선양하는 등 유훈 계승에 앞장섰다.

한명우 기자(mwhan@buddhapia.com)

다시한번 총무원장 스님의 명예로운 선택을 간절히 발원합니다.

- 송월주 총무원장 후보 추대위원회의 자진 해체를 요구하며 -

총무원장 3선출마 반대를 위한 범불교도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현 송월주스님이 제29대 조계종 총무원장 후보로 나서는 것이 종헌종법에 명백히 위배되며 송월주스님의 결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지난 9월 29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종헌의 자의적 해석으로 3선출마를 강행하는 것은 종단을 분열과 혼란으로 몰아넣는 행위라고 이미 경고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의 견해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송월주 총무원장 후보 추대위원회(이하 후보추대위)'는 불법적인 사전선거운동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대회의는 지난 7일 조계종 총무원에 공문을 접수하고 12일까지 송월주 총무원장스님의 면담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종단 안정과 승가화합을 위해 총무원장스님을 직접 뵙고 본회의 의견을 전달하려 하였으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면담이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공개적인 매체를 통해서라도 본회의 애종심어린 건의를 받아 주실것과 재차 수행자적 결단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송월주스님의 진면목을 종도들에게 보여주시고 다시한번 아름다운 수행자의 뒷모습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 법규위원회는 3선출마의 명백한 위헌성을 심판해야하며, 후보추대위 명단에 법규위원스님들을 활용한 것은 종헌종법위반행위이며 잘못된 처사입니다.

종헌 80조에 의거 종법의 위헌결정을 하는 곳이 법규위원회이며 승단전통과 종도들의 뜻을 받들어 올바른 법리적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후보추대위는 정법을 판단해야 할 법규위원스님들을 특정후보추대의사를 밝히는 명단에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이는 법규위원스님들의 공정성을 의심스럽게하고 전체 법규위원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세간법에서도 선택에 대한 개인적 지지는 자유이나 헌법재판관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이 공개적으로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94년 서의현 전 총무원장은 합법적으로 3선을 강행하려 했음에도 전종도들의 의견은 정반대였습니다. 현재도 종헌해석상 3선출마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종도들의 뜻입니다. 94년과 다른 것이 있다면 법해석부터 종도들의 뜻을 저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후보추대위는 3선출마 강행에만 눈이 어두워 또한번 종단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후보추대위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법규위원스님들까지 이용하는 처사는 사부대중에게 참회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 총무원 집행부는 1998.4.8 대불총총 제275호 공문을 통해 세간법에 의해 3선해석을 의뢰하였으나 종헌종법들내인 법규위원회에 먼저 해석을 의뢰했어야 했습니다. 현 총무원집행부가 배포하고 있는 변호사들의 3선해석은 자의적인 것이고 종단내의 불리함을 세간법에 의존하여 해결해보고자 하는 반승가적인 의도입니다.

본연대회의는 3선출마가 종헌종법에 위배되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위)가 지엽적인 문제만을 검토할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인 3선출마의 위헌성을 판단하고 공정선거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할 중앙선관위원이자 전직 총무원 부장스님이 후보추대위에서 활동 한다는 것은 중앙선관위의 공정성을 해치며 선거이후에도 많은 부작용과 이후 책임성을 밝혀내야 할 사항입니다.

- 불법, 금권선거를 조장하는 '송월주 총무원장 후보 추대위원회'의 모습에 실망과 우려를 금치 못합니다.

제29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실체를 확인할 수 없었던 '송월주 총무원장 후보 추대위원회'명의로 여러 번에 걸쳐 교계 주간지에 불법광고를 게재하였고, 수천만원의 거금을 들여 전국본말사에 선거홍보용 광플렛을 배포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진실한 모습도 드러내지 아니하고 세속적인 선거에서나 볼 수 있는 물량공세, 관권선거, 금권활용이라는 타락선거의 전형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는 종도들의 여망인 공정선거와 중책선거를 무시하고 추대위가 과열혼탁선거로 만들고 있다는 확실한 근거입니다.

- 3선반대는 종도들의 뜻입니다.

후보추대위는 3선 반대 여론이 드높아지자, 이를 막아보고자 금권과 권력을 동원하여 자신들의 입지를 조급하게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하기에 14일 추대위 기자회견에 공식적으로 명단은 발표했지만 참석하지도 않은 스님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인연 때문에 면전에서 거절할 수 없어서, 또는 반신반의한 생각에 이름을 포함시켜준 스님들도 있었습니다. 추대위에 직책을 맡은 스님들 가운데 3선출마의 적법함과 당위성을 자신있게 답변하는 스님들은 거의 없습니다. 기득권을 지켜내려는 극소수 일부 권승들만이 세속적 관단과 반승가적인 사고로 종도들의 여망을 호도하고 자신의 불법과 탈법선거운동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연대회의의 분명한 지적대로 현 총무원장스님의 3선출마는 종헌종법에 위배되는 불법행위임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자진 해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 월주 스님께서 제29대 총무원장 선거에 나서지 않을 것을 선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주 스님께서는 지난 4년의 공과를 떠나 사회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만들어 오셨습니다. 그것을 하루 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는 우를 범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종도들은 아직까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송월주 총무원장 후보 추대위원회'를 구성하여 총무원장 스님의 명예를 짓밟으려는 모습을 모든 종도들이 안타까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존경과 덕망을 받아온 교구본사주지스님들은 지금이라도 결단을 내려 일부 극소수 권승들의 부추김에서 벗어나시고 추대위 탈퇴선언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우리는 송월주스님과 전직 포교원장스님들께서 종단의 명예와 개인의 명예를 드높이고, 사회의 지도자로서 위치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기에 월주스님께서 이번 선거에 후보로 나서지 않을 것임을 대외적으로 천명하시고 교구본사 주지스님들 역시 종도들에게 더 이상의 혼란과 우려를 주지 않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 우리의 요청

- 월주스님은 20일까지 저희들의 요청대로 불출마선언을 공식발표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송월주 총무원장 후보 추대위원회'도 20일까지 자진해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자천타천으로 29대 총무원장 선거에 입후보하실 후보스님들께서는 월주스님이 출마하실 경우 '불출마 선언'을 발표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 우리는 원로대덕스님들과 종도들의 의견을 모아 11월 4일 승려 정진대법회, 11월 11일 범불교도 정진대법회를 준비할 것입니다.

불기 2542년 10월 14일

총무원장 3선줄마 반대를 위한 범불교도 연대회의(02-725-3766) 공동의장 : 청화 혜총 지원 종광 효산 진관 효종

■참여단체 :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불교인권위원회 동국대석림회 동국대석림동문회 동국대동림동문회 새불교운동전국승가회 중앙승가대학교총학생회 중앙승가대동문회 조계종을 염려하는 종회의원모임 전국불교운동연합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불교법조인회 내 20여명의 변호사 청년여래회 제주불교정토청년회(이상 15개단체, 10월 14일 현재 참여단체, 무순)

■불자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의견을 받습니다. 서울 종로구 중학동 111번지 402호 725-3766 우편번호 : 110-150 통신ID : Anti29 은행구좌 : 외환은행 059-19-35455-2 예금주 : 삼선반대

실직자 · 노인 건강 지키는 '약손'



◇조계종 불자약사보리회는 11일 탑골공원에서 실직자와 노인 1천여명에 무료투약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불자약사보리회 탑골공원서 무료투약

매월 1천여명에 한 · 양약 조제
금강경 소책자 1천부 보시도

"혈압이 높고 열이 많아 고생했는데 불교신자 약사님들이 이렇게 나와서 진찰해주고 약도 조제해주니 너무 고맙습니다."

강태성 할아버지(80, 중랑구 중화동)는 매달 무료투약 자원봉사활동 때마다 나오겠다는 말과 함께 쌈짓돈으로 마련했다는 초코볼 1봉지를 유효순(롯데백화점약국 약사) 총무손에 가만히 건네준다.

조계종 불자약사보리회(회장 백숙희)가 11일 탑골공원에서 12명의 회원 약사불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실직자및 노인 1천여명에게 무료투약 자원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현장.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계속 밀려드는 사람들로 손쉴 틈이 없다. 회원들은 점심도 거르거나 김밥도시락으로 해결해야 할 정도로 바쁘지만 얼굴에는 웃음을 머금은 자비보살상이다.

자원봉사나온 불교이벤트, 서울불교청년회 회원들도 분주함 가운데서도 약을 나눠주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친절하게 맞이한다.

이날 행사에서 약사보리회는 할머니 · 할아버지들에게 관절염 혈압 천식염 피부염등 1천여만원 상당의 한약 · 양약을 보시했으며 특히 금강경 소책자 1천부를 마련하여 법보시도 함께 했다.

9월 27일 '불교발전을 위해 자원봉사활동을 하자'는 취지로 12명의 약사불자들이 모여 창립한 조계종 약사보리회는 앞으로도 매월 둘째주 일요일 무료투약행사를 정기적으로 열친다는 계획이다.

백숙희 회장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실직자와 노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기쁘다"며 "열심히 정진하여 더많은 사람들에게 약보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약사보리회는 한번 행사에 많은 예산이 필요해 무료투약 행사에 경제적인 후원을 해 줄 불자들을 찾고 있다. 문의 유효순 총무 (02)959~3298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제17회 불교미술대전 개막

제17회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이 14일 서울 관훈동 공광아트센터에서 개막됐다. 개막식에서는 금상을 받은 한주영 오진균씨 등 입상자들에 대한 시상식이 거행됐으며 조계종 원로 석주스님을 비롯하여, 총무원장 월주스님, 문화부장 덕운스님, 전국비구니회장 광우스님, 이길룡 종무실장, 윤청하 종무관, 송석구 동국대 총장 등 사부대중 2백여명이 참석 축하하고 입상작들을 감상했다. 불미전 입상작은 27일까지 전시된다.



故 윤이상 부인 '내남편…' 출판회

故 윤이상선생 명예회복추진위원회(공등대표 설정스님, 법타스님, 황병기)는 15일 송현클럽에서 故 윤이상 부인 이수자씨의 회고록 〈내 남편 윤이상〉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윤이상선생 3주기 추모행사의 일환으로 열린 이날 출판기념회에서 법타스님은 "〈내 남편 윤이상〉은 이수자여사가 이념과 정치의 골레 때문에 평생 고국땅을 등지고 타국에서 활동하다가 타계한 윤이상 선생의 위대한 생애와 애절한 사랑을 혼신의 정열로 엮은 책"이라고 소개하고 남북통일의 염원을 토로했다.



오봉산 석굴암 천일기도 입재

경기도 양주군 오봉산 석굴암 회주 초안당 유성대선사 백일제 및 토지불사 원만성취 천일기도 입재식이 지난 9일 오전 조계종 제25교구 본사 봉선사주지 밀운스님과 주지 도일스님 등 사부대중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이날은 또 법요집 출판기념회 및 신도회 재발족 법회도 함께 열려 제4대 신도회장에 황춘만씨가 선출됐다.

"자원봉사로 불국토 실현"

동불라이온스클럽 첫 모임

복지시설 · 군법당등 후원

동국대 불교대학원 수료생들이 모인 국제라이온스협회 동불라이온스(회장 윤천수, 정일감정평가법인 대표)가 14일 30여명의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1차모임을 갖고 봉사를 통한 불국정토를 발원했다.

이날 모임에서 윤천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더욱 공부하고 정진하여 회원간 유대와 친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봉사의 라이온스 이념을 살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성호가이딩(국제라이온스 354-C지구 1지역부총재)은 "동불라이온스가 13일부로 국제라이온스협회에 정식으로 등록됐다"며 "내년까지 회원을 108명으로 동결하여 보다 건실한 단체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등불라이온스는 불교복지시설 방문, 군법당 지원사업, 동국대 재학생 장학금 지급, 불교신행행사 지원등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 동불라이온스클럽은 14일 1차 모임을 갖고 앞으로의 사업계획 등을 확정했다.

한편 동불라이온스클럽은 5일 오후 6시 타워호텔 그랜드볼룸 1층에서 제1지역 1.2지대 합동 월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원우 기자

우리 모임에선

연등회 경북지부 설명회

국민회의 연등회(회장 박상규부총재)는 14일 대구 거송가든에서 20여 재가신행단체 임원들을 초청하여 대구 · 경북지부 창립설명회를 가졌다. 대구 · 경북지부 창립준비위원장인 이용택 경주개발공사 사장은 "원융회통사상을 토대로 동서화합에 이바지하고 대구불교회관 건립과 대구 감은사지 복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파구청 불자회 사찰순례

송파구청불자회(회장 유중원)는 18일 90여명의 회원 및 가족이 참가한 가운데 고창 선운사와 영광 은선암으로 사찰순례를 다녀왔다.

심우회 육군교도소 위문

심우회(회장 김명원)는 11월1일 장호원 육군교도소를 방문하여 위문법회를 갖는다. 위문법회는 법회, 장기자랑, 불교레크리에이션 등이 준비된다.

경주 · 원주서도 운불련 시동

관광안내 · 통신원활동 · 차량지원 등 사업

불국토인 경주에 운전불자회가 태동할 전망이다.

이동윤씨(우수호출택시회 부회장) 등 경주지역 불자 10여명은 최근 모임을 갖고 올해안에 경주운전불자회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아래 조직인선 작업에 착수했다.

창립준비위 이동윤씨는 "경주는 불교유적이 많은데다 2년마다 세계문화엑스포가열려 운전불자회가 구성되면 지역관광 활성화는 물론 불법홍포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이라며 "불자회는 관광안내 홍보책자 배포, 불교방송통신원 활동, 행사차량 지원등을 통해 일선포교사의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원주지역에도 원주운전불자회(회장 최준영)가 창립됐다.

지난 16일 오전 11시 원주 성불원에서 법회를 봉행한 원주운불련은 앞으로 교리공부를 통한 신심함양과 봉사활동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원주 운전불자회 최준영회장은 "불자들을 위해 친절한 호출택시제(0371-763-9911)를 시행하고 있다"며 "조직 강화를 위해 회원배가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 큰 짐지기를 자청하며 …

안팎으로 심한 격변기에 교단과 나라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원로큰스님들과 중진 대덕스님들, 그리고 전 종도님들의 청안하심을 불보살님전에 기원합니다.
소납 설조는 이러한 시기에 교단을 위해 봉사를 하고자 얼마전 이련재(遡蓮齋)를 열고 미력하나마 교단발전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납 설조는 그동안 교권수호와 불법홍포라는 출가자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성스러운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덕과 복의 넉넉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장애를 맞이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부처님의 가피와 제현들의 살핌으로 무난히 극복하고 오늘에는 교단의 큰 살림살이를 책임지고자 대덕 제현들의 선택하심과 원로큰스님들의 인허하심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원로스님들과 중진대덕 스님들께서 저 설조의 교단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충심을 십분 헤량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소납이 그동안 불국사 주지로 재직하면서 이룩한 몇가지 일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연꽃이 사라졌던 안압지에서 연꽃을 다시 보도록 하였습니다.

불국사 주지로 부임한 후 얼마되지 않아 소납은 매우 슬픈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불자들에게는 고향처럼 느껴질 정도로 불교문화가 화려하게 꽃을 피웠던 불교성지 경주의 안압지에 심어져 있던 연꽃이 누군가의 소행으로 사라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에 소납은 약 4개월에 걸쳐 시 당국자들과 관계자들을 설득하고 질책하여 마침내 95년 4월 30일 연꽃을 다시 심었다는 통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오늘날 안압지를 찾는 관람객들과 불자들은 봄부터 가을까지 싱그러운 연잎과 맑고 은은한 향기를 내뿜는 연꽃을 감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둘째, 고속철도의 경주 도심통과를 단식기도로 저지, 불교성지 경주가 개발로 인해 훼손되는 것을 막아냈습니다.

고속철도 노선을 경주 도심을 피해 외곽으로 우회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92년 11월 말경 당시 민자당 대통령 후보가 우리 교단대표에게 도장날인을 해서 보내온 중요한 공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대통령이 된 이후 교단에 대해 어떠한 사전 양해나 설득도 없이 고속철도 노선을 경주도심를 관통하 건설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던 것입니다. 천년고도의 정취를 해치고 문화재의 막대한 훼손이 불가피하므르 고속철이 경주도심을 통과해서는 안된다는 학계와 문화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고속철 공사는 도심관통쪽으로 굳어져 가는 형편이었습니다. 이에 소납은 경주지역을 관장하는 교구장으로서 위법 망구의 자세로 불교성지를 지키겠다는 서원을 세우고 이를 부처님전에 간절히 고한 후 개발이익이라는 눈앞의 이익에 휩쓸리는 많은 국민들의 의식을 일깨우고자 단식정진을 하였던 것입니다. 천년고도를 지키려는 뜻있는 인사들의 노력에 힘입어 소납의 단식정진은 마침내 성취되었고 경주를 사랑하는 많은 시민과 국민, 문화계, 학계, 종교계 인사들과 함께 불교성지 경주를 지켰다는 기쁨을 같이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문화재관람료를 인상하여 어려운 사찰재정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모든 물가와 일반 경비는 다 인상되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사찰 문화재관람료만은 GNP가 우리나라의 1/10 정도가 되는 후진국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편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로인해 사찰 경제는 물론이고, 문화재의 보수와 관리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당시의 정황이었음은 두루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러던 중 마침 문화재관람료의 사용과 조정 등 제반 사항에 대한 권한이 문화재 소유자의 재량으로 이관되도록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당시 관람료위원회 위원장 소임을 맡았던 소납의 주도로 과감히 문화재관람료를 현실화하였던 것입니다. 사찰의 재정난을 해소하고자 충분한 당위성을 갖고 추진하는 문화재관람료 인상에 대해 정부의 눈치를 살피던 당시 총무원집행부가 무모하고 무지한 반대를 해왔지만 소납은 관람료 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이를 관철시킴으로써 인상 직후 밀어닥친 IMF한파를 관람료 사찰들이 견딜 수 있도록 하는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넷째, 불국사가 운영주체인 〈법보신문〉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언론을 통한 교단 구성원의 의식개혁은 물론 종교편향 정책이나 훼불사태와 같은 교단 외부로부터의 교권유린 사태를 적극 저지, 자주적 교권수호에 앞장섰습니다.

소납이 발행인을 맡는 동안 〈법보신문〉은 초등학교에서의 특정종교 강요행위, 검정고시의 평일시행 강행, 대통령 국방부 종앙교회 예배 및 불교법회 방해, 육군 특수전학교의 법당앞 오물투기 및 불교활동 방해사건 등 각종 훼불 및 종교편향 사건 등을 주도적으로 보도함으로써 불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앞장서 왔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다섯째, 뜻을 같이하는 교구본사주지 스님들과 함께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본사주지모임'을 결성해 자주적 교단운영과 함께 불교가 민족전통종교로서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앞장서 왔습니다.

본사주지모임을 통해 문화재관람료와 공원입장료 분리징수를 강행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오만한 행태를 바로잡았고, 훼불사건이나 교단내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비합리적인 종책들을 적극 견제해 종단이 바로 가도록 하는데 큰 힘을 기울인 것은 잘 알려진 일입니다.

소납 설조는 이상과 같이 꺾이지 않는 신념과 소신, 그리고 부족하나마 쉼이 없는 실천과 정진으로 나름의 조그만 성취를 이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취는 종단의 여러 원로 큰스님들과 중진대덕 스님, 신도님들의 성원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음을 소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소납 설조는 이제 원로 큰스님, 중진대덕 스님, 종도들의 도움과, 그동안 쌓아왔던 소중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벼랑끝 위기에 서있는 우리 교단을 구하고, 중단된 개혁의 재추진과 교단내 각종 불합리한 제도들에 대한 정비를 과감히 추진, 희망찬 21세기를 열어가고자 하는 큰 서원을 세웠습니다.

소납 설조는 우리 교단이 처해있는 여러 어려운 난제들을 타개하여 20세기를 말끔이 정리하고 교단이 도약하는 희망찬 21세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교단을 경영해갈 자신을 가지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디 소납 설조가 교단을 바로세우고 도약시키는 큰 짐을 질 수 있도록 선택하여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만약 소납 설조를 교단의 큰 짐지기로 선택해 주신다면 우리 교단이 바로 서고 국민 모두의 귀의처요, 존경처가 되도록 신명을 다할 것을 우선 지면을 통하여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불기 2542년 10월

총무원장 후보 이 설 조 합장

이렇게 들었다 선린우호

"서로 믿고 화합해야 친구요 벗"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두 나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정립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안보협의회의 정례화와 대북문제 공조체제는 물론 경제적으로도 지속적인 협의를 이뤄나갈 것이라고 하니 21세기를 맞는 시점에서 이같은 선택은 현명한 것으로 받아들여 진다.

그러나 일본의 과거사 반성이 일회성 선언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위안부 문제 등 일본의 변화와 개선이 뒤따라야만 진정한 관계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 우리 역시 일본이 마음을 열기 시작한 이상 좋은 이웃으로 생각하고 교류·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용서하되 결코 잊지는 말아야 할 민족의 아픔. 이 아픔은 상호간의 굳건한 믿음이 생길 때 치유될 수 있다. 양국의 선린우호를 기대하며 이에 대한 부처님 말씀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횃불을 들고 나온 초인은 사람의 형상을 띠고 나타나서, 지혜와 자비심으로 이 세상을 밝혀 주시는 부처님이시다. 그 빛 속에서 인간은 제 자신과 남들을 발견하고 인류애와 화합하는 정신을 깨우친다. 많은 사람이 한데 모여 살아도 서로 잘 이해하고 동정하는 마음이 없으면 진정한 우정이 생기지 않는다. 진정한 생활 공동체에는 그 자체를 밝혀주는 신념과 지혜가 있어서 사람들이 서로 믿고 화합한다. 진실한 화합이야말로 진정한 생활공동체나 한 조직체의 생명이다. 〈대반열반경〉

▨세간에 이로운 일이 있을 때 서로 왕래하면서 변함없이 일깨워주는 것을 친구라 한다. 만약 어려움 당한 것을 보고서 서로 버리고 떠나지 않고 뜻과 행동을 같이 하는 것을 친구라 한다. 부귀할 때는 누구인들 친구나 벗이라고 말하지 않겠느냐. 〈불본행집경〉

▨벗 사이에는 세 가지 긴요한 일이 있다. 첫째는 과실을 보면 서로 깨우쳐 충고함이요, 둘째는 공덕이 되는 일을 보면 깊이 따라서 기뻐함이요, 셋째는 분행에 있을 때에 서로 버리지 않음이다. 〈인과경〉

▨자타가 서로 권면(勸勉)해야 모든 악에서 떠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재앙으로부터 구호하는 사람이야말로 친구이며, 늘 이욕(利慾)에 관계되는 말만을 역설해서, 자타가 안일에 빠지고 온갖 악을 즐겨 행하도록 하는 것은 진정한 벗이라 할 수 없다. 〈제법집요경〉

▨좋은 벗이란 고락을 함께 하고 이익을 분배하고 상대방이게 직업을 갖게 하고 늘 어진 생각을 한다. 나쁜 벗에도 네 가지가 있으니 상대의 물질을 빼앗음이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체면만을 좋아하는 것이요, 삿된 가르침을 주는 것이니라. 〈선생자경〉

▨믿음에 세가지 중요한 특성이 있다. 첫째는 제 과오를 뉘우치기, 둘째 남의 미덕을 보고 칭송하면서 기뻐하기, 셋째 기쁜 마음으로 부처님을 므시기다. 믿는 사람들은 항상 세 가지 특성을 닦아야 한다. 자신이 실수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때는 재빨리 알아차려서 참회하고, 남의 미덕과 선행을 보면 충정으로 칭찬해서 그 명예를 높여주며, 항상 부처님과 같이 살면서 부처님과 함께 행동하기를 기원해야 한다. 〈금광명경〉

▨훌륭한 벗에 일곱 가지가 있으니 고난을 만나서 버리지 않고, 가난하다고 버리지 않고, 자신의 어려운 일을 상의하고, 서로 도와주고, 하기 어려운 일을 해 주고, 참기 어려운 것을 참는 것이니라. 〈사분율〉

▨항상 우정이 끊어질까 염려하여 아첨하면서도 벗의 결점만을 보는 사람은 친구가 아니다. 아기가 엄마의 품에 안기듯이 그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그 사이가 멀어지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친구다. 〈숫타니파타〉

▨게으름을 피울 때 깨우쳐 주고, 일을 방해하거나 의심하지 않으며, 허물을 보아도 꼬투리를 잡으려 애쓰지 않는다. 〈별역잡아함경〉

독자의 소리

'총무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대한불교조계종 종헌 제53조 제2항(94. 9. 29 개정종헌)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조계종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여러 후보진영에서 이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전문가들에게 의뢰하는 등 공방이 치열하다.

현 원장 중임 적법…소급적용 불가능

양영태 〈변호사〉



우리 헌법 제13조 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을 제한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사법(私法)의 일반원칙을 통하여 일반국민들 간의 관계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헌법의 해석에 관한 통설적 견해이다.

따라서 조계종 종헌 제53조 2항 역시 총무원장이 될 수 있는 권리를 소급적으로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헌법의 취지에 따라 해석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1인 장기집권의 방지라는 종헌 규정의 취지를 극단적으로 해석하여 현행 종헌이 시행되기 전의 역임 횟수도 포함시키는 것이 옳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건의 경우 현 총무원장이 과거에 총무원장으로 재직한 것은 이미 20여년 전 불과 7개월여 정도의 기간이다. 그 당시의 총무원장 퇴임이 10·27 법난이라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의하여 불법적·강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 총무원장을 다시 중임하게 한다고 하여 1인의 장기집권을 방지하려는 종헌의 개정 취지에 반한다고는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현 총무원장이 29대 총무원장에 취임하는 것은 현행 종헌에 비추어 적법한 것으로 사료된다.

중임은 평생 두번만 할수 있다는 뜻

이재훈 〈변호사〉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것은 '총무원장을 평생에 2번'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총무원장으로서의 봉직기간이 며칠 밖에 안된다고 하더라도 '총무원장'이라는 직책에 있었던 경우에는 1번만(4년 임기종료와 관계없이)을 더 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해석하여야 합당하다.

2회 중임의 적용기준시기가 94년 종헌개정 이후인가, 최초 종헌 후 전체기간인가? 94년 종헌개정 당시의 대한불교조계종이 과거의 조계종으로부터 탈종하였거나 번종하였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조계종의 창종 이래 총무원장을 한번 봉직한 스님은 94년 종헌개정 이후에는 총무원장에 다시 취임할 있는 기회가 1번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94년 개정종헌 제53조 제2항의 개정취지는 1인의 장기집권을 막고, 94년 개정 전후에 관계없이 총무원장을 평생에 2번만 할 수 있게 하자고 하여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고 개정한 것이다.

지금 조계종단 내에서 재출마가능 여부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월주 총무원장 스님의 경우, 불교법난 당시의 총무원장 봉직이 인정된다면 다시 출마하는 것은 3선 취임이 되어 현재의 종헌에 위배된다고 인정된다.

사찰입구에서 받는 공원입장료 폐지해야

몇일 전 일간신문 독자란에 법주사(속리산)를 예로 들며 문화재 관람료와 공원입장료를 모두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내용이 실렸다.

이에 대해 결론부터 말하자면, 천년이 넘도록 사찰에서 지켜왔으며 사찰의 소유지인 속리산에 대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공원공단)에서 입장료를 징수함은 부당한 처사이다. 법주사 산문을 통과해 문장대, 천왕봉까지는 법주사 사찰림이다. 사찰과 그 권역을 찾아오는 신도나 방문객에게 공원공단에서 입장료를 징수할 권리가 있는지 묻고 싶다. 공원공단측에서 주장하는 8부능선 이상의 산림을 보호한다는 명분이라면, 절 뒷편 등산로 입구에서 입산료를 징수해야 한다.

사찰에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 공원공단에서 통제함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단순한 금전상의 문제가 아니다. 불교의 정부예속화를 초래하며, 더 나아가 사찰의 생명력을 목조르는 행위이다. 또한 불교의 자주성과 재산권을 완전히 도외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사찰 입구에서의 공원입장료 폐지가 시급히 요청된다.

지정〈경북예천 장안사 스님〉

백일동안 매일 천배씩 한 '나의 수행일기' 읽고 감동

나는 현대불교신문을 받아보면 제일 먼저 '나의 수행일기'란에 눈이 간다.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식층불자들의 진솔한 수행담을 통해 내 자신의 수행생활을 점검해 볼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읽은 것중 187호부터 3회에 걸쳐 실린 김병규 문화일보 논설위원님의 수행일기는 감명깊었다. 그분의 철저한 신앙생활은 물론, 무엇보다도 천배씩 1백일동안 10만배를 했다니 정말 입이 딱 벌어진다. 티벳스님들이 출가하면 10만배를 한다는 얘기는 들었으나 우리나라에서 100일동안 10만배를 성취했다는 실화는 처음 대했기 때문이다. 곧바로 그분에게 전화를 드린 나는 9월 4일부터 10만배 기도에 들어갔다. 10월 24일까지 50일동안 10만배를 목표로 하루 2천배씩 하고 있다. 내 10만배가 끝나면 아내가 10만배 기도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오는 29일에는 내가 관여하고 있는 재천불교거사림회, 강천사 신도회, 우리는 선우 회원들을 모아 김병규선생을 초청해 수행담을 듣는 자리도 마련해 놓았다. 다른 이들도 교리공부와 수행을 겸수하는 불자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다.

김병규선생처럼 사회 지도층에 있는 불자들부터 솔선수범한다면 부처님법이 열화처럼 번져나가 세상이 한층 올바르고 평화로워지지 않을까 한다.

침울하고 어수선한 때일수록 불자들 모두 더욱 수행에 힘쓰자는 말을 하고싶다.

김연호(충북 제천시 진주동물병원장)

김민수교수의 백양사일기(45.11~12)

조선어학회 한글강습 파견강사로, 1945년 11월12일~12월11일 백양사에 머물며 '한글문화보급회 백양사분회'를 이끈 김민수 교수(고려대 명예교수, 본지 193호 1, 7면 보도)의 '백양사 일기-나의 마음'을 연재한다. 한 달 동안 백양사에서 열린 한글강습회의 진행상황과 해방직후 백양사의 모습, 대중스님들의 생활과 사회 분위기 등을 엿볼 수 있다. 〈편집자 주〉

해방의 환희, 국어회복

- 1945년 11월12일(월)

1945년 11월12일 월요일 아침 8시45분 서울역을 출발했다. 우리 민족 최대의 기쁨, 해방을 맞이하고 처음 떠난 여행길이다. 기차에서 내다보이는 원한 들판, 논마다 쌓여 있는 볏가리, 과연 꼭창의 나라 조선이로구나! 갈망하던 해방과 함께 찾아온 풍년.

나도 모르게 기쁨에 설레는 심금을 어쩌지 못하고, 이 길을 왜 가고 있는가 다시 돌아보는 생각에 잠겼다. 9월11일 조선어학회 제1회 국어강습회 사범부를 수강하고 9월26일 8대1의 국어강사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후, 학회 교양부 이희승(李熙昇) 간사 지시로 백양사에 파견된 것이다.

신비의 단풍길

- 1945년 11월13일(화)

호남선 사거리역(지금의 백양사역)에서 내려, 평평한 길을 따라 30리 가량 동쪽을 향하여 걷기 시작하였다. 띄엄띄엄 만나는 마을마다 해방과 독립에 이바지하겠다는 기치(旗幟)가 자주 어른거린다. 청년단체의 경고문, 문화단체의 포스터, 선전비라 '우리 모두 힘을 합치자!' 민족의 반역자를 말살하자!' 등도 보인다. 다 좋은 문구들이다.

역에서 20리쯤 가서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가 나오고, 여기서 큰길을 버리고 북쪽 산길로 발길을 돌렸다. 한 5리쯤 지났을까, 어느덧 먼곳이 어두워 보이기 시작하여 저녁때를 느끼게 한다. 왼쪽에 너더댓 채 집이 보이고, 몇 발자국 지나자 오른쪽에도 집이 몇 채 있다. 이 산중에 웬 양옥인가? 하얀 글씨로 백양관(白羊館)이라 써 붙였고, 오른쪽에도 이처럼 깨끗한 집이 마주 보고 있다. 약 1백m쯤 가면 절이라고 하는데, 양 길가에 단풍나무가 나란히 서 있다. 양쪽 그 나무 밑에 듬뿍 갈려 있는 선혈같이 붉은 단풍잎. 붉은 잎이 광채를 뿜는지 사방은 은은히 어두운데, 그 사이에 단풍빛이 비쳐 환하게 뚫린 가도(街道)가 아련히 뻗어 있다. 이윽고 극락교(極樂橋)를 건너 사천왕문(四天王門)을 들어섰다.

문화의 전당 백양사

- 1945년 11월14일(수)

낯선 방에서 자면 으레 일찍 깨는 법인데, 어제 걸어온 30리 길이 벅찼는지 좀 늦게 일어났다. 아침 식후 엊저녁에 접대를 맡은 최덕림(崔德琳) 스님이 와서 설선(說禪)으로 인도하였다. 방장(方丈)인 듯 노승 한 분이 거처하는 방이다. 스님이 공손히 인사하며 나를 소개하자, 일을 위하여 먼길을 와 주어 고맙다고 치사하고 '송종헌(宋宗憲)'이라고 성명을 말한다. 옆에서 1928년에 중앙불교전문학교 초대 교장을 지내셨다고 설명해 주었다. 고희로 연만하여 큰 소리로 "먼 길이라도 온 것은 나의 임무"라고 답례하고, 국어강습회에 관한 협의에 들어갔다.

우선 수강생 자격, 인원수와 지역별로 할당할 비율, 강습기간 등을 언급하고, 강습생 등급을 고등부와 보통부로 나누자고 하였다. 또 수강생 모집에 관한 공문을 장성군청에서 널리 발송케 할 것과 강습 수료자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문제는 도정 학무과(學務課)에 요청할 것을 서두르자고 재촉하였다. 조선어학회에서 군정청 학무국의 시험검정을 대행하는 만큼 도 학무과에서는 이번 강습회에서 시험으로 선발한 수료생을 지역 강습회 국어강사와 같은 자격을 인정해서 시급한 국어회복에 적극 기여하자는 요지의 요청이었다.

수강생 명단

▶고등부: △백양사-정문학 국덕신 이만홍 조종모 △영광 불갑사-이광윤 △순창 구암사-김흥기 △정읍 내장사-조기옥 △담양 용흥사-차정묵 △장성 사거리-김우홍 김락홍 △장성 중령리-김동철 △장성 약수리-임정태

▶보통부: △백양사-한정열 김남증 전복신 이상효 김행심 박해경 강경화 임병옥 △부안 개암사-허재근 이성기 김형범 △영광 불갑사-강갑선 △고창 문수사-이법림 △고창 상원사-박영구 △순창 구암사-김홍용 △고창 소요사-고성흔 △장성 사거리-김락규 김용구 △장성 약수리-김영진 김기주 김봉수 김정상 송옥선 △담양 가산리-김정채

불교상담기관 상담자원봉사자 모집

자/아/성/숙/의/기/회/와/봉/사/의/즐/거/움/을/드/립/니/다.



▶ 교육일시 : 11월 4일~11월 27일(매주 월, 수, 금, 오후 2시~5시)
▶ 장 소 : 조계종사회복지재단 강의실
▶ 교육비 : 5만원
▶ 주 최 : 구룡사, 봉은사, 능인선원, 서울자비의 전화
▶ 주 관 :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부설 자비의 전화
▶ 후 원 : 조계종총무원 사회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 문의·접수 : 서울 자비의 전화 사무국(TEL:737-7378, 접수마감:11/2)

▪ 불교상담기관 연합 카운슬러대학 교육강의 일정 ▪

날 짜	교 육 내 용	강 사	비 고
11/4(수)	개강식/효과적인 인간관계	사무국/이재택	불교상담기관 대표자/좋은아버지되기 모임
11/6(금)	상담이란 무엇인가 인성검사(MMPI)	윤호균 황선정	카톨릭대학 심리학과 교수 자비의 전화 상담연구원
11/9(수)	아동 성폭행 그 대책 청소년 가출과 학교폭력	정영애 송길용	서울 여성의 전화 이사 대검찰청자녀학교안심하고 보내기운동본부 담당검사
11/11(수)	연령별 성(性)상담 중년부부의 갈등(외도, 폭력)	이근후	이화여대 신경정신과 교수
11/13(금)	이상심리(신경증, 정신장애) 현대인과 정신치료	전현수	전현수신경정신과 원장
11/16(월)	가정법률(이혼, 양육, 위자료청구) 재산법률(재산권, 상속, 기타)	강정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원
11/18(수)	부처님의 수행을 따라서 자비관법 수행법	정목스님	前 BBS 차한잔의선율 진행
11/20(금)	한국경제의 허와 실 실직자 현황과 그 대책	김양일 심철호	前 KBS 보도위원, BBS 보도국장 사랑의전화 회장
11/23(월)	전화상담의 원리/전화상담의 기법	박경석	포항제철 상담실장
11/25(수)	상담사례 연구 상습, 음란전화 대처법	문형춘	서울시 청소년종합상담실 부장
11/26(목)	싸이코드라마 관람	교육생	국립정신병원
11/27(금)	상담봉사와 불자의 자세 불교상담기관 협의회 발족식	진오스님 사무국	자비의전화 부회장
2차교육	자원봉사 신청자에 한해서 상담슈퍼비전 교육	사무국	

第14回 不二賞 要綱

不二會에서는 韓國佛教 中興의 先驅的 役軍이 될 참신한 젊은 일꾼을 育成함을 目的으로 研究·實踐 2개 분야에 걸쳐 탁월한 가능성을 보인 젊은 인재를 發掘 그들의 보다 알찬 發展向上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本賞을 制定, 每年 1회 施行합니다.

1. 施賞分野
   가. 研究分野
   ① 大學院 碩士課程修了 이상의 學歷者로서 大學에서 時間講師 以上, 助教授 以下의 職에 있는 者로서
   ② 最近 2年 동안의 業績中 佛教學(佛教를 中心으로 하는 歷史, 哲學, 文學, 藝術, 比較思想, 其他) 關係의 탁월한 研究成果를 올린 40세 前後인 者.
   나. 實踐分野
   ① 佛教에 入門하여 7年이 經過한 佛子로서
   ② 信行과 布教가 他의 模範이 되는 者로서 연령제한 없음.
2. 施賞規模 : 各 分野別 1名 500萬원
3. 候補者 提出書類
   가. 候補者 推薦 카드(本會 所定樣式 : 別添)
   나. 自筆 履歷書(寫眞 添附)
   다. 學歷 證明書
   라. 經歷 證明書
   마. 業績을 證明하는 研究物 도는 活動內譯書, 成績 證明書
   바. 具足戒, 受戒 證明書
   사. 推薦書 3通(總長, 大學院長, 其他 機關 및 團體의 長)
4. 接受磨勘 : 1998年 11月 30日까지
5. 審査 : 不二賞 審査委員會
6. 受賞者 發表 : 佛教界 言論媒體
7. 接受處 및 問議 : 不二賞 審査委員會
   서울特別市 江南區 開浦3洞 186-1 開浦B/D 6層
   ☎ (02)3411-6167~8, FAX : 02)3411-6169

不 二 會

불우이웃돕기 문화행사 3곳

청정무심의 세계를 잘 보여주는 선화로 유명한 수안스님, '첼로스님'으로 잘 알려진 비구니 법현스님, 중진 서예가이며 도예가인 석천 이경희씨 등이 가을을 맞아 IMF로 어려운 이웃을 위한 전시회와 음악회를 마련,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21일부터 27일까지 인사동 경인미술관에서 개인전을 갖는 수안스님은 산, 해, 달, 소나무, 학, 꽃 등 자연과 선종의 초조 달마를 그린 그림 40여점을 선보인다. 수안스님만의 독특한, 간결명료한 선과 밝고 따스한 색이 해맑으면서도 걸림없는 부처님세계를 생동감있게 펼쳐놓는다.

스님은 "밤낮없이 참선정진하면서 나자신 기(氣)가 충만하다고 느낄 때 붓을 잡고 그린 그림들입니다. 요즘 사회가 전반적으로 주눅이 들어있는데 어렵다고 해서 침체돼 있으면 더 침체되기 마련이지요. 그림을 보고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아파하며 생명의 귀중함을 새삼 인식해 용기를 얻어 이 고달픈 세상을 밝고 긍적적으로 살았으면 합니다"고 말한다.



◇수안스님 그림전람회에 나오는 '산'.

수안스님 선화전

21~27일 경인미술관
청정무심의 선화 400여점

법현스님 음악회

28일 한국일보 콘서트홀
자전에세이 출판기념식도

이경희씨 陶書展

25~30일 세종문화회관
반야심경 새긴 도자기 108점



◇'더불어 사는 음악회' 여는 법현스님.

법현스님(서울 대보사)은 28일 오후 7시 중학동 한국일보 콘서트홀에서 '자전에세이 출판기념 및 제2회 더불어 사는 음악회'를 개최한다. 96년부터 '더불어 사는 음악회'를 시작한 스님은 1회때는 수익금으로 장애인들에게 휠체어를 기증했고 이번에도 수익금을 모아 양로원을 찾아 위문품을 전달할 계획이다. 그동안 교도소 등 포교현장에서 첼로를 연주하며 아름다운 선율로 불법을 전파해 온 법현스님은 이번 무대에서 베토벤의 '미뉴엣', 생상의 '백조' 등을, 최수미(바이올린) 황수진(비올라) 씨등과 함께 모짜르트의 '세레나데' 등 현악 4중주곡을 연주한다.

각각 다른 체의 한글과 한문의 〈반야심경〉이 새겨진 대형 도자기 108개. 글씨도 빼어나지만 도자기의 모양과 디자인, 색깔이 108개가 다 다르다. 더구나 〈반야심경〉 260자는 먹으로 써서 그것을 새긴 것이 아니라 칼로 단 한번에 도자기에 직접 새긴 것이라 더욱 놀라움을 준다. 이 '일도각법(一刀刻法)'을 창시한 서예가이자 도예가인 석천 이경희씨(53)가 25~3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제3전시실에서 종단협 인권위원회 주최로 IMF 실직자 및 어려운 이웃돕기 백팔심경 도서(陶書)전'을 개최한다. 3년동안 하루 10시간씩 준비했다는 이경희씨는 "〈반야심경〉에 함축돼 있는 오묘한 공사상을 도자기예술로 표현하기 위해 항상 깨끗한 마음과 기도하는 자세로 임했다"면서 "실직자를 비롯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일이기도 하지만 요즘같이 어려운 때 〈반야심경〉의 뜻을 항상 새기면서 용기를 얻고 사회적 도덕심도 고양되었으면 한다"고 말한다.



◇이경희作 백자청화 '심경' 명대호.

이경숙 기자(gslee@buddhapia.com)

영화 '팔만대장경' 만든다

유승현감독…내년 3월 개봉 예정

고려시대 몽고군의 침입으로 국가가 위기에 빠졌을때 대장경 판각을 통해 국난 극복과 국론을 통일하게 됐던 당시의 시대 상황을 영화화한 '팔만대장경'이 제작된다.

세양프로덕션(사장 이양우)은 15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유승현감독을 비롯 제작 및 스탭진 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작발표회를 가졌다.

팔만대장경 제작과정과 행자승 미루와 민초여인 희랑의 사랑이 곁들여져 흥미를 더해줄 이번 영화에는 팔만대장경 경판 제작에 앞장선 공설스님역에 연극배우 김동석씨(36), 사랑의 아픔과 고난 가운데서도 호국을 불사르는 행자승 미루역에 SBS 탤런트 김준우씨(28), 몽고군에 짓밟히면서도 뜨거운 사랑으로 자신의 목숨을 던져버리는 강인한 여인역에 KBS 탤런트 김미라씨(22)가 각각 캐스팅됐다. 이외에도 이 영화에는 전무송, 이일웅, 정진, 전원주 등 중견 연기자들도 대거 참여하며 엑스트라만 연인원 15만명이 투입될 예정.

연출을 맡은 유승현감독(53)은 "팔만대장경은 부처님 가르침을 담고 있는 보고일 뿐 아니라 국난극복의 상징"이라며 "경제한파로 좌절과 위기에 빠진 국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이 영화를 만들게 됐다"고 기획 의도를 밝혔다. 또 유감독은 "팔만대장경이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된 만큼 세계인들에게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며 "교육적인 메시지는 물론 사랑과 영화적인 요소를 가미해 재미있게 구성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유승현감독.

컴퓨터그래픽 기법이 사용될 영화 '팔만대장경'은 총제작비 52억원으로 20일 크랭크인, 4개월간의 제작 기간을 거쳐 내년 3월에 개봉될 예정이다.

팔만대장경을 소재로 한 영화는 지난 78년에도 한진영화사에 의해 제작 상영됐었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99년 '이달의 문화인물'

2월-혜초스님, 9월-김시습

문화관광부는 혜초스님과 설잠스님(김시습) 등을 포함한 내년도 '이달의 문화인물' 12명을 선정 발표했다.

△1월=서양화가 이중섭 △2월=신라시대 선진해외문화 소개에 큰 업적을 남긴 혜초스님 △3월=조선후기 실학자 유형원 △4월=조선말기 실학자이자 과학사상가인 최한기 △5월=독립운동가 김창숙 △6월=임진왜란 당시 행주대첩을 승리로 이끈 권율 △7월=조선초 문인 맹사성 △8월=한말 순국지사인 황현 △9월=생육신의 한사람 설잠스님(김시습) △10월=조선전기 어문학자 최세진 △11월=문학과 서화, 요리에 능했던 정부인 안동장씨 △12월=독립운동가이자 교육자인 이승훈.

수월관음도-지장삼존도 '보물'로

문화부, 삼화사철불 문화재 지정예고

문화관광부는 10일 수월관음도, 지장보살삼존도 등 2건을 보물로 지정하고 삼화사 철불을 국가 문화재로 지정예고했다.

보물 제1286호로 지정된 수월관음도는 14세기 경의 고려시대 불화로 합장한 선재동자가 반가의 자세로 오른쪽을 향하여 바위 위에 앉아 있는 관음보살에게 청법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 인물의 자세, 버들가지 꽂힌 정병, 쌍죽 등 화면구성요소와 표현기법, 밝고 부드러운 색채, 금니의 연화당초원문 등이 14세기 고려 수월관음도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보물 1287호 '지장보살삼존도'.

보물 제1287호로 지정된 지장보살삼존도는 도명존자와 무독귀왕이 함께 배치된 삼존도 형식과 표현기법, 색채, 필선 등에 있어 고려불화의 특색이 잘 나타난 여말선초의 그림이다. 주존인 지장보살이 바위 위에 걸터 앉아 있는 점과 좌우의 도명존자와 무독귀왕이 수평선상이 아닌 사선상에 위치하고 있는 점, 일반적으로 검은색을 띠는 도명존자의 얼굴색이 회게 표현된 점, 앞쪽의 돌물이 머리를 땅에 대고 있는 점 등은 이 작품에서만 보이는 매우 이례적인 구도와 표현이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느낌 극락같은' 작품-희곡-연출상

'98 서울국제연극제

'느낌, 극락같은'(이강백 작 이윤택 연출)이 15일 폐막된 '98 서울국제연극제에서 작품상을 수상했다. 또한 이강백씨가 희곡상을, 이윤택씨가 연출상, 김소희씨가 신인연기상, 김수진씨가 무대예술상을 각각 수상. 지난 8월 31일부터 문예회관 대극장을 비롯 대학로 일대의 소극장 등에서 펼쳐졌던 서울국제연극제의 5개 부문을 휩쓰는 쾌거를 이룩했다.

'느낌 극락같은'은 한 스승밑에서 불상을 만드는 두 제자의 상반된 가치관과 갈등을 통해 인간의 진실된 삶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추구한 불교극이다.

이경숙 기자

불심시심 〈146〉

베옷으로 산문 나선 적 없다

麻衣僧不下山扃 (마의승불하산경) 산문을 한 번도 벗어난 적 없는 베옷이나
慚愧如今道未成 (참괴여금도미성) 부끄럽게도 지금껏 도를 이루지 못했구나
柏樹工夫誰得力 (백수공부수득력) 뜰 앞 잣나무 공부 누구는 득력을 해서
蓮花世界但聞名 (연화세계단문명) 연화의 세계에서 다만 이름을 들리지
狂歌每向愁中發 (광가매향수중발) 미친 노래는 항시 근심 속에서 튀어나오고
淸淚多因醉後零 (청루다인취후령) 맑은 눈물은 허다히 취한 뒤에 흘린다
坐罷蒲團還失笑 (좌파포단환실소) 선정을 끝내고 나면 오히려 실소하니
莫將吾輩算天氓 (막장오배산천맹) 우리를 보고 천진한 백성이라 셈하지 마소.

연파(蓮坡)대사의 시이다. '장춘동잡시(長春洞雜詩)'라 한 여러 수의 시중 끝 수이다. 이 시는 장춘동의 여러 사실들을 서술하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현재 처지와 심경을 노래한 것이다. 연작인 시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처지로 마감한 것은, 주변의 경관이 좋든 나쁘든 결국은 거기에 거처하는 사람이 주인이라는 생각이다.

이 장춘동의 산문을 한 번도 나선 적이 없지만, 부끄럽게도 도를 이룬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 도의 실체가 무엇인가, 본인이야 이룬 것 없다 하지만, 시의 내용으로 보면 이미 모든 진리가 대사의 몸으로 응축되고 있는 것이다.

잣나무 공부란 조주스님의 공안이다. 어느 스님이 조주에게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냐 했을때 조주가 뜰 앞의 잣나무라 한 데서 온 것이니, 진리의 당체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물의 담담한 그 실상 자체가 도라는 것이 아닌가. 누가 여기에서 힘을 얻었느냐는 반문으로 대사 자신의 득력처를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이 연화장 세계에서 이름을 알리는 것이다. 여기서 '다만(但)'의 한 글자가 스님의 겸손이면서 실행을 강조하는 한 되침으로 보인다. 그러기에 이런 수심에는 미친듯한 노래도 있고 취한듯한 눈물도 흘려 보는 것이다. 이것이 선정을 마치고 난 실소요, 평상심이다. 평상심 이것이 천진한 백성이고 그것이 성불이 아닐까.

이종찬 〈동국대 명예교수〉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제불보살님과 신(神)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충만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가득 차게 함입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서로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합일시킨 결과, 놀랍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괘 만다라 액자



◎ 소 재
· 팔괘 : 고급 나무 목판 광각형
· 만다라 : 알미늄판에 직접 색채 도안 조성
※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기법처리

규격 : 45㎝×45㎝

◎ 보급가 : ₩ ~~300,000~~ ⇒₩ 15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5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비한 작용

첫째 가정,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결과 사악한 기운을 추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흡수시키면서 약하고 침체된 기(氣)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점이나 가게 등에 걸어 놓으니, 외부의 좋은 기를 끌어당기는 영향 때문인지 고객과 돈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집안의 현관, 거실, 안방에 걸어 놓으니 집안 전체에 흐르는 수)의 영향이 완전히 차단되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해 본 집에서는 방마다 깔아놓았던 종판을 모두 걷어내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의 수백 차단 실험은 2명의 수백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실증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이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 불자들간의 선물 · 생일선물 · 개업선물 · 집들이 선물
· 연말연시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가 아닌 행운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오고 보장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는 필히 걸어 놓으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

보급처 :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4-9490, 34-9491
야간 : (0342)706-3060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풍수원리에 맞지않는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등에 적용하면 재운과 복을 일으키는 운세로 바꾸어 놓고,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에 적용하면 생기있는 땅의 명당자리 산소로 변하게 하는 방법이 수록된 책자"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⑩ 음택(산소)풍수에 적용하면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 불탑다라니의 신비
⑪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의 산소적용방법
⑫ 이장의 문제점과 그해결 방안으로서의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 처방비법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④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 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 나는가 ?
⑤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일체지 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⑥ 특별 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⑦ 각 방편들의 내용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 천도 기도방법.
⑨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⑩ 특별 천도재를 지내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4-9490, 34-9491
야간 : (0342)706-3060

■장경硏 '고려대장경 해제' 6권 발간

1847종 경전 체계적 정리

불교서지 연구자료 '가치'
한글음순 배열로 찾기 쉬워

21일 길상사서 출판기념법회

방대한 불전들을 색인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 〈고려대장경 해제〉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출간됐다. 특히 고려대장경을 포함한 현존하는 불경을 서지학적 정보로 분류, 제공함으로써 불교경전 정보 체계화의 기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불교학 연구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려대장경 해제〉(고려대장경연구소 刊)는 전6권에 3천6백여 쪽의 분량. 1~3권은 해제, 4권은 대장경의 역사와 역저자 목록 등을 담은 세목록, 5권은 총목록, 6권은 1~3권에 대한 색인으로 구성돼 있다. 이 책은 고려대장경연구소가 4년전부터 고려대장경 전산화 작업을 진행해 오던 중 해제 작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다. 편저자는 동국대 불교학부 정승석 교수.

가장 큰 특징은 고려대장경을 구성하고 있는 1,847종의 경전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대장경 분류 해설서로, 내용보다는 다른 경전과의 관계 및 용어 등 서지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 일본의 〈불서대사전〉이나 북한의 〈팔만대장경 해제〉가 내용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과 비교해 훨씬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일례로 해제의 기본정보에 고려대장경 영인본의 고유번호와 권, 쪽수 및 동국역경원이 발간한 〈한글대장경〉과 일본 〈대정신수대장경〉의 고유번호와 권수, 쪽수를 표기하였으며 산스크리트, 팔리, 티벳어 불전명을 기록해 고려대장경의 학문적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고려대장경의 경판 수록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한글 음순으로 배열해 독자들이 목록을 보지 않고서도 불전을 찾을 수 있도록 했으며, 해제만으로도 불전에 대한 대강의 줄거리를 이해하고 주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동일한 주제를 담은 이역 불전들은 대표 불전으로 가서 그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중복 서술을 피했다.

4권에 실린 '고려대장경 분류 체계' 역시 이 책만의 독창적인 성과물로 꼽을 만 한다. 무수한 불전 중 특정한 주제가 어느 불전에 해당되는 지를 알 수 있도록 각 불전의 실질적인 주제를 추출해 이를 내용별로 분류했다.

대승 경전인 〈대반열반경〉의 경우 경명으로 보면 부처님 열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불성 사상의 전거를 담고 있으며 대승의 주요 개념인 법신이 천명돼 있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대반열반경〉을 대승의 기본 교리로서 법신을 설하고 불성사상을 천명하는 불전으로 분류하고 있다.

4권에는 또 역자, 저자, 편자 등의 인명에 따라 정리한 '역자자 목록'과 고려대장경에 포함된 경전들 중에서 원전이 서로 다른 한역본의 목록인 '이역목록'이 실려있다. 〈대방광불화엄경〉을 〈화엄경〉으로 약칭하는 것과 같은 '약칭목록'과 〈대반야바라밀다경〉을 〈대품반야〉라 부르는 것과 같은 '별칭목록'도 함께 수록돼 있다. 5권 '총목록'은 독자들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세목록에 포함된 내용을 한글 음순으로 배열해 놓았다.



고려대장경연구소 소장 종림스님은 "대장경을 보다 널리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불교학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고려대장경연구소는 21일 오후2시 길상사에서 〈고려대장경 해제〉 출판기념법회를 봉행한다. 값15만원. (02)797-0585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불교와 문화' 가을호

대한불교진흥원이 발간하는 계간지 〈불교와 문화〉 98년 가을호(제7호)가 나왔다.

이번 호에는 김종서 박사(서을대 명예교수)의 '21세기를 대응하는 불교교육'에 대한 지상강연과 함께 불교계 재정의 투명성을 위한 스님과 교수 등 6인의 제언을 특집으로 다뤘다.

이밖에도 종교편향문제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글들이 수록돼 있다. 값 8천원.

우리는 본래 진아일뿐

대성스님 번역 '진아여여'



1950년 입적하기까지 인도에서 가장 존경받는 수행자였던 스리 라마나 마하리쉬. 그는 끊임없이 '나'의 근원 탐구를 주장했으며, 우리는 본래 진아(眞我)일 뿐이며 그것은 누구나 항상 체험하고 있다고 말해왔다.

미국인 데이비드 가드먼이 편역하고 대성스님(길상사)이 우리말로 옮긴 〈진아여여(眞我如如)〉(자기탐구회 刊)는 스리 라마나의 이같은 가르침을 그대로 담은 책이다.

스리 라마나의 가르침의 궁극은 해탈에 있다. 해탈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탐구'라는 수행법을 통해 자기를 버려야 한다고 권한다. 그의 가르침의 특질은 근기에 맞게 이해시키려 했다는 점. 사람들이 찾아와 질문을 하면 먼저 수준 높은 가르침으로 진리를 이해시키려고 시도해보고 나서, 이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는 답변의 정도를 낮추어서 이야기를 해주었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도 그의 가르침은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제시돼 있으며, 진아 스승 명상 삼매 업 고통 등 다양한 주제들에 관한 견해가 나타나 있다. 각 주제마다 첫머리에 입문적인 설명을 해놓았으며, 각 장마다 다른 주제들을 계속 이어지는 대화처럼 꾸며 지속적인 이해를 도왔다.

발행처인 자기탐구회는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책을 법보시한다. 비매품. (02)762-6021 한명우 기자

사회발전·통일향한 휴머니즘의 미학

이길윤씨 창작집 '사랑의 그림자를…'



문화관광부 종무실장이자 작가인 이길윤씨(57)가 펴낸 〈사랑의 그림자를 지울에 달다〉(신원문화사 刊)는 표제작을 비롯해 '통일 수도 만들기' '꽃배' 등 6편의 단편소설과 '거북선아 돌아라' '성성(城) 돌기' 등 4편의 희곡을 묶은 창작집이다.

여기에서 작가는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심성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하고, 자본주의적 사고보다 위에 있는 휴머니즘을 생각케 한다. 그리고 이 모두가 통일로 가기 위해 한민족이 드러내야 할 민족성임을 외친다.

통일을 위해 개인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를 분단 이후의 문제점과 그 해결과정을 통해 짚어낸 '통일수도 만들기'나, 분단 현실이 개인의 인간성에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가를 제시한 '사랑의 그림자를 저울에 달다'는 통일의 희망과 분단의 아픔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4편의 희곡에는 예술적 구현을 통해 현실을 변화시키려는 작가의 의도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성성 돌기'가 세 집안의 갈등을 통해 우리 시대의 모순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의 이정표를 제시했다면, '거북선아 돌아라'에서는 역사적 인물 대비를 통해 조국의 앞날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가리킨다. 이 작품은 오는 12월 이순신 장군 서거 4백주년 기념 공연으로 펼쳐진다. 한명우 기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림
2	부처님 말씀대로 가르치세요	김 종 서	여시아문
3	산에는 꽃이피네	법 정	동쪽나라
4	불교입문	조계종편집부	조계종출판사
5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윤 을 순	신 우 당
6	불교신행의 주춧돌	우 룡	효 림
7	가슴을 적시는 [illegible]말씀 3백가지	성우·지현	민 족 사
8	그냥 갈 수 없는 길	이 도 원	불 광
9	법수로 배우는 불교	이 제 열	여시아문
10	참선교육	현 담	수선출판사

구입문의:(02)737-0695

해외신간

분별을 넘어 하나가 되는 것



공심(空心)으로 분별심을 다스리고 불이(不二)의 사회관을 피력한 책이 출간됐다. 정신의학자이자 불자인 마크 엡스테인이 발간한 〈분별을 넘어 하나가 되는 것(Going to Pieces Without Falling Apart)〉은 우리의 주변에서 세간의 삶을 꾸려가고 있는 부모와 아이 그리고 연인들과 같은 불특정 다수의 경험 속에서 분별의 벽을 넘어선 순간을 각 장에 담아 놓았다.

엡스테인은 "행복이란 정신적 심리적 차원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Broadway Books 刊. pp 200.

사랑에 관한 가르침



평화운동가 틱낙한 스님이 사성제, 팔정도 등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사랑'을 주제로 한 것들을 모아 쉽게 풀이한 책 〈사랑에 관한 가르침(Teachings on Love)〉을 발간했다.

틱낙한 스님은 "부처님은 자비, 기쁨, 평정 등으로 사랑을 가르쳤다"며 "수행은 우리가 내면의 불성에 점진적으로 다가갈 수 있게 하며 유·무정물과 깊은 연관성도 깨닫게 해준다"고 설명했다. Paperback 刊. pp 156.

티벳불교회화 집성

티벳불교미술 중 '탕카(THANGKA)'로 일컬어지는 표구회화 작품 1백점을 수록한 〈티벳불교 회화집성(繪畵集成)〉 제1권이 나왔다. 특히 이번 〈티벳불교 회화 집성〉에 수록된 작품은 한국 한빛문화재단의 도움으로 소장작품 3백여점 가운데 특별히 뛰어난 작품만을 선별, 종파와 의식에 중복없도록 고려해 수록했다. 다나카 키미아키(田中公明) 編/임천서점(臨川書店) 刊.

화제의 책

길 없는 길에 서다 이두스님외 지음

한권에 담은 승려시인 14인의 시



떠남과 버림, 그리고 시. 청정한 가슴과 서정의 세계는 세속을 벗고 해탈을 꿈꾼다. 이두·성우·청화·현담·수완스님 등 14인 전문승려시인들이 한 자리에 모인 시집 〈길없는 길에 서다〉에는 스님조차도 떠나고 고요하고 아름다운 언어만이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다. 무엇을, 누구를 향한 기다림인가.

존재란 근원적으로 억압이요 굴레다. 그래서 존재의 파괴는 곧 근원적인 자유로의 출발을 의미한다. 시집에 남아있는 언어들은 근원적 자유를 향해 떠나라고 소리친다. 통일문제를 비롯한 현실비판의식과 존재론적 세계, 깨달음의 세계 등 다양한 주제들이 담겨져 있다. 〈삼양, 7천원〉

화제의 책

사람의 한평생… 윤청광 지음

원광법사의 삶과 사상 소설화



신라 화랑도의 실천덕목인 세속오계로 유명한 원광법사. 열반에 들기 전 제자와의 대화 한토막. "사람의 한 평생은 알고 보면 한 토막 꿈과 같은 것. 그 꿈속에서 부자가 된들 무슨 소용이며, 천하를 호령한들 무슨 소용이랴. 깨고 보면 모두가 꿈인 것을…" "하오면 어떻게 살아야 하옵니까 스님?" "착한 일, 좋은 일 하는 데 게으르지 말라. 좋은 일만 하기에도 인생은 짧으니라"

〈사람의 한 평생 한 토막 꿈이로다〉는 원광법사의 삶과 사상을 재구성한 일대기로 저자가 쓴 고승열전 시리즈의 스물 한 번째. 스님의 구도적 삶과 호국의지가 잘 드러나 있다. 〈언어문화, 8천원〉

화제의 책

종교가 뭐길래 공종원 지음

건강한 종교생활은 어떤 것인가



이 땅에서 종교는 개인이나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끼칠 만큼 비중을 차지한다.

저자는 우리 사회 여러 종교들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건강한 종교생활이란 어떤 것인지를 모두가 함께 고민해 보자고 말한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종교의 본질에 가까이 다가갈 것을 외치며 성철스님과 같은 선지식들의 진리의 말씀을 되새기고 그들의 삶의 행적을 뒤따라가 보자고 외친다.

이 책은 이런 고민과 생각을 담아 교계신문을 비롯한 각종매체에 실었던 글들을 묶은 것이다. 불자로서 불교에 대해 놓은 일침도 따갑게 느껴진다. 〈불교춘추사, 8천원〉

일타큰스님의
윤회와 인과응보 이야기
— 시작도 끝도 없는 길 —

"죽음 뒤의 세상, 인간은 과연 윤회하는 존재인가?"
"내가 지은 업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러한 의문에 해답을 일러주고자, 일타스님 자신과 가족·제자·신도들이 체험했던 윤회와 인연이야기를 53가지로 가려 뽑아 책으로 엮었다.
매우 알기 쉽게, 이야기로 들려주듯이 엮은 이 책을 읽다보면 자연스럽게 윤회와 인과응보에 대한 궁금증을 풀고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될 것이다.
신국판 / 5,000원

맑고 향기로운 세계를 향해 열려 있는 일타큰스님 법어집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부처님의 말씀을 보다 쉽고 가깝게 대중들에게 전하고 계신 일타 큰스님.
월간 《법공양》에 연재되었던 일타 큰스님의 주옥같은 법문을 한 권에 담았습니다.
고된 삶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며 방황하는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문을 열어드립니다. 법(法)의 향기 가득한 일타큰스님의 말씀, 삶의 지표를 다시금 세워보십시오.
신국판 / 5,000원



불교출판계의 스테디셀러,
『기도』 신드롬을 일으켰던 바로 그 책!

祈禱 일타스님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사람의 한평생 중 마음먹은 대로 되는 일이란 지극히 적다. 그러나 살다보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서라도 꼭 이루어야 할 일들이 생기게 된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기도이다. 하지만 오랫동안 절을 다닌 신도들조차도 기도가 어렵다고 말하거나 방법이 잘못되어 제대로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신국판 / 5,000원

총 52가지의 기도성취 영험담 이야기!

이에 일타스님은 자신과 도반·선배·제자·신도들이 직접 체험한 기도성취 영험담들을 모아 이 책을 간행하였다. 총 6장 52편의 다양한 이야기로 엮어진 이 책을 읽다보면 기도를 통해 틀림없이 부처님의 가피를 입을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되고, 이야기 끝에 붙인 큰스님의 해설을 통하여 올바른 기도법과 함께 기도성취의 지름길을 알 수 있게 된다.

"스님, 기도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기도』 출간 이후, 계속되는 독자들의 기도법에 관한 문의에 다시 집필을 시작하신 스님의 기도 방법 지침서. 여러가지 상황에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 천도를 위한 기도, 세사 때의 기도' 등등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생활속의 기도법
4×6판 / 3,500원

일타 큰스님의 알기쉬운 불교책

·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야운비구의 《자경문 自警文》을 알기 쉽게 푼 해설집.
신국판 / 값 5,000원

· 시작하는 마음
초보자를 위한 불교입문의 지침서 보조국사 《초심 初心》의 해설집.
신국판 / 값 5,000원

·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에 대한 일타스님의 강설집
신국판 / 값 5,000원

· 범망경보살계 1 - 5
보살계 산림법회에서 강설하신 일타스님의 무애변(無碍辯)을 담은 책.
신국판 / 각권 6,000원

· 법공양문
부처님과 역대 스님들의 가르침을 모아 엮은 책.
신국판 / 값 5,000원

· 감로법문
일타큰스님의 육성법문 테이프.
(5개 1세트) / 값 12,000원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전화 : 587-6612 · 팩스 : 586-9078

지눌스님의 사상체계 진정한 자아 발견 모든 생명 살리는 길

-강건기 교수-

지눌스님의 계율관은 지킬 것과 범할 것의 융통-조화성 강조

-권기종 교수-

지눌 신행의 결집 결사정신은 시대초월 새로운 문화 창조

-법산스님-

보조사상硏 세미나 '지눌 사상의 집중탐구'

"〈수심결(修心訣)〉에 나타난 지눌스님의 사상체계는 탐욕을 지속적으로 증장시키는 오늘의 세계에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중생의 고통을 발본하며 모든 생명을 살리는 길로 재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지눌사상의 집중적 탐구 - 지눌의 저술을 통해서'를 주제로 24일 서울 법련사에서 열리는 보조사상연구원(이사장 현호스님) 제11차 학술회의에서 발표에 나서는 강건기 교수(전북대 철학과)는 미리 배포한 논문 '〈수심결〉의 체계와 사상'을 통해 "현실과 근기를 감안한 실천의 중요성을 담고 있는 지눌사상의 현대적 해석은 현대 한국철학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교수는 〈수심결〉의 사상체계에 대해 "수심의 바탕으로는 공적영지심(空寂靈知心), 수심의 체계로서 돈오점수(頓悟漸修), 그것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인 정혜쌍수(定慧雙修)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한 뒤 "특히 돈오점수와 아울러 돈오돈수의 입장까지도 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눌스님이 실천을 얼마나 중시했는가를 엿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수심결〉에 나타난 지눌사상의 특성과 의의를 △원융적 성격 △현실과 근기 중시 △실천 중시 △외래사상의 주체적이고도 창의적인 수용 △참 나를 찾고 실현하는 직접적인 길 제시 △자기실현의 과정과 중생제도의 이타행의 연결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강교수는 "본래 부처인 우리의 마음자리를 분명히 깨쳐서 생활 속에 밝게 드러내고 일체의 모든 생명을 향한 동체자비를 실현시키는 것이 〈수심결〉이 보여주는 수심(修心)의 바른 길이요, 가장 인간답게 사는 길"이라며 "공적영지심에 대한 투철한 깨침과 그것을 통한 이타행을 오늘의 현실에 재해석하여 적용함으로써 일관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새로운 경종으로 울려 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기종 교수(동국대 불교학부)는 논문 '〈계초심학인문(誡初心學人文)〉의 연구'에서 "〈계초심학인문〉에 나타난 지눌스님의 계율관은 불계(佛戒)를 수지(受持)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지킬 것과 범할 것을 잘 알아야 한다는 융통성과 조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주장했다.

권교수는 "한국불교의 전통적 승가행의(僧伽行儀)로 정착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규범이 되고 있는 〈계초심학인문〉은 출가한 초심학인(初心學人)만이 아니라 모든 불교인이 받아 지녀야할 계율서"라며 그 특징을 세 가지로 분석, 제시했다. 첫째, 오계(五戒)와 십계(十戒)의 무분별한 맹종이 아닌 지범개차(持犯開遮)를 잘 조화할 것을 강조하고 둘째, 인천(人天)의 대복전(大福田)이 되는 것이 승가의 궁극적 이상이며 검약지족(儉約知足)과 근행(勤行)이 수행자의 태도라는 이상적 승가상과 승가의 본분을 제시했으며 셋째, 행주좌와어묵동정(行住坐臥語默動靜)에서부터 대인관계, 신구의(身口意) 삼업(三業)에 걸친 모든 행동의 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 권교수는 "〈계초심학인문〉은 지눌의 그 어떤 찬술보다 양이 적은 저서이지만 그 어떤 찬술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창적 사상을 발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권수정혜결사문(勸修定慧結社文)〉 연구'로 발표에 나서는 법산스님은 지눌의 신행을 통한 깨달음을 실현시킬 대중적 운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권수정혜결사문〉에 체제와 내용에 관하여 검토하고, 〈정혜결사문〉이 영원한 깨침의 길로 나아가는 길잡이임을 제시했다. 법산스님은 "지눌의 신행의 결집인 결사정신은 한국불교의 미래에도 영원히 살아 숨쉬며, 시대에 맞는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은 기자
(jekim@buddhapia.com)

분황사 창건 왕권회복-경제번성 기원

분황사 재조명 세미나

신라 중기에 건립된 분황사(芬皇寺)를 집중 조명한 학술세미나가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소장 김갑주) 주최로 9~10일 경주 현대호텔에서 '분황사의 제조명(諸照明)'을 주제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 '분황사 창건의 정치·경제적 배경'으로 발제에 나선 이인철 교수(중앙대)는 "분황사 준성은 종교적으로는 불교의 번성에 힘입은 것이지만, 정치적으로는 외적의 침입과 여왕통치로 인한 왕권의 허약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신라왕실의 염원과 경제적으로는 고탄소강의 생산확대와 석공기술의 발전을 배경으로 축조된 것"이였다고 밝혔다.

또 '분황사 모전석탑(模塼石塔)에 대한 고찰'에서 박경식 교수(단국대)는 "분황사 모전석탑은 중국의 전탑에서 기인한 양식이라기 보다는 인도의 석탑양식이 중국을 거쳐 신라에 수용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양식 자체만으로 볼 때 목탑과 전탑의 양식이 절충된 것으로 보이지만 재료상의 차이에서 전탑의 영향이라기 보다는 새로운 양식의 수용이라는 것.

이밖에 이날 세미나에서는 △〈삼국유사〉에 실린 분황사관음보살 설화(신종원·강원대) 10편이 발표됐다.

김정은 기자

팔정도 자기개혁적 해석 종교간 대화에 희망 제시

최종석씨 '공과 연기의 현대적 조명'서 발표

불교의 궁극적 목표인 깨달음을 향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기독교의 성경에서도 찾아낼 수 있을까. 모든 종교는 서로에게 동반자이지 경쟁자이거나 적이 아니므로 서로 배워서 이해하자는 종교 다원주의(Pluralism)가 대두되면서 불교의 공(空)개념과 기독교의 신(神)개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시도되고 있는 가운데 '팔정도(八正道)'를 통해 '공(空)'과 신의 '스스로 비움(Kenosis·空化)'을 접목한 논문이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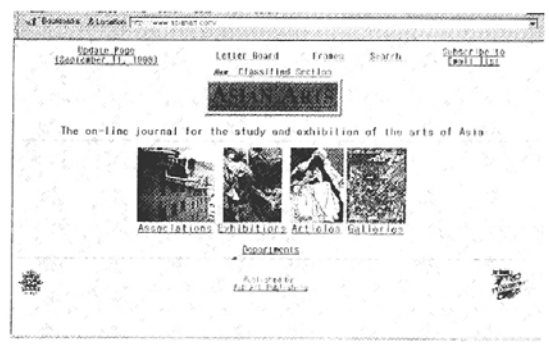
10일 동국대에서 열린 고려대장경연구소 '공과 연기의 현대적 조명' 5차 세미나에서 최종석씨(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는 '연기와 공의 종교신학적 이해에 대한 고찰'을 통해 "팔정도의 자기개혁적인 해석은 종교간의 대화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희망을 제시한다"고 주장했다.

최씨가 시도한 팔정도의 재해석은 '정견(正見)'이 진리를 향해 마주보고, 무아(無我)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결단'이라면 기독교의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는 말씀은 신앙에의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다.또 '정사(正思)'가 진리를 향한 끊임없는 숙림의 올바른 생각이라면 예수도 진리를 향한 태도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라'고 강조하고 있다. 진리 안에서 말의 참뜻을 살피는 '정어(正語)'는 요한복음의 첫머리에 나오는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똑같은 분이셨다'는 구절과 일치하며, '정업(正業)'은 늘 깨어있는 행위로 하느님을 향한 긴장을 놓치지말고 깨어 있는 삶을 영위하라는 신앙성서의 구절과 같다는 것. '정명(正命)'은 종교적으로 의식화된 생활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와 대비시킬 수 있다. 자신의 해탈뿐만 아니라 이웃과 사회를 위한 노력과 관심을 강조한 '정정진(正精進)'은 주어진 능력을 발휘하고 게으르지 말기를 경고한 '달란트'의 비유와 유사하며, '정념(正念)'은 진리를 향한 열정의 현재성으로 '종교적 실천'으로 대표될 수 있다. 이밖에 '정정(正定)'은 진리의 체현을 통한 자유와 해방을 의미하는 것으로, 요한복음에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김정은 기자



해설 불교적 시간관은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고양이의 기지를 통해 동승은 존재란 실체가 없으며 단지 현상일 뿐이라는 것을 배웠다.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불교미술을 찾아라

티벳·중국·일본 등 불교미술 감상 초기불교 동굴사원 프로젝트 '관심'

정보의 바다 인터넷에서 불교 미술품을 전시하고 있는 사이트를 찾아가 불향을 만끽해 보자. 이 즐거움에는 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유적지와 박물관에서 붐직한 불교 미술품을 감상할 수 있고, 티벳, 중국, 일본, 스리랑카 등 각국의 대표적인 작품들을 보고, 그 차이점도 비교해 볼 수 있어 네티즌의 즐거움은 배가된다.

美 미시간대학의 △남아시아 미술 위원회에서는 아시아 불교 미술품에 대해 1백67개의 주제를 정해 놓고 슬라이드 필림 제작을 추진하고 있다. 이 위원회에서 선정한 미술품은 네팔, 티벳, 미얀마, 태국, 스리랑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아프카니스탄 등지의 유적지와 박물관 소장품이다. 이 곳에서는 이 계획에 대한 소상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제작된 작품 50점을 감상할 수 있다.

△아시안 예술에서는 티벳에서 경전을 보호하기 위해 목재로 만든 표지를 열람할 수 있다. 히말라야 산맥의 독창적인 미술품이 탕카(Thangkas)의 원형을 이 표지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한다. 목판 위에 섬세하게 새겨진 아미타불, 만다라 등에서 옛 공인들의 신심을 느낄 수 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카투만두 계곡에 있는 파탄박물관의 소장 불교 미술품도 열람할 수 있으며, BC 2세기부터 AD 13세기까지 제작된 불상 중에서 특징적인 불상 24점을 감상할 수 있다. 이외에도 불교미술을 연구하고 있는 석학들의 연구 논문을 읽을 수 있다. 국제적인 미술연구 단체인 예술 대화를 위한 서구 연맹(Western Association for Art Conservation)에서 '티벳의 탕카'를 주제로 한 97년 학술 세미나에서 발표된 것들이다. 여기에는 '티벳예술의 역사성' '전통 탱화의 현대적 정착 - 네팔의 경우' 등 4편이 있다. 30~50여명의 스님과 예술가들이 제작하는 거대한 탱화들에 대한 이야기도 소개된다. 세계에서 가장 큰 탱화는 티벳의 트서푸사원에 있다. 이 탱화는 1992년부터 2년간 제작되었는데 크기가 무려 가로 23미터 세로 35미터에 달한다.

△일본 불교 조각사이트는 일본의 불교 조각품을 시대별 종파별로 구별해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일본 불교사에서 나라시대 즉 8세기는 거대 사찰들이 조성됐던 시기이다. 슈몬사원의 '사천왕' '아수라', 부처님의 열반을 지켜보는 사부대중의 슬픔이 극명하게 묘사된 호류지의 석굴 조각들이 있다. 또 토계와 밀교계 불교미술품도 열람할 수 있다.

이외에도 네팔의 불교미술을 엿볼 수 있는 '신(新) 불교예술(http://kaladarshan.arts.ohio-state.edu/Nepal/nepal.html)', 불교미술를 쉽게 개관해 놓은 '헌팅턴의 불교미술(http://kaladarshan.arts.ohio-state.edu/default.html)' 등이 찾아 봄직한 사이트이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남아시아 미술 위원회
(http://www.umich.edu/~hartspc/acsaa/acsaa.html)
아시안 예술(http://www.asianart.com/)
일본 불교 조각(http://www.t3.rim.or.jp/~ramusa/art.htm)

책이 있는 시간 · 책이 있는 공간 · 시공사

시공 불교경전

1 유마경
장순용 풀어 옮김 / 값 12,000원
2 법화경 1 · 2
이현숙 풀어 옮김 / 값 각권 12,000원
3 마하박가 1 · 2 · 3
최봉수 풀어 옮김 / 값 각권 14,000원

시공 불교 총서

1 고타마 붓다의 생애
E. H. 브루스터 편저 / 박태섭 옮김 / 값 6,000원
2 붓다의 옛길
피야닷시 지음 / 한경수 옮김 / 값 7,000원
3 경전의 성립과 전개
미즈노 고겐 지음 / 이미령 옮김 / 값 6,000원
4 불교 철학사
D. J. 칼루파하나 지음 / 김종욱 옮김 / 값 8,500원
5 불교 심리학
루네 E. A. 오한슨 지음 / 박태섭 옮김 / 값 6,500원
6 유식 입문
다카사키 지키도 지음 / 이지수 옮김 / 값 5,000원
7 간추린 인도불교사
에티엔 라모트 지음 / 정외도 옮김 / 값 5,000원



수능세대를 위하여
똑똑똑 불교를 두드려 보자

절에 가면 착해져요? 부처님은 신이 아니라면서 불상에 절은 왜 하죠? 참선만 하면 깨달을 수 있나요? 불교에 대한 열 개의 질문, 생각해 볼 이야기 여섯 가지, 그리고 고개마다 쉬어가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이제는 불교와 부처님과 친해집시다. 그리고 스스로 부처님이 되세요.



윤원철 외 지음 / 238쪽 / 값 7,000원

현전(現前)과 부재(不在)의 언저리에서
無를 향해 기어가는 달팽이

삶도 세상도 그리고 나와 늘 함께 있는 너조차도 無일 뿐이다. 내 온몸으로 감싸 안아도 그것들의 한 쪽 귀퉁이는 언제나 삐주룩이 나와 있고 그것들의 하중은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늘 나를 짓누른다. 그렇다고 해서 벗어 던지거나 모른 체할 수도 없는 이 무게를 견디기 위해 나는 오늘도 無 속으로 떠나는 것이다. 느릿느릿한 달팽이가 되어.



박재현 지음 / 268쪽 / 값 7,000원

시공사의 불교책들

불교 길라잡이
곽철환 지음 / 값 18,000원
불교의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설명한 불교 입문서

미리래빠의 十萬頌
가르마 첸치창이 옮긴 영역본을 이정섭 풀어 옮김 / 값 18,000원
티베트 성자, 미리래빠가 전한 아름다운 깨달음의 노래

책안의 불교 책밖의 불교
김호성 지음 / 값 6,500원
숨어있는 좋은 책 미흡 권에 대한 서평

부처님의 아홉아홉 가지 말씀
이현기 지음 / 값 5,000원
부처님의 기르침을 가려 뽑아서 재미있는 설화로 들려 주는 책

알게 모르고 모르게 알고
원의법 지음 / 값 6,000원
심을 꿰뚫은 1,700가지 쌀막한 생각들

禪으로의 초대
스즈키 순류 지음 / 최세만 옮김 / 값 5,000원
어렵게만 느꼈던 선에 대한 편견을 깨트려 주는 안내서

새벽산사에 가보세요
미영순 지음 / 값 7,000원
마음으로 떠나는 사찰 여행

백팔고개 넘어 부처되기
계환 지음 / 값 6,500원
숨어있는 참나를 찾아서

시공사 전화 588-0833 팩스 588-0835

한형조 무문관 탐방 68

달마의 파도 ①

"불안한 마음 찾아보면 없네"

작은 지혜 가벼운 마음으론 더 없는길 도달못해

* 달마가 면벽(面壁)을 하고 있었다. 이조(二祖)가 눈 속에 서서 팔을 자르고 말하기를, "제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제 마음을 편안히 해 주십시오." 달마가 말했다. "마음을 가지고 오너라. 편하게 해 주마." 이조가 말했다. "찾아보면 없습니다." 달마가 말했다. "내가 네 마음을 편하게 해 주었다."

* 나 혜개가 말한다. "이빨 빠진 늙은 오랑캐, 십만리 뱃길을 헉헉대며 왔으니, 가히 '바람도 없이 일으킨 물결'이구나. 나중에 문인 하나를 얻었는데, 그 또한 불구자라. 저런! 어리석은 자,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르는구나."

* 송하여 가로되, "서쪽에서 와 곧바로 가리킨 것, 그 부촉으로 하여 사단이 벌어졌네. 총림을 소란시킨 장본인이 본시 너 아니더냐."

達磨安心:

達磨面壁, 二祖立雪斷臂云, 弟子心未安, 乞師安心. 磨云, 將心來, 爲汝安. 祖云, 覓心, 了不可得. 磨云, 爲汝安心竟. 無門曰, 缺盜老胡, 十萬里航海, 特特而來. 可謂是無風起浪. 未後接得一箇門人, 又却六根不具. 咦! 謝三郎不識四字. 頌曰, 西來直指, 事因曬起, 撓 叢林, 元來是爾.

〈무문관〉의 연재를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썼던 것을 기억한다. "A.D 6세기 갈대잎을 타고 북위의 수도 낙양에 나타난 서역승의 전설로부터 선의 역사가 시작된다. 소림사의 면벽과 눈 쌓인 뜨락의 붉은 선혈을 거쳐 6조에 이르러 선은 새로운 불교운동으로서의 기반과 동력을 얻었다."



그림 · 문병성

그동안 우리는 그 이후의 선의 발전과 쟁쟁을 살펴보았다. 지금의 화두는 잊고 있었던 바로 그 처음, 선이 시작되던 때의 이야기를 적고 있다. 일반적인 역사기술방식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의아스런 설정이 아닐 수 없다. 그렇지만 〈무문관〉은 애시당초 역사적 사실이나 시간적 순서보다, 그를 넘어서는 초시간적 진실을 타겟으로 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그때까지 중국불교의 발전은 중국북부의 육로를 통한 교학으로 특징지워진다. 그런데 달마는 그 혁신적 주장만큼 색다른 경로와 방법으로 중국에 도달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남방에서 해로로 갈대를 타고, 그것도 궁벽한 시골변두리인 지금의 광동(廣東) 근처에 도착한다. 그리고선 당대 불교의 심장인 북위(北魏)의 수도인 낙양으로 올라가 양(梁)의 무제(武帝)를 만나 담판을 짓는다.

무제는 부처님의 법을 믿고 그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자신의 정성과 국가의 재정을 송두리째 바쳤던 사람이다. 그는 서역에서 온 승려에게 자신의 공적을 자랑하고 싶어했다. "그동안 짐은 수많은 가람을 짓고, 경전을 반포하며, 스님네들을 지원했소이다. 그게 어디 보통 공덕이겠습니까." 이 은근한 자랑에 달마는 차갑게 응수했다. "황제께서는 아무런 공덕도 쌓지 못했습니다." 무제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무제는 남루한 달마에게 다시 물었다. "당신은 그동안 부처님(佛)과 진리(法)와 수도자(僧)를 향한 내 헌신과 공양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단정하는 거요. 그런 당신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어라고 생각하시오(如何是聖諦第一義)?" 달마의 대답은 무제의 예상을 빗나가고 있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廓然無聖)." 짜증이 나기 시작한 무제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그런데 당신은 어째서 스님 행세를 하고 있소, 당신은 대체 누구요(對朕者誰)?" 달마는 이 물음에 "나도 모르겠소(不識)"하며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주변으로부터 달마가 문수보살의 화신이었다는 말을 듣고 무제가 부랴부랴 사람을 보냈지만 달마는 깊은 숭산 속 소림사라는 토굴 속으로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그는 세상과의 인연을 끊고 면벽의 좌선으로 9년을 보냈다. 그에게는 어느샌가 벽관바라문(壁觀波羅門)이란 별명이 붙여졌다. 이때의 '벽'에는 여러 의미가 중첩되어 있다. 그 가운데 진리가 가진 험준함과 초감각적 특성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그런 달마를 어느 겨울인가 한 젊은이가 찾아왔다. 달마는 흘낏 돌아보고는 다시 벽을 쳐다볼 뿐, 상대를 하지 않았다. 젊은이는 포기하지 않고 뜰에서 눈내리는 밤을 꼬박 새웠다. 새벽이 되자 흰 눈이 젊은이의 무릎까지 차올랐다. 그제서야 달마의 마음이 조금 움직였다. "그 눈 속에서, 대체 무엇을 구하려 하느냐." 젊은이는 감격하여, "화상이시여, 대자비를 베풀어 감로의 법문을 열어주소서"라고 울먹였다. "더 없는 길은 작은 지혜나 가벼운 마음으로 도달할 수 없는 고고정상의 신고와 고통을 필요로 하느니…" 이 말에 젊은이는 날카로운 칼을 꺼내 왼쪽 팔뚝을 잘랐다. 하얀 눈 위에 붉은 선혈이 튀는 서늘함. 후일 어느 시인은 이를 두고 "흰 눈 위에 붉은 꽃잎이 점점이 흩어지고"라고 읊기도 했다. 이 장면을 우리는 절간의 벽화 등에서 자주 발견할 수 있다. 그만큼 극적인 사건이었다.

물론 이 일화는 전설이나 과장일 수 있다. 신광은 달마를 찾아오기전, 도적에게 한 팔을 잃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진실은 역사적 사실 여부에 있지 않다. 허구의 산물인 상상력과 그로 인한 감화력만큼 실제적인 것도 다시 없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놓는 마음으로 일하라

잭 콘필드가 쓰는 재가자를 위한 팔정도 28



정정 ③

수행자는 집착과 분별에서 벗어나 마음챙김을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마음을 챙기는 그 상태를 우리 내면의 깊숙한 곳까지 끌어들여야 한다. 여기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현재의 생각, 습관 등의 것이 어떤 상태에 있는 조건인가 하는 것이다.

세간의 일이란 어떤 유형적 특징을 지니고 흘러갈 뿐이다. 지나간 시간들은 일시적이며 결코 잡을 수 없다. 우리가 삶을 통해 배워야 할 것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무(無)로 되돌아간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며, 그 자리에서 깊은 수행을 이룰 수 있다. '스물 네시간' 혹은 '하루'는 다치 허공을 가르는 새들과도 같이 순간 존재하다가 사라지는 것으로 결코 잡을 수 없다. 우리는 시간을 잡을 수도 없으며, 또 우리 자신 또한 잡을 수 없다.

모든 것 無로 돌아가니
보상 · 칭찬 바라지 말라
크게 놓을때 큰 평화얻어

사람은 제각기 자연스러운 삶의 속도가 있다. 어떤 사람은 나이 50세에, 어떤 사람은 65세에 어떤 사람은 90세에 세상을 뜨게 된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수행도 다 똑같을 수가 없다. 이런 문제를 놓고 노심초사하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단지 마음챙김에 노력하면 된다.

모든 일이 자체적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놓아두면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점점 더 고요해질 것이다. 숲속에 있는 맑은 연못처럼 될 것이다. 그때에 별의별 기이하고 희귀한 동물들이 그 못에 물을 마시러 오는 것과 같이 우리는 모든 존재의 본성을 분명하게 볼 수 있다. 희한하고 기이한 것들이 수없이 오고 가는 것을 보게 되겠지만 우리는 여전히 고요한 채로 있는 것이다.

아잔차 스님은 "무슨 일을 하든지 놓는 마음으로 하라. 어떠한 보상이나 칭찬도 기대하지 말라. 조금 놓아버리면 조금의 평화가 올 것이다. 크게 놓아버리면 큰 평화를 얻을 것이다. 만일 완전히 놓아버리면 완전한 평화와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세상을 상대로 한 그대의 싸움은 끝을 보게 되리라"고 말했다.

자신을 관찰해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한다. 오로지 관함을 통해 자기의 몸과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앉아 있을 때나 누워 잘 때나 먹을 때나 자신의 한계점이 어디까지인지를 알아야 한다. 부처님의 지혜는 여기에서부터 출발하고, 그 수행 또한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오직 있는 그대로에 대해 마음을 챙기는 것이다.

자신의 마음을 곧자 들여다보는 일이란 고와 고의 원인과 고의 끝을 보는 것이다. 하지만 많이 참고 견디지 않으면 안된다. 부처님은 스승 밑에서 적어도 5년은 머물러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먼저 대상을 깊이 관찰하고, 그것의 고귀함을 보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나면 그것들이 우리의 세계에 들어와 '단순한 진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게 그대로 놓아두어라. 한 스님이 수 년간의 고행을 끝내고 자신의 깨달음을 인가받기 위해 스승을 찾았다. 스승은 제자를 밤보나무 아래로 데리고 갔다. 밤보나무는 제자가 스승을 처음 만났을 때에도 그 자리에 서 있었던 나무였다.

스승은 "이 나무가 얼마나 자랐느냐. 예전보다 많이 자라지 않았니"라고 말하고 나무가 서있는 맞은편 동산으로 올라갔다. 제자는 스승을 좇아갔다. 잠시 후 스승은 "이곳에서 어떻게 보이느냐. 밤보나무가 너무 작아 보이지 않느냐"고 말했다. 제자는 이때 큰 깨달음을 얻었다.

우리는 주변의 유 · 무정물에서 몸, 생각, 감정 등 그 어느 것도 영원히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모든 것은 변화한다. 우리와 우리의 주변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여기에 주목할 때 고귀한 삶의 교훈을 얻을 수 있다.

팔정도는 부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부처님은 "삶에서 행복과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수행의 방편이 있다. 이 방편은 아주 간단해서 온종일 앉아 있을 필요도 없고 사원의 뜨락을 거닐 필요도 없다"고 우리를 설득하셨던 것이다.

번역=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177

불교와 수학 72

인생 방정식

김 용 운

'넓이가 2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방정식의 해, 즉 $X^2 = 2$를 만족하는 수는 $x = \sqrt{2}$이다.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라는 물음에 대해서 사람의 일생의 모습을 제시한 12인연(十二因緣)이 있다. 굳이 수학적으로 표현한다면 인간=무명→ …… →老死이다. 전후의 현상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기에 '무명 → 행(行)'의 '→'는 '='와도 같은 것일까? 일반적으로 '같다'는 것은 다음과 같이 쓰인다.

① 쌍둥이처럼 같다(완전히 합쳐지는 경우)

② 부자간처럼 같다(닮은꼴인 경우)

③ 좌우 두 손과 같은 경우(대칭적인 경우)

이들은 ①의 경우를 제외하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뒤집거나 확장 등 어느 물리적 작업을 통해서만이 일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들 3가지 경우에는

㉮ A는 A와 같다. ㉯ A와 B가 같으면 B와 A도 같다. ㉰ A가 B와 같고, B가 C와 같으면 A와 C는 같다.

이들 ㉮, ㉯, ㉰를 만족할 때 '같다'고 하며 기호로서 '='를 사용한다.

'무명이 있음으로 행이 있다'는 명제에 '행이 있기 위해서는 무명이 전제가 된다'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무명→행'의 관계는 '무명=행'이 된다.

이 설명방법이 지난호에서 설명한 귀납법의 논리와도 같다. 석가모니께서 이 방정식을 얻기전의 또 하나의 인생방정식은 생노병사(生老病死)였고 또한 인생의 괴로움을 '혹어리석음'을 말하고 있다.

지난호에서는 귀납법에 관해서 설명했다. 자연수 n에 관한 명제 P(n)이 항상 성립하는 조건으로서 (1) n=1일 때 성립하고, (2) n=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할 때 n=k+1일 때 성립한다면 어떤 n에 관해서도 성립한다. 자연수 전체에 관통하는 연기의 이(理)를 파악함으로써 수학적 귀납법이 성립한다. 귀납법은 자연수 전체가 연기의 이(理)에 얽혀 전체가 하나라는 인식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한편 석가모니는 '12인연'이 누구에게나 성립하는 사실을 알고 인간의 마음에 관통하는 연기의 이를 파악했다.

인간=무명→행→…→生→老死
12인연은 인생 전개과정 설명
연기의 理 인생방정식의 해답

〈아함경〉 '인과상응(因果相應)'에서는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비구(수행자)들이여, 연기란 무엇이냐. 비구들이여 무명(無明)에 의해 행(行)이 있다. 행(行)에 의해 식(識)이 있다. 식(識)에 의해 명색(名色)이 있다. 명색(名色)에 의해 육처(六處)가 있다. 육처(六處)로서 촉(觸)이 있다. 촉(觸)에 의해 수(受)가 있다. 수(受)에 의해 애(愛)가 있다. 애(愛)로써 취(取)가, 취(取)로써 유(有)가 있다. 유(有)에서 생(生)이 있다. 생(生)에서 노사(老死)·수(愁)·비(悲)·고(苦)·우(憂)·뇌(惱)가 생긴다. 이들이 모두 고(苦)의 집적(集積)으로써 일어난다. 비구들이여 이것을 연(緣)에 의해 생기는 것이라고 한다.'

이 논리는 n이 있기에 '(n+1)이 있고, (n+1)이 있기에 (n+2)가 있다 ……'는 것과도 같다. 특히 연기의 계열은 불안한 인간의 존재를 조명한 생기(生起)와 소멸(消滅)의 철리를 말한 것이다. 1이 있음으로써 필연적으로 2가 생기는 것처럼 인간은 도저히 알 수 없는 위대한 힘의 작용으로 이승에 몸이 주어지면서 인생이 시작된다. 그 '몸'에는 절로 '마음'이 생기고, 마음이 여러 대상을 감지 · 인식하고, 그 인식한 것을 좋고 싫어하는 여러 감정을 일으키고, 그 감정에 따라 욕구가 발생하고, 그 욕구를 만족시키려 행동하고 이것을 되풀이 하는 사이에 경험과 체험이 마음과 몸에 배 인간성이 형성되어 간다.

인간은 이것을 겪으면서 일생을 보내는데 싫건 좋건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늙어 죽는다. 불교는 곧 이 인생방정식의 해를 제시하는 것이다.

〈한양대 수학과 명예교수〉

불교사전의 금자탑! 불교대사전 출간!

佛教大辭典

THE ENCYCLOPEDIA OF BUDDHISM



最多語彙 · 最新譯解 · 最善編輯

① 제작기간 10년, 기존의 불교사전과 전혀 다른, 고대에서 현대까지 불교의 **핵심적인 용어 6만3천여개**를 선정하여 문장을 간결하고 평이하게 현대적 어휘로 표현하였다.
② 가능한한 각 용어 마다 범어 · 팔리어 · 티벳트어 등 **원어를 찾아내어 표시**하였다.
③ 한글 세대를 위하여 한문은 괄호안에 넣었다.
또한 불교의 세계화를 도모하고자 영국 옥스포드판 **「漢英佛學大辭典」**을 부록으로 실었다.

최고급양장/크라운판 上 · 下 3,600면/정가220,000원

도서출판 홍법원 · 서울 종로구 견지동 55-2 TEL(02)734-7614, 739-8745, 팩스735-2344

화제의 책

"귀신의 병은 100% 낫는다."

영혼을 천도하는 연화심

구천에서 떠도는 영혼들을 기를 통해
저승길로 인도하는 연화심 보살의
영능력 세계!

뚜렷한 병명 없이 아픈 사람들이나
신이 내렸다고 하는 사람들을
손하나 대지 않고 치유하는
신통력을 지닌 연화심 보살



"기를 모으면 영혼을 부를 수가 있는데 빛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현생에서 지은 업의 크고 작음에 따라 색이 다르게 나타나죠. 저승에 가지 못하고 떠도는 혼들을 사후세계로 보내주면 혼령이 붙어서 원인 모르는 병으로 고생하던 사람들이 씻은 듯이 낫게 됩니다."
-〈여성중앙〉-

김점기 지음

신국판 240쪽/값6,000원

· 읽고 난 후 저자에게 문의하실 분은 〈지장정사〉로 연락하세요.
전화: (052)264-6351

도서출판 정 서울 관악구 남현동 1054-5호 중앙B/D
전화: 3474-3521(영업부) 팩스: 3474-3524

身土不二의 企業
興國農産
⊙ 전 국 (080)064-1300
⊙ 서울본부 (080)070-1300
土種 홍화씨
함양산 土種 홍화씨가 왜 좋은가?
● 지리산자락 함양은 재배의 적지
● 함양은 100년간의 재배를 통한 원조격 동네
● 끊임없는 연구를 통한 우수 품종 생산

시방세계



거돈사지
흥법사지
법천사지

원주시 71억여원 예산 복원추진

중·원·불·교 제2의 중흥

역사를 담고 남한강은 흘러간다. 도도히 흐르는 남한강 줄기를 따라 좌우로 크고 작은 사지들이 걸쳐져, 1천여년전 불공을 드리러 뱃길을 이용했던 지극한 불심들이 눈에 띈다. 강줄기를 따라 강원도 거돈사 흥법사 법천사가 그 터만 남은 채 역사를 말하고 있고, 이 강물은 경기도 신륵사에 가 닿는다. 원주지역의 3대 폐사지 거돈사지·흥법사지·법천사지가 원주시와 정부의 주도하에 2002년까지 일제히 정비된다. 남한강변을 끼고 조성된 이 세 사찰은 강원도지역 불교문화의 중심지이자 원공국사 진공왕사 지광국사 등의 활동으로 고려불교의 중추 역할을 했으나 임진왜란 등으로 폐사된 채 복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아픈 역사를 간직한 곳이다. 불법을 가슴에 품고 고이 묻혀 5백여년이 넘는 세월을 침묵하고 있던 사지들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시절 인연을 맞게 된 것이다.

원주시는 중원문화권 정비사업의 하나로 거돈사지·흥법사지·법천사지의 역사적 성격을 규명하고, 훼손된 불교유적을 복원정비해 고려불교의 외형은 물론 정신적 지주였던 원공 진공 지광 등 세 스님의 사상을 널리 알린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거돈사지에는 17억 5천만원을, 흥법사지에는 16억 5천만원을, 법천사지에는 37억 9천6백만원을 투입, 사지정비를 시작했고 연차적으로 유적관 건립사업도 벌여 광관자원으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원주시는 95년도부터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중인 국보급 문화재를 다시 찾아오기 위한 운동을 펴고 있다. 2002년 사지 정비가 끝나는대로 문화재 반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이미 불교계에서도 동참하고 있는 운동이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유물은 거돈사지 원공국사 승묘탑(보물 제190호), 흥법사지 진공대사 부도(보물 제365호), 법천사지 지광국사 현묘탑(국보 제101호) 등이다.

거돈사

통일신라 때 창건된 천년고찰. 고려초 원공국사(930~1018)가 주석하면서 크게 융성했다. 원공국사는 중국 천태종의 근본도량 국청사에서 천태종지를 가르치는등 고려 초기의 천태학을 계승한 학승이다. 68년 2만4천7백86㎡의 터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거돈사지는 82년 토지매입을 시작으로 지금은 금당지 기단공사와 강당지 후면 석축공사 등 대대적인 기단 복원공사가 이뤄지고 있다. 현재 절터에는 최충이 비문을 지은 원공국사 승묘탑비(보물 78호)와 통일신라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3층석탑(보물 750호)이 남아 있다. 원주시는 지난 8월말 절터 왼쪽 1만㎡ 정도의 농경지에서 석축이 잇따라 발견돼 현지실사를 거쳐 문화재관리국에 보호구역 추가지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그러나 현재 지정된 구역에서도 도로공사가 한창이고 사지 앞 제교에는 20여년 가까운 세월동안 거돈사지 것으로 추정되는 당간지주가 한쪽만 외로이 늡혀진채 방치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한다. 거돈사지는 지난 81년부터 91년까지 한림대박물관이 4차에 걸친 발굴조사를 벌여 고려시대 와당류, 석조물 등 2백여점의 유물을 발굴, 보관하고 있으며 유적관이 건립되면 옮겨 전시할 예정이다.

흥법사

고려 태조 왕건이 진공대사(869~940)를 왕사로 임명하고 머물도록 하기 위해 창건했던 고려불교의 실질적인 발원지. 절터가 약 1만여평에 이르렀다는 설로도 그 규모의 거대함을 짐작케 하는 사찰이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폐사된 것으로 보이는 절터에서는 여러 가지 와당, 작은 말, 코끼리, 사자 등의 토우들이 상당수 발견됐다고 하는데 결정적인 명문은 발견되지 않았다. 남한강의 한 지류 섬강이 내려다보이는 너른 터에 자리한 흥법사는 터의 대부분이 사유지화된 채 삼층석탑과 진공대사 탑비의 귀부와 이수 그리고 약간의 석재들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진공대사 탑비(보물 제463호)의 비신은 중간부분이 없어진 채 깨어진 조각 4개가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되어 있고 사지엔 귀부와 이수만이 남아있다. 비문은 태조가 직접 지었다고 전하는데 이러한 사실로 진공대사가 고려 초기에 끼쳤던 영향력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고려를 좌지우지했던 과거의 영광은 역사의 뒷편으로 사라지고 흥법사지에는 고구마 줄기만이 무성하다. 흥법사지는 올해부터 토지매입과 사지정비에 들어갔으나 남아있는 삼층석탑은 70년대 당시 무리한 개보수로 상대 갑석이 부서지는등 많이 손상되어 있다. 특히 보물로 지정된 진공대사 탑비 가운데 사지에 남아 있는 귀부와 이수는 바로 뒤에 나무가 자라고 있어 귀부가 비스듬하게 기울어 지고 있는 실정이다. 탑과 비 사이에도 밭이 있는 등 눈쌀을 찌푸리게 만든다.

법천사

통일신라 성덕왕 때 창건되어 고려 문종조 지광국사(984~1067) 때에 이르러 대찰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진리가 샘물처럼 솟는다는 뜻을 가진 법천사지는 사역의 대부분에 농가가 들어서 있는데 99년부터 농가 철거와 함께 사지 정비작업에 들어간다. 너른 밭을 중심에 두고 외곽으로 자리잡고 있는 마을 전체가 절터였고 현재 마을도 법천리라 불리우고 있어 거대한 규모의 사찰이었을 것이라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흥법사지와 마찬가지로 사지는 부도가 있어 부도전이라 추정되는 건물터와 당간지주 만이 확인될 뿐 모두 농가와 밭으로 변해있다. 사지에서 중요한 부조물이었을 석조물들은 민가의 절구통이나 물통으로 변신해 있고 반쯤 부서진 하마비는 농가 헛간에 사료비닐로 덮힌 채 묻혀있다.

우리나라 부도비 중 가장 화려하다는 평을 듣고 있는 현묘탑비(국보 제59호)는 고려의 정신적 지주로 모셔졌던 지광국사에 대한 제자들의 정성이 곳곳에 배어있다. 비신 바깥쪽으로 보상당초문을 조각하고 비신의 맨 위에는 계수나무 밑의 토끼, 발이 셋달린 새를 새겨 달과 해를 상징하는 문양이 있다. 그 주위로는 산과 구름 비천 봉황 등이 새겨져 있어 매우 섬세함을 보이고 있다.

고려 불교의 힘을 느낄 수 있는 거찰 거돈사 흥법사 법천사가 후손들의 복원에 힘입어 제 모습을 찾으려 하고 있다. 원주지역의 세 거찰이 복원되면 중원 문화의 사상적 핵심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로인해 제2의 중원불교 중흥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글=강지연 기자(jygang@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ybgo@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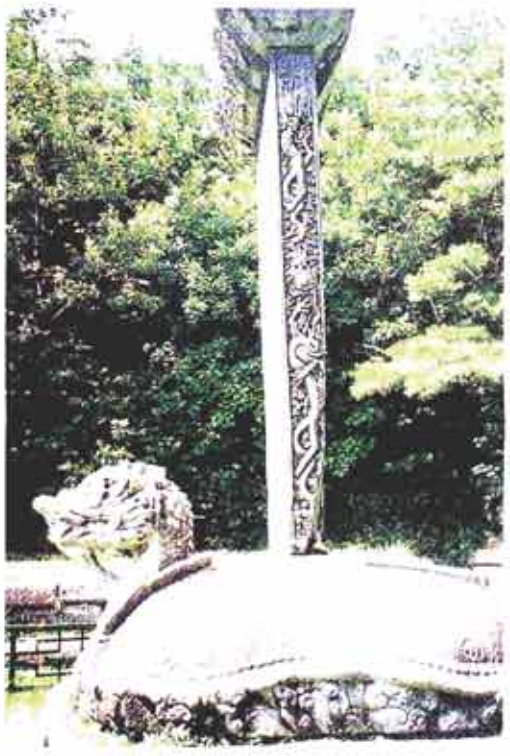


◇법천사지에는 깨진 용두, 조화이 맞지 않는 몸두와 몸신 · 광배, 탑 · 부도 · 석등 부재 등 방대한 석조물이 모여있다.

거돈사
원공국사 주석 때 융성
농경지서 석축 잇단 발견

흥법사
고려불교 실질적 발원지
절터 1만여평 설도

법천사
법천리 마을 전체가 절터
지광국사 현묘탑비 '성세'



◇법천사지 지광국사 현묘탑비의 측면돈 구슬을 사이에 두고 서로 희롱하는 두 마리의 용을 길게 새겨 희려함의 극치를 이룬다.



◇법천사지 민가에서 절구통으로 사용되는 유물.

"3대 사지복원은 지역문화발전 초석"

사지복원 관심갖는 함종한의원(한나라당 불자회 회장)



"원주지역에 있는 거돈사지 흥법사지 법천사지 등 세 곳은 모두 고려불교 중흥의 기반이 되었던 곳으로 선·천태·유식사상이 숨쉬고 있는 역사적인 민족문화 현장입니다. 이렇게 불교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들 사지 복원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원주지역 토박이 의원으로 한나라당 불자회 회장을 맡고 있는 함종한의원(54)은 사지 복원에 남다른 관심을 보이고 있다. 내로라 하는 불자인 그는 원주시내 3대 사지 복원으로 지역문화의 사상적 구심점을 삼아야 한다고 뜻을 폈다.

"사지 대부분이 사유지화 되어 있는 흥법사지의 경우 상태가 가장 심각해요. 뒷편으로 영봉산 자락이 있고 앞쪽으로는 남한강의 한 지류인 섬강이 흐르는 곳까지 모두 흥법사 사역이었다고 전할 만큼 거대한 사찰이었을 흥법사라든가 법천사가 후대의 무관심 속에 외면되고 있었던 것을 모두 반성해야 합니다."

그는 지역 불자를 중심으로한 불교계의 관심을 거듭 호소하면서 이 사지의 역사성 상징성에 걸맞는 정부예산이 책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당지 석축공사가 한창인 거돈사지.



◇흥법사지 3층석탑의 최우로는 옥수수밭과 고구마밭이 들어서 있는등 보존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다시 푸는 경서

42장경

(서)
世尊成道已 作是思惟
세존성도이 작시사유
離欲寂靜 是最爲勝
이욕적정 시최위승
住大禪定 降諸魔道
주대선정 항제마도
於鹿野苑中 轉四諦法輪
어록야원중 전사제법륜
度교陳如等五人 而證道果
도교진여등오인 이증도과
復有比丘 所說諸疑 求佛進止
부유비구 소설제의 구분진지
世尊敎勅 ——開悟
세존교칙 일일개오
合掌敬諾 而順尊勅
합장경낙 이순존칙

세존께서는 진리를 깨치고 나서 이렇게 생각하셨다.
'모든 욕심을 여의어 고요하고 고요하니 이것이 가장 으뜸이로다.'

爲四眞道行 成阿羅漢
위사진도행 성아라한
阿羅漢者 能飛行變化 曠劫壽命 住動
아라한자 능비행변화 광겁수명 주동
天地
천지
次爲阿那含 阿那含者 壽終魂靈上十
차위아나함 아나함자 수종혼령상십
九天 證阿羅漢
구천 증아라한
次爲斯陀含 斯他含者 一上一還 卽得
차위사다함 사다함자 일상일환 즉득
阿羅漢
아라한
次爲須陀洹 須陀洹者 七死七生 便得
차위수다원 수다원자 칠사칠생 변득
阿羅漢
아라한
愛欲斷者 譬如四肢斷 不復用之
애욕단자 비여사지단 불부용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세존께서는 법을 설하사 의문마다 일일이 깨우치게 하시니

세존께서는 대선정에 들어 모든 마구니도를 항복 받으시고는 녹야원에서 사성제의 법륜을 굴리시어 교진여 등 다섯 비구를 제도하시니 이들이 아라한과를 증득했다.

비구들이 여러 의문점에 대해 다시 물어옴에 세존께서는 법을 설하사 의문마다 일일이 깨우치게 하시니 그들이 모두 합장하고 경건히 받들어 세존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었다.

(1)
(佛言)辭親出家 識心達本 解無爲法
(불언)사친출가 식심달본 해무위법
名曰沙門
명왈사문
常行二百五十戒 進志淸淨
상행이백오십계 진지청정

'혈연을 끊고 출가하여 마음자리를 요달해 무위법을 깨달아야 사문이라 할 것이다.

항상 250계를 지키고 그 뜻을 청정하게 지켜 나아가면서 사성제의 도리를 수행하면 아라한이 된다.

아라한이란 시·공의 변화를 뛰어넘어 능히 자유자재로이 천지간에 나툴 수 있는 경지에 머문다.

그 밑이 아나함이니 아나함이란 금생에 몸이 떨어지면 마음이 19천에 올라 거기서 아라한이 되는 경지이다.

그 밑이 사다함이니 사다함이란 한번 상천세계에 들었다가 인간세계로 되돌아와 아라한이 되는 경지이다.

그 다음이 수다원이니 일곱생을 다시 태어나서 아라한이 된다.

龍眼

42장경이란 〈사십이장경〉은 8만4천 법문이라는 방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여러 경전에서 선택해 42장으로 간결하게 정리해 놓은 경전이다. 특히 일상의 수행에서 중요한 덕목을 간추려 놓았다해서 선가에서는 근본불교의 사상을 대변하는 〈유교경〉〈위산경책〉과 더불어 '불조삼경(佛祖三經)'의 하나로 꼽는다. 그만큼 불교의 핵심적인 교리를 잘 아우르고 있어 입문서로도 널리 애독돼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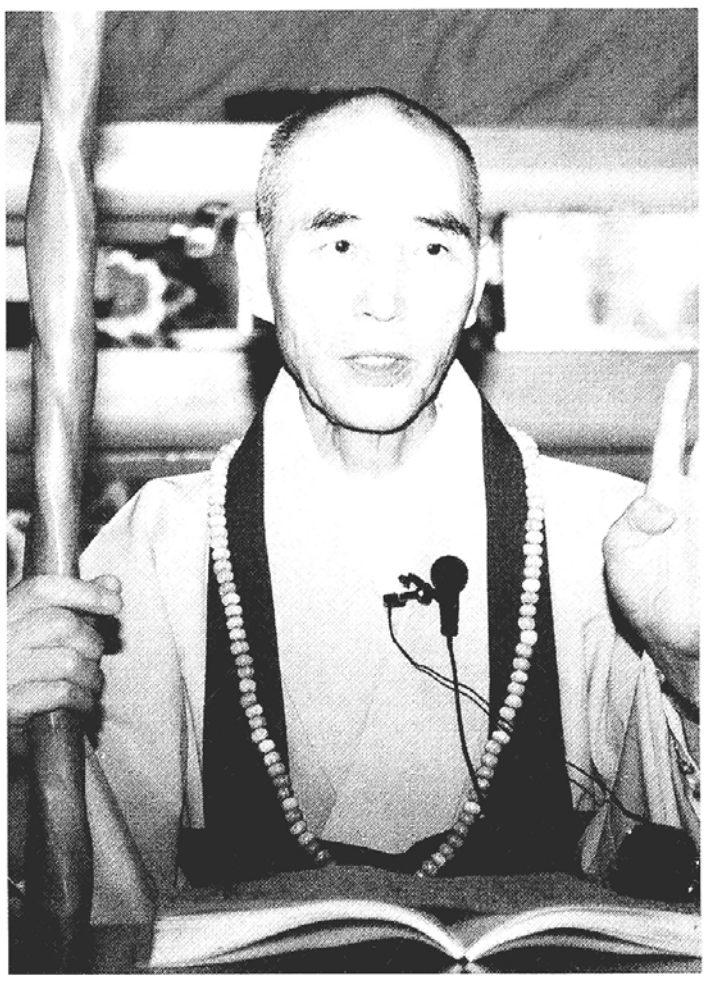
A.D 67년경 인도의 가섭마등(迦葉摩騰)과 축법란(竺法蘭)이 당시의 황제인 효명제(孝明帝)의 보호 아래 번역한 중국 최초의 한역경전으로, 불교의 근본정신을 잘 담고 있어 이본(異本)도 약 10여종에 이른다.

이 경전은 아함의 내용을 가장 많이 담고 있으며, 잡아함이나 〈법구경〉과도 같은 경집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고(苦)·무상(無常)·무아(無我)·애욕의 단절 등 자기 다스림 뿐만 아니라, 자비와 인욕의 실천, 보시의 권장과 참회의 강조 등 대승적인 요소들도 모두 갖추고 있어 매우 교훈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큰스님 수행한담

"이고득락의 으뜸은

법인스님 〈각원사 주지〉



- 1931년 경남 충무 生
- 46년 해인사에서 득도
- 마산공고를 나와 해인대학, 동국대, 성균관대 졸업
- 87년 일본 대동문화대학 문학 박사학위 취득
- 現 천안 각원사, 동경 명월사 주지
- 논문집 〈서산대사의 선가귀감 연구〉 등 다수

아침 저녁으로 저법 쌀쌀하죠. 덕분에 달갑지 않은 감기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몸이 건강하게 유지되는 것은 살아가는 게 있어 매우 보람이 있는 일입니다. 건강해야만 내일을 기약할 수 있고, 남을 배려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육체가 건강하면 정신도 건강하여 정사를 올바르게 판별할 수 있고 이웃의 어려운 사정에도 눈을 돌리게 되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서산스님이 장수하신 얘길 좀 할까요. 1520년(중종 15)에 출생하셔서 1604년(선조 37)에 열반하셨으니 85세의 생애를 사셨지요. 그 당시 85세까지 사셨던 것도 희유한 일이지만 오늘날과 비교해도 대단히 장수하신 셈이지요.

나는 6.25 사변을 겪으면서 부처님 전에 엎드려 기도를 하며 '70세까지 살게 하여 주신다면 남은 생을 부처님을 시봉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라는 서원을 지녀왔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20대 30대 40대 50대를 거쳐왔는데, 내가 서산스님의 〈선가귀감〉 연구로 57세 되던 1987년 3월25일 일본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던 날을 계기로 마음이 조금 변해버렸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5세기 전 음식이나 의료시설 모든게 뒤떨어진 때에 서산스님께서도 85세를 사셨다는데 하는 마음에 70세에서 85세로 성름 15년을 올려버렸습니다.

여러 큘자님들도 80살은 모두 넘기셔야 합니다. 60세까지는 자신과 가정을 위해 열심히 살고 그 후 20년 동안은 가정생활에서 벗어나 걸림없는 자세로 불교를 보다 많은 사람에게 홍포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이땅의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70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공부에 전념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 국내최대 규모의 대웅보전을 갖춘 각원사 불사도 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60세까지는 내 개인 공부를 위해 노력했다면 이제는 남북통일과 남북동포들을 위한 기도와 회향으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입시철입니다. 대학입시, 직장고시… 모두들 마음이 불안하고 조급할 때일 겁니다. 공부가 인생의 전부일 수 없지만 인생을 충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공부라는 방편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학이든 직장이든 그리고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불자님들이건 오늘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어 각자 공부에 전념해 주길 바랍니다.

나는 50여 년전 단잠을 주무시는 어머니를 두고 새벽길을 재촉해 출가했습니다.

타고난 명이 짧아 출가를 하는게 좋겠다는 데에는 어머니와 이견이 없었지만 어머니는 '대처승'이 되길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고 말리시는 어머니의 의견을 못따르는 죄송함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탁발을 온 어느 노스님이 내게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출가란 부처님의 법을 배우고 닦아 도를 이루려는 것이다. 도를 이룬다는 것은 내가 부처가 되어 여러 중생을 건진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도력이 높은 큰스님들이 많으니 출가를 하려거든 제대로 하고 공부도 제대로 해야 한다. 그러니 너도 출가를 하려거든 제대로 출가를 하거라." 그 노스님의 '제대로'라는 말이 아직 귓가에 생생합니다. 요즘 말로 놀이든 공부든 '화끈하게 하라'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공부에 대한 원(願)을 한 번 세워 봅시다. 공부를 잘해서 무엇이 된다는 것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공부해서 좋은 대학과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분명 인생의 전부는 아닐지 몰라도 대학에 들어가야 하고, 직장에 들어가야 하는 지금의 여러분들에겐 공부만이 살길이라고 믿고 발심해 보십시오.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불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출가했을 때는 학생복을 입고 학교를 다니는 젊은 학승들에 대해서는 아주 무시하거나 비판적인 시대였습니다. 속가 공부를 많이 하면 속퇴한다는 우려 때문이었던 같습니다. 그만큼 공부를 한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때 나는 성불은 가부좌 틀고 앉아만 있는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라고 믿고 있었기에 공부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굳힐 수가 있었습니다. 지혜도 지식에서 비롯된다고 생각 합니다. 많이 배우는 가운데 싹튼다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겨울 천막하나에 의지에 책을 보기도 했고, 싼 방을 찾아 한 해에도 수십번씩 짐을 싸야 했지만 공부에 매달려 왔던 지난날들이 지금에도 참으로 보람되게 생각됩니다.

불가에서 부처님은 '똥막대기'라느니, 경전을 읽지 않고서도 자신의 본마음을 깨치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불립문자 견성성불(不立文字 見性成佛)'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부없이 가부좌 틀고 면벽한다고 해서, 또 목탁 요령 들고 염불 독경한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8만4천의 부처님 말씀을 알 수 있겠습니까? 선사들의 '할' 소리에 단박에 깨침을 얻을 수 있는 근기가 수승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른 동물와 달리 '교육적 학문'을 통해서만 본연의 불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도를 이루신 후 45년간 인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설법하신 가르침은 그저 조용하게 앉아 지내기만 하면 모든 일이 여법하게 된다는 가르침이 아닌 것입니다. 자업자득(自業自得)이라는 말과 같이 모든 것은 각자가 행(行)·주(住)·좌(坐)·와(臥)·어(語)·묵(默)·동(動)·정(靜)의 일상생활에서 노력하여 땀을 흘린 것 만큼 소

천가지 경과 만가지 이론 모조리 통달했다 하더라도 실천안하면 소용없어요

송월주 총무원장 스님의 3선 출마에 관한 입장

1) 종정예하의 권위를 훼손한 총무원장 스님은 3선 출마의 자격이 없습니다.

윗사람에 대한 공경이나 예의는 시대를 초월한 금과옥조입니다. 승속을 떠나 건강한 사회를 받쳐주는 버팀목이라 할 수 있겠지요. 그것은 법 이전에 지켜야 할 도덕적 가치로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은 자명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조계종단의 종정은 종단의 최고 어른이며 모든 종도들의 정신적 지주이고 상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계종단의 종풍과 종맥은 종정예하의 종지로 이어가고 있으며 이는 종헌 제1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총무원법 제 4조에서는 집행부와 총무원장은 종정예하에 대한 법다운 예의와 하교의 내용을 종무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점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종정예하께서 직접 종무에 관여하시지는 않지만 조계종단의 종도라면 각별한 예우로 최고 어른을 모셔야 한다는 뜻이 겠지요.

하지만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 금과옥조가 깨어지고 있습니다.

1997년 3월 10일 종정예하께서 사의표명을 하였습니다. 종정예하의 뜻이 종무행정에 반영되지 않아 이를 여러 번에 걸쳐 총무원장 스님에게 당부하였으나 지켜지지 않았기에 예하께서 사의표명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현 집행부와 총무원장스님은 개혁의지의 실종을 계고하고 질책하기 위한 종정예하의 사의표명을 단순한 종정권한에 대한 불만인 것처럼 왜곡하여 언론에 유포함으로서 종정예하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불경을 저지른 것입니다.

또한 사의표명을 한 종정예하에 대한 친견의 예를 회피하다 종도들의 비난이 거세자 마지못해 친견하려다 거절당하는 우를 범하였으며 사의를 표명한 원로회의에 부당한 간섭으로 사의표명 반려를 강요하는 무례를 저지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불기 2541년과 2542년의 부처님 오신날 법어가 없는 봉축행사를 치루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도록 방치하였습니다. 이는 종단의 최고 어른의 뜻을 받들지 않는 독단, 독주행정의 한 반증이라 할 것입니다.

잘 잘못의 책임은 언제나 당사자에게 귀속되는 법, 현 총무원장 송월주스님은 어른으로서 대접받을 자격을 상실하였습니다. 종정예하에 대한 예우를 다하지 않음은 승단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화합을 저해하는 파계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권에 눈이 멀어 또 다시 다음 4년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총무원장스님의 종권에 대한 욕심과 반개혁적이고 부도덕한 행위를 사부대중에게 고발하며 불교의 미래를 위하여 구법의 길로 나설 것임을 만천하에 천명하고자 합니다.

2) 파사현정 애종구법의 일념으로 송월주원장 스님의 3선출마 강행을 반대합니다.

최근 29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3선 출마'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으며 마치 94년 서의현 전원장의 불행했던 역사를 기억하게 하는 듯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우리 학인들의 견해를 밝히고 원로대덕스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전종도들의 피눈물과 학인들의 뜨거운 구종열정으로 출범한 현 개혁총무원은 우리 학인들에게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학인 선배들의 죽음을 각오한 구종열기로 이루어진 현 집행부는 종단발전과 개혁을 위해 속시원한 종무행정을 전개하지 못하였습니다. 어느 원로의원스님께서는 〈크게 잘하지 못했고 그렇다고 크게 못한것도 없다. 그러니 이제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로의원스님의 지적처럼 학인들의 바램은 과거 구종의 단식을 결행했던 마음으로 돌아가 현 원장스님의 결단으로 소모적인 논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개혁회의 입법취지는 종권의 장기집권과 독주방지라는 취지에서 만들어 졌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현 종헌의 해석을 놓고 논란이 진행되는 것에 대하여 종정예하께서 또는 원로회의의 원로스님들이 결정하여 주시면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줄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종단 원로대덕스님들의 교시 이전에 현 송월주총무원장스님이 탐진치 삼독을 버리는 출가수행자의 본연의 자세를 갖는다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현 총무원과 '총무원장 3선출마 반대를 위한 범불교도 연대회의'에서 제시한 변호사들의 세간법적 해석도 해석의 입장에 따라 논란이 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과거 불행했던 정화시대의 소모적인 송사의 악몽처럼 세간법적 해석은 뒤로 승가적 결단으로 종단안정과 화합이 이루어지기를 발원합니다. 학인들의 이러한 순수한 발원과 입장에도 불구하고 개혁회의 이후 직위와 재력을 바탕으로 한 일부 권승들에 의해 종단이 분열과 혼란으로 돌변할 위기에 있다면 학인들은 결코 좌시할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학인들은 종헌종법을 거스리고 3선강행을 기도하여 송월주스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후보추대위는 참회하고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종헌종법을 어기면서까지 얻으려는 종권탐닉은 불법에 어긋나고 종단의 화합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것을 천명합니다.

불기 2542(1998)년 10월 14일

중앙승가대학교 총학생회

큰스님 수행한담

제대로 실천하는 일"



◇1973년 프랑스의 한 수도원에서 좌담회를 마치고 수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가운데 가사를 수한 스님이 법인스님, 앞줄 오른쪽에서 두번째가 스님의 제자인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호진스님

불교는 有神의 종교 아닌 본래 청정한 자성 깨달아 최고의 지혜를 증득하는 종교

6근에 끌려 다니는 삶은 향상 할수 없어 계지켜 욕망 망상 단속하면 슬기 생겨요

득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응보의 사상입니다. 학문적 탐구를 계속하다보면 입시생들은 입시생 나름대로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되고,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성불의 길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지식은 충만한데 삼학을 두루 갖추고 있지 못하면 그것은 교육적 학문에 완성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불교의 절대적이며 근본되는 교리의 골격으로 삼학(三學)이 있습니다. 계(戒)·정(定)·혜(慧)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삼학은 불교를 배워 도를 이루려는 사람이 반드시 닦아야 할 필수의 과정입니다.

러시아의 문호 푸쉬킨은 "양식있는 인간이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가를 신속하게 판단하는 능력을 가진 자"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불교가 지향하는 궁극의 드달점은 '깨달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할 때 푸쉬킨이 말한 '양식있는 사람'과도 상통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으로 싱각됩니다.

'건전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고 했습니다. 정신을 맑고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늘 성찰하고 규범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범이 다름아닌 계(戒)입니다.

계는 산만한 마음을 방지하여 산란하지 않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불교는 신(神)을 존중하여 의지하는 유신(有神)의 종교가 아니라 인간의 본래 청정한 자성을 깨달아 최고의 지혜를 증득하는 자력(自力)의 종교입니다. 마음이 부처라 하였으니 일체만유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을 청정하고 바르게 갈고 닦는데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생들에게는 눈(眼), 귀(耳), 코(鼻), 혀(舌), 몸(身), 생각(意)이라고 하는 6근(감각기관)이 있어 온갖 번뇌망상과 시비가 생겨나고 공연한 분별심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끌려다니게 되면 우리의 삶은 한치도 향상될 수 없습니다.

계란 여섯가지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온갖 부정한 욕망과 망상과 분별심을 단속하는 채찍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청정한 불심을 보호하는 담입니다. 계를 지킴으로써 안정을 얻고 번뇌와 망상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정이란 경거(輕擧)와 망동(妄動)이 없는 평온 정착한 마음상태를 말합니다. 마음의 잡된 물결이 고요히 잠들고 번뇌의 거친 파도가 침잠되어 버리면 잃어버린 자기의 본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은 바른 사고의 기본입니다. 산란한 마음에서는 바른 사고와 몰두가 행해질 수 없습니다. 고요한 마음에서만 온갖 지혜가 샘솟게 됩니다.

혜는 슬기로움입니다. 계를 지켜 고요함의 울타리를 두루고 그 속에서 마음의 안정을 얻으면 그로인해 참된 슬기가 생겨나게 됩니다. 부처님의 절대자유하고 평등무애한 세계로 나아가는 바른 방편은 이것을 빼고나면 없습니다.

〈대비파사론(大毘婆沙論)〉에서는 삼장(三藏)과 삼학(三學)을 적절하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즉 율장(律藏)은 계학(戒學)이며 경장(經藏)은 정학(定學)이며 논장(論藏)은 혜학(慧學)에 대비된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경·율·론 삼장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하여 계·정·혜 삼학을 실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천가지 경과 만가지 이론을 모르는 바 없이 모조리 통달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라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배고프면 밥먹어야 한다는 것을 알기만 하고 밥을 먹는 행위 즉 실천이 없으면 굶주림을 면치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법력난사의(法力難思議)하고
대비무장애(大悲無障碍)로다
나무아미타불(南無阿彌陀佛)

'법력난사의'라는 말씀은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는 참으로 깊고 넓고 높아서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서는 헤아리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다면 합천 해인사에 모셔진 팔만대장경의 경전 속에 기록된 가르침은 우리들이 읽기만 하더라도 일생을 통해서도 모두 읽을 수가 없고, 또한 우리들이 어떠한 노력과 정진을 하더라도 그와 같은 가르침을 실천궁행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비무장애'라는 말씀은 부처님의 근본사상이신 대자대비에는 참으로 장애로움이 없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자대비의 이념을 우리들이 마음 속에 간직하고 직접 현실 사회에서 실천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자제하며, 모든 고난을 헤쳐 나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근본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불교의 가르침은 넓고 큰, 즉 광대무변한 부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을 대자대비심으로 우리 불자들이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실천 노력하는 것이 바로 불자로서 지키고 행하는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중생의 온갖 고통이 어디에 원인이 있는가를 밝히고 그것을 극복할 방법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로 인해 이고득락(離苦得樂)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알기는 많이 아는데 근본 목적인 '행복한 삶의 성취'는 못하고 있습니다. 목이 말라 강가에까지 왔는데 어리석게도 물을 마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백유경〉의 '어리석은 비둘기 남편'의 이야기로 내 얘기를 끝낼까 합니다.

비둘기 부부가 정답게 살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되어 익은 과일을 물어다가 둥지를 가득 채웠습니다. 과일이 마르면서 둥지에 가득 찼던 과일이 반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어리석은 숫비둘기는 암비둘기가 자기 몰래 혼자 먹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숫비둘기는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왜 과일을 혼자서 먹었어?"

"과일을 혼자서 먹다니 그런 터무니 없는 말이 어디 있어요. 과일 맛도 보지 않았는데."

"이것 보라고, 과일이 반밖에 없잖아."

과일을 보니 정말 반밖에 없었습니다. 암비둘기는 절대 자신이 먹지 않았다고 소리쳤지만 화가난 숫비둘기는 암비둘기를 쪼아 죽였습니다.

얼마 후 많은 비가 내려 둥지에까지 비가 스며들었습니다. 그러자 반으로 줄었던 과일이 수분을 함유해 다시 둥지에 가득 찼습니다. 이를 본 숫비둘기는 그제서야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한 번 이 세상을 떠난 암비둘기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와 같습니다. 잘못된 생각으로 탐진치가 우러나는 대로 살다가 세월의 덧없음을 보지 못하고 계율을 범하다가 죽음에 다달아서야 후회합니다.

그러나 이미 지나버린 세월을 매번 후회해 본 들 소용이 없습니다. 어리석은 숫비둘기가 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열심히 정진해 올바른 불자의 길을 걸으십시오.

정리=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나의 수행일기



조돈규

〈서울 경찰청 정보2실장〉

하심 키우는데 매일 108배가 최고 배움 나누려고 금강경 해설서 펴내

불자들의 생활은 수행의 연속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집에 관세음보살님을 모셔놓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몸을 정갈히 하고 108배를 한다. 108배를 하면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자기자신을 낮추는 하심(下心)을 하게되니, 몸도 건강해 지고 마음은 겸손하게 되어 더할 나위 없이 큰 공부가 된다.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를 실천하고자 살아있는 미물에 대하여도 외경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함부로 해치지 않으며, 도로에서 사고로 죽어있는 짐승을 보거나 영구차를 보면 꼭 '왕생극락 하옵소서, 왕생극락 하옵소서'하면서 간절히 빈다.

사무실에는 석가모니부처님을 모셔놓고 항상 마음속으로 호념하며 업무에 임하고 있다. 이렇게 한 덕분에 지난 3월에는 많은 고통으로 인하여 악한 마음이 극에 달한 적이 있었으나 공부가 우선이 돼야겠다는 생각에 전체적 의미와 가르침을 시중에 나와있는 책들보다 상세하고, 친절하게 안내한 해설서를 만들기로 마음을 먹고 작업을 시작했다.

우선 한자 한자 옥편을 찾아 그 음과 뜻을 설명하고, 다시 불교사전을 찾아 용어설명을 덧붙였다. 가끔식 한문해석이 힘들어 다른 관련서적도 찾아가면서 나열식으로 전개해 나갔다. 그러다 보니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았지만 다른 책이나 옥편을 찾지 않고도 혼자서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내 나름대로의 독습용 금강경 해설서의 모습이 점점 잡혀갔고, 〈한글세대를 위한 알기 쉬운 금강반야바라밀경〉이라는 책이 세상에 나오게 됐다.

책 맨 앞장에 '나를 낳아주신 어머님, 지극 정성으로 키워주신 할머님 두분의 왕생극락을 기원하면서 이 책을 바칩니다'라고 써 넣었는데 책이 나오던 날 밤에 어머님 같은 여인이 나타나 '고맙데이'하면서 내게 말을 건네는 꿈을 꾸었다. 새삼 불법의 큰 힘을 실감하며, 더욱 열심히 정진해야 겠다는 마음이 굳어졌다.



그동안 수십종의 〈금강경〉 해설서와 한글경전이 시중에 나와 있기에 그것들과는 다른 나만의 〈금강경〉 해설서를 만들기로 마음을 먹었다. 사실 시중에 나와있는 〈금강경〉은 거의 대부분이 기본적인 한문실력을 갖춘 사람이어야만 제대로 읽고 이해할 수 있었다. 내 대학원 동기 보살들도 대부분 수업시간에 교수님의 강의는 다 알아듣고 이해하는 듯 했지만 막상 경전을 앞에 놓고 읽으면서 설명을 하라면 막막해하기 일쑤였다. 막연히 듣고 이해하는 것과 직접 자기 스스로가 해독해 가며 이해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 보살들 뿐 아니라 요즘 젊은 불자들도 마찬가지다.

〈금강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고 불교경전공부를 제대로 해 나가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이 되는 〈금강경〉 공부가 우선이 돼야겠다는 생각에 전체적 의미와 가르침을 시중에 나와있는 책들보다 상세하고, 친절하게 안내한 해설서를 만들기로 마음을 먹고 작업을 시작했다.

1천부를 만들었는데 나누어 주다보니 사람들 사이에 책이 잘 되었다는 명성(?)이 있었는지 순식간에 동이나 얼마전 다시 1천부를 인쇄해 혹 필요한 분이 있으면 나눠드리려고 여시아문 책방에도 여러권 갖다 놓았다. 앞으로도 능력이 된다면 계속 출판해 여러 사람들에게 널리 법보시하고 싶다.

나는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려있다는 '일체유심조'의 가르침을 좋아한다. 사섭법 즉 보시섭, 애어섭, 이행섭, 동사섭의 가르침도 생활속에서 실천하려 노력하고 있다. 모든 중생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깨쳐 긍극의 경지에서 성불하기를 바라며 불자들이 좀더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데 힘써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끝〉

건국사찰 심야전력기기
시공전문업체 金剛機電

■ 심야전력기기란 :
「한국전력공사」에서 야간시간에 남아도는 전기를 일반전기의 약 1/4~1/10수준으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전기로 일반 기름보일러보다 약 1/3~1/4수준의 난방비로 따뜻하고 쾌적한 24시간 난방을 할 수 있는 전기 보일러, 온돌, 온수기, 온풍기등을 말합니다.

■ 심야전력기기는 목조건물이 많은 사찰의 특성상, 가장 경제적인 난방비로 연료주입, 저장의 불편함이 없고, 화재·폭발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청정난방기기입니다.
전국 각지 여러사찰에 심야전력기기를 보급, 사후관리해온 저희 '금강기전'은 천년을 이어갈 사찰의 '난방공사'에 작은 보탬이 되겠습니다.

"라니냐현상"으로 길고 춥다는 올겨울
山寺의 겨울난방준비는 金剛機電으로…

▸ 심야전기 보일러
기존 기름보일러와 교체공사만으로 값싼 심야전기 난방을 할 수 있습니다.
▸ 심야전기 온돌
보일러실이 필요없고, 열손실이 없고, 동파의 염려가 없습니다.
▸ 심야전기 온수기
미리 저장된 온수를 사용함으로 추운 날씨에도 많은 양의 온수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심야전기 온풍기
화재의 위험이 없고 깨끗한 실내 공기를 유지함으로 아무법당 난방에 적합합니다.

심야전력기기전문업체
금강기전
于 430-043
본사 : 경기도 안양시 석수3동 774-5
전 화 : 0343)468-7200(代)
영업부 : 0343)445-6090
FAX : 0343)445-3370

"심야전기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바로 전화 주십시오"
■ 문의전화 ■
0343)468-7200(代)

氣 치료 능력 전수

수년 혹은 수십년씩 기공 수련을 해야 가능했던 氣 치료 능력, 氣 응용 능력이 비법의 체발견과 그 과학화에 힘 입어 누구나 발휘할 수 있는 일로 바뀌었다. 레이키(REIKI : 靈氣)요법이 그 비법이다.
레이키 요법은 그 비밀성으로 인해 전승이 끊겼던 티베트 밀교의 한 비법이 20세기 초엽에 일본의 수행자 우스이 미카오(1865~1926)씨에 의해 재발견된 후 미국으로 전승되어 미국에서 1970년대 후반부터 그 방법이 과학화, 표준화, 체계화, 간략화되면서 1980년대부터 영국 등의 의료선진국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세계화되고 있는 氣 치료법, 氣 응용법이다.
국민 대다수가 건강 불안과 생활불안을 안고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더욱 간편하고 더욱 효과적인 건강법과 생활술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는 것이 레이키 요법이다.
이 레이키 요법은 자격있는 레이키 마스터에게서 전수만 받으면 누구나 단시일내에 氣 치료능력자, 氣 응용능력자가 될 수 있는 비법중의 비법이다.

⊙레이키 요법의 전수 절차
레이키요법의 전수는 모두 3단계로 이루어지며, 총소요일수는 5~10일 정도이다. 필요하면 이 기간을 훨씬 단축할 수도 있다.

⊙레이키 요법의 전수 대상자(4세~83세)
① 스님을 비롯한 성직자와 의사등의 의료직 종사자
② 남에게 좋을 일하며 살기를 원하는 분
③ 새로운 직업(레이키 요법가)을 가지려는 분
④ 만성병을 스스로 치료하고 다스리려는 분
⑤ 만성병을 앓는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자녀
⑥ 가정과 사회를 평화롭고 운세좋게 하려는 분
⑦ 자기와 우주, 이 세상과 저 세상, 명재계와 암재계가 한 덩어리임을 깨달으려는 분

⊙레이키 요법의 응용
① 음식물, 물, 약, 씨앗, 사료등에 氣를 넣는데 쓰인다.
② 감정, 마음, 카르마(업), 유전적 요인, 생활습관, 행동장해 등을 개선하고 영성을 개발하는 데 쓰인다.
미용효과 단식효과를 올리는 데 쓰인다.
③ 원격치료, 동식물의 치료, 환경을 정화하는 데 쓰인다.
④ 소망성취, 미래에 일어날 일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데 쓰인다. 기타 응용분야가 무궁무진하다.

레이키마스터 번역 저술가 박희준 (朴熙俊)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89 피어선 B/D
한국레이키요법 연구학회 (02)720-5682, 725-2311

난치병치료안내

수백년 비전된 한방의술로 난치병을 치료한
고봉거사는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우리 농산물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후 3년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 천식, 신경성위장병, 신부전증, 관절염, 백혈병 초기 등 탁월하게 치료됨

※ 당뇨 뚱뚱한 사람은 3개월만 복용하면 20kg이 줄면서 치료됩니다.

※ 난치병 지리산 요양원이 설립되었습니다.

익수영진고
경옥고보다 10배이상 우수한 약효력, 9일간 밤낮으로 불로 다려서 만듬.

왕기치신환
한국에서 유일하게 1200년전 당나라 선도의술의 의성 주진형의 놀라운 비법 알약
※ 100% 우리 농산물로 가공

늦은 가을 전통죽염, 최고급 죽염간장 출시 예정

※ 의사인 고봉거사, 지리산 토송자 신선도인, 인체공학박사 등의 왕진, 출장도 안내합니다.

◆ 문의전화 : (011) 808-8880
(왕진, 출장) (053) 655-3027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한
반야심경





운장법사의 초능력적인 「신비의 禪筆」 최초로 공개.
⊙신기·영기를 발하는 佛자 달마그림, 龍자그림 (수맥파 차단)
특별보시!

특전
전수중 일정한 기간에 불교문화원 회원과 한국불교 선묵가협회 초대작가로 추천함.

정통으로 배우는 서예 사군자 달마 佛字, 龍字그림 전수자 수시모집!!

한국 수맥파 방지 총연합회 인증 100% 효과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생명의 전화 : (주)(02)242-0331,242-0255
(야)216-0307, 011-471-1996

●주문 신청방법 국민은행 042-21-0582-499 조정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韓國佛教藝術文化院
韓國佛教禪墨家協會

"지금도 도의-만해스님 선풍이…"



◇남북통일을 염원하며 신흥사에 조성된 통일대불. 신흥사는 통일기원의 도량으로 자리잡고 있다.



◇문마다 독특한 꽃살문양이 일품인 신흥사 극락보전.



◇한계령 초입에 위치한 한계사지는 백담사의 전신이다.

월 1회 연재

백두대간 숨결 듣는다

→8←

설악산

'98 사진영상회 제

"한가위에 덮힌 눈이 하지에 이르러서야 녹는다"(동국여지승람), "산마루에 오래도록 눈이 덮히고 암석이 눈같이 희다"(증보문헌비고), 옛 사람들은 설악산이 그 이름을 얻게 된 사연을 이렇게 적고 있다.

강원도 인제군과 고성군, 양양군, 속초시를 끌어보며 금강산에 비견되는 절경으로 솟아 있는 설악산. 남한에서는 한라산과 지리산에 이어 세번째로 높은 설악산(1708m)의 암석들은 가을 치장에 여념이 없다. 최고봉인 대청봉과 북쪽의 마등령, 미시령, 서쪽의 한계령으로 이어지는 설악산엔 골골마다 진홍의 단풍들이 시나브로 타오르고 있다. 동으로 흘러드는 남대천이나 서쪽으로 내달리는 북천과 한계천의 물빛은 나날이 짙어가는 단풍이 투영되어 풍덩 빠져들고 싶은 충동까지 준다. 논객들에게 '절세의 미인'이라는 찬사를 아끼지 못하게 하는 설악산은 일상에 지친 사람들의 발길을 끌어당겨 삶의 새로운 자양분을 주는 역할 만으로도 우리민족에게 더할없는 보물로 자리잡아 온지 오래다.

백담사 참배객들 민족정신 배워
신흥사 통일염원 도량으로 부상
설악문화제 33년째 개최…99년 '관광엑스포' 기대

대청봉에 올라 굽어보니
아,
온통붉게 불타는 단풍
하늘바다 물굿불굿
깊고 깊어라.

이대로 탄식 감탄만 하고
돌아갈 수는 없다.
이왕 마음 내킨 김에
설악산을 통채로
등허리에 걸머지고
내려 왔다.

(중광, 1998. 10. 12)

일명 '걸레승'으로 세상을 풍미하다 이제는 설악의 깊은 자락에 들어 이름마저 농암(聾庵)으로 고쳐버린 중광스님. 허리춘에 걸머지고 내려 오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아름다움이 설악산의 가을인가. 백담사 계곡 20십리 깊이 단풍객들의 발소리로 분주하니 귀닫고 들어 앉은 암자의 주인(聾庵)안들 붉게 물들지 않겠는가.

7차례 화마 겪어

설악산 백담사. 근대 민족정신의 선구자이자 고철한 수행의 표상이었던 만해스님의 정신이 백담사에서 새로운 세기의 풋대처럼 나부끼고 있다. 만해기념관과 교육관이 문을 열고 해마다 만해시인학교도 열리고 있어 스님의 사상과 문학이 맥을 잇고 있다.

내설악의 첫 관문인 백담사는 7차례의 화재를 겪으며 자리를 옮기고 이름을 고쳐부르며 지금의 자리에 정착된 사찰이다. 백담사의 전신은 한계사(寒溪寺)였다. 한계사는 자장스님이 647년에 지은 절인데 창건한지 50년만에 불타고 다시 중건됐다. 다시 중건된 한계사 역시 70년을 넘기지 못하고 또다시 화재를 당했다(785년). 이때부터 일곱번의 화마를 피해 자리를 옮겨가며 사맥(寺脈)을 이어 와 정조 7년(1783)부터 백담사로 불리게 됐다. 백담사란 이름에 못을 뜻하는 담자가 든 것도 거듭되는 화마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 전한다.

백담사의 전신이라 할 심원사 운흥사 영취사 등에대한 사적은 현재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첫 이름인 한계사라는 남아 있다. 용대리 삼거리에서 한계령을 오르는 초입의 장수대 좌측 150여 미터 지점, 설악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숨하게 오가는 고갯길 옆에 한계사지가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사지를 찾는 사람은 거의 없다. 차르 이동한다지만 장수대 휴게소 바로 옆이라 안내판만 잘 갖춰져 있어도 한계사지는 그렇게 쓸쓸한 가을을 맞지 않을 것이란 느낌이 입맛을 씁쓸하게 할 뿐이다.

한계사지(강원도기념물 제50호)에는 주춧돌, 가단석, 3층석탑등이 전해지고 있다. 통일신라 시대의 화려한 조각 수법을 비롯 고려대의 솜씨까지 다양하게 엿보이는 것은 한계사가 여러차례 중건을 거듭했음을 알리는 대목이다.

외로운 한계사지

백담사를 거쳐 오세암과 적멸보궁 봉정암으로 오르는 불자와 관광객의 발길도 끊임이 없다. 무엇보다 봉정암은 우리나라 최북단 보궁으로 날마다 법당이 비좁으리만치 많은 기도객이 찾아 영원의 향을 사르고 있다.

오늘날 설악산을 대표하는 사찰은 신흥사다. '신흥사 사적기'는 자장율사가 진흥왕 6년(652)에 향성사와 계조암 등 불교를 도입한 도의선사의 부도(보물 제439호)와 3층석탑(국보 제122호)가 남아 있는 진전사지와 3층석탑(보물 제444호), 석등(보물제 445호), 홍각선사탑비(보물제446호) 부도(보물 제447호)가 남아 있는 선림원지도 빼 놓을 수 없는 이 지역의 불교 유산이다. 진전사지 인근에서는 자현스님이 진전사 복원 원력을 세우고 대웅전 건립불사를 추진하고 있다.

주민합심 용왕제 봉행

답사기행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이들 사지는 도의선사의 체취가 고스란히 스며 있다. 특히 선림원지에서 1948년에 출토된 신라동종은 이웃해 월정사로 옮겨졌다가 6·25전쟁때 소실되고 파편들만 국립중앙박물관에 전하고 있어 아쉬움을 남긴다. 선림원지로 가는 길 옆의 현서분교 운동장 한켠에 모셔진(1964년 교사와 학생들이 옮겨 놓았다) 서림사지 석불좌상과 3층석탑도 오랜 세월 방치되었던 유물이다.

속초시가 해마다 벌이는 설악문화제는 올해로 33회를 넘기며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설악산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 설악문화제는 산신제, 용왕제 등 산과 바다에 의지해 사는 사람들의 축제지만 지역문화의 근간을 이뤄온 불교 역시 존중되고 있어 매년 제등행렬을 빠뜨리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속초시는 내년에 99관광엑스포를 열 예정이어서 설악권의 불교를 보다 효과적으로 국내외에 알리기 위한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이 이 지역 사찰들의 숙제로 남아 있다.

글=임연태 기자(ytlim@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ybgo@buddhapia.com)



◇만해스님의 정신을 현양하는 중심도량 백담사. 관광객들이 백담사 만해기념관을 둘러보고 있다.



◇신라 선불교의 중흥도량이었던 선림원지의 금당터.

■양양군 지역문화재 알리기 앞장

초등생 문화유적 탐방 인기



◇양양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진전사지 3층석탑 앞에서 탑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고압송전탑과 음식점으로 사지의 면모가 손상되고 있는 잃어버린 진전사지. 올 가을 매일 오전마다 찾는 버스가 한대 있다.

양양군청 소속의 이 버스에는 4)여명의 초등학생들이 타고 있다. 사지에 도착한 어린 학생들은 고사리손에 수첩과 연필을 들고 국보 제 122호인 진전사지3층석탑 앞으로 모여든다. 군청 학예연구사 전유길씨가 알아듣기 쉽게 탑의 명칭과 의미들을 소개할 때마다 한 마디라도 놓칠세라 열심히 받아 적는 모습이 대견스럽다.

양양군청(군수 오인택)이 작년부터 운영하는 '우리지역 문화유적 탐방' 프로그램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양양군은 작년 문화유산의 해를 기념해 지역 여성단체들을 대상으로 문화유적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해 700여명이 참가했다. 행사에 대한 반응이 좋아 올해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차량과 점심을 제공하며 운영하고 있으며 각급 학교에서도 "너무 고마운 일"이라며 적극 협조를 하고 있는 것.

탐방지역은 진전사지와 선림원지, 오산리 선사유적지, 범부리 고인돌을 기본으로 하고 학교가 요청할 경우 다른 곳도 탐방을 한다.

안내차로 나서고 있는 전유길 학예연구사는 "우리 지역의 문화재에 대한 자부심을 나누는 기회가 없었던 탓인지 각계에서 대단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양군은 올 가을 각급학교와 학부모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관내 군부대가 협조할 경우 장병들에게도 문화유적 탐방의 기회를 만들어 줄 생각이다. 군부대가 많은 지역적 특성을 이용, 전국에서 온 젊은이들에게 양양의 문화유적을 알리는 일도 필요할 것이라는 지역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용성스님 어록



세상 사람이 다만
목전(目前)의 일만
알고
도대체 자기의 중대한
사건은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죽어서 못보는 것은
그만두고 지금 살아서
그대가 그대를 보는가?

협찬 대성사(583-1475) · 대각사(765-0972)
경주 천룡사(0561-748-8815)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법공양 페이지

마음 광대무변한 걸 진실로 믿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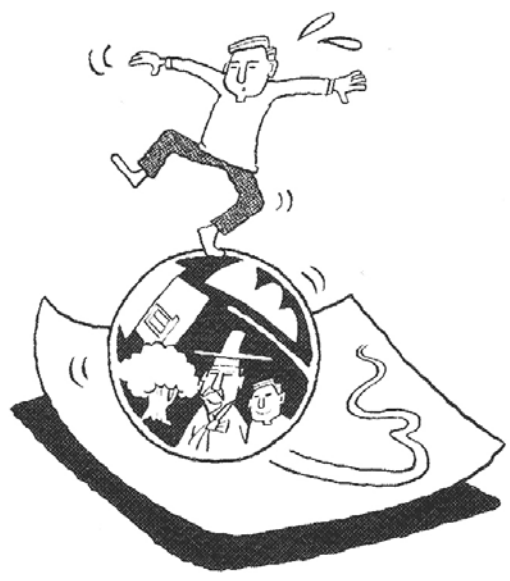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밖으로 낼땐 천백억 화신 들일땐 한마음
삼보 귀의는 자성삼보에 귀의한다는 뜻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한자리를 하는 것은 서로 돕고 서로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은 고등동물이기 때문에 그대로 여여하고 그대로 부처이며 또 그대로 세상이 아주 즐겁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그 한 찰라의 백지를 뛰어넘지 못해서 너그럽지 못하고 편안하지 못하고 또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쓸 줄을 모릅니다.

전자의 선지식들이 주장자를 들고 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초월한 것도 없고 초월하지 않은 것도 없으며, 큰 것도 없고 작은 것도 없다고요. 그리고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장자로 치는 그것만 봤지 그 뜻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행하지 못해서 항상 굶주리고 궁핍하게 살지요. 듣고 보고 행하는 그 세가지를 따져본다면 우리는 항상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는 놈도 그놈, 크다고 하는 놈도 그놈, 작다고 하는 놈도 그놈, 나와 더불어 상대성에서 둘이 아니게 돌아가는 것도 바로 그놈인 줄 알게 될 겁니다. 그놈이라는 건 결국 나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죠. '나'를 과거 미래 현재로 따져서 말입니다.

보세요. 나조차도 고정된 게 없어서 찰나에 어버지가 됐다가 남편이 됐다가 아들이 됐다가 사위가 됐다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일거수일투족 행하고 돌아가는 모든 것이 바로 고정됨이 하나도 없다구요. 보고 듣는 것과 가고 오는 것과 말하는 것도 모두가 고정된 게 하나도 없어서, 그더로 찰나찰나 화해서 돌아가는 만큼, 시공이 초월했다는 언어조차 붙지 않는 자리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관습에 매달리고 습성에 매달려서 번연히 이론으로는 알면서도 실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생활을 하나가면서 내가 어떤 것을 할 때 나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몸땅 그 자리에다 놓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놈이 행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전부 놓지는 못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더라면 아무것도 없이 무효인 것을, 여러분이 잘났든 못났든, 못살든 잘살든 간에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세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나로부터 세상이 벌어졌다는 것이 확증이 돼야 내가 스스로 부처라는 걸 믿고 또 내가 스스로 부처임을 믿었다면 내가 스스로 법을 행하고, 그렇다면 내가 바로 법신이니까 스스로 법을 정해서 활용하고 이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공부를 할 때 바깥에 끄달리고 부처님한테 빌어야 하고, 또 안되면 부처님 원망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을 내가 한마음으로서 끌어 안으면 어떻습니까? 일체제불을 다 끌어 안으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삼보에 귀의한다' 라고 하지만 그게 결국 자성삼보에 귀의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없으면 전체가 없는 거니까요. '나'라는 것은 체가 없는 물건 아닌 물건이거든요. 그러니 체는 내 체요, 법은 내 법이요, 불성 즉 종성은 바로 내 종성이죠. 그러니 자성삼보에 귀의하라 하는 이유는 모든 것은 내가 있으니까 생겼고, 모든 법이나 행하는 것도 모두 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일체가 말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만 법이 아니라 안 믿는 것도 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믿는 것과 안믿는 것조차 모두 내 자신 한테서 나왔기 때문에 둘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모두를 생각할 때 여러분께서 배우는 것도 그 자신이요, 번뇌를 끊는 것도 자신이요, 또는 이루는 것도 자신이요, 귀의하는 것도 자신 아닙니까? 삼보에 귀의하는 것 말입니다. 우리에게 육근이 있어서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고 하는 전부도 그놈이 있음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그 마음이 딴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서 상대를 건질려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그 속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내가 아닌 게 하나도 없고, 내 아픔 아닌 게 하나도 없고, 내 도량 아닌 게 하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름을 부처님이라고 했고 여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뿐입니까? 내 몸 속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더불어 같이 살지요. 더불어 같이 수억겁을 통해서 굴러 나왔거든요. 그러니 모든 것이 내 아님이 없이 초월해서 그냥 돌아가는데 무엇이 거기에 붙을 게 있습니까? 그냥 돌아가는데, 붙는다는 건 우리 마음의 차원에 따라서 붙고 안붙는 차이가 있을 뿐이죠.

나는 항상 생각할 때 그 간단한 이치를 왜 그렇게 실천을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야심경에도 뜻으로 풀어놨지만 이 세상 만물의 이치가 고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가정에서 아버지가 됐다가 아들이 됐다가 남편이 되고 이러는데 고정된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자동적으로 돌아간단 얘깁니다. 자동적으로 화해서 금방 아들로 화하고 금방 남편으로 화하고 금방 형으로 화해서 나툰다 이겁니다. 금방 변해서 나투어서 딴 걸로 바뀐단 얘기죠. 이렇듯 우리 세상만사 살림살이가 그렇게 돌아가는 것인데 내가 임금이라고 할 때 '나'라고 하겠습니까? 중생이라고 할 때 '나'라고 하겠습니까? 또 내가 남자라고 할 때 '나'라고 하겠습니까? 여자라고 할 때 '나'라고 하겠습니까? 하여튼 뭐든지 내가 될 때에 '나'라고 내세울 게 하나도 없지요.

내 몸뚱이 속에 있는 중생들도 위가 '내 위공장'이라고 하겠습니까? 장이 '내 장공장'이라고 하겠습니까? 척추가 '내 척추공장'이라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통틀어서 같이 더불어 살고 같이 한 몸뚱이가 돼서 살고 있으니 나다 내가 아니다 할 수 없는 문제죠. 그래서 공(空)했다고 하는 겁니다. 공해서 찰나찰나 화해서 돌아가면서 나투는 것이 인간살이죠. 이것을 알면 내가 했다 내가 망했다 하고 세울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업이 붙을 자리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더불어 같이 돌아가니까 업이 붙을 자리가 없는 거죠. 내가 했다고 세울 게 없고 내 거다 하고 세울 게 없고 내가 나서서 했다고 세울 게 없는 자체가 바로 한 개체인 것을요. 그래서 사성제니 육바라밀이니 팔정도니 하는 것을 다 그냥 통틀어서 '모든 것은 당신 자신이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화엄경〉에도 있듯이 부처님께 어떤 것이 평등한 여래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최초에 한마음으로 출현했단 말입니다. 어떤 것이 평등한 중생들인가를 물었을 때도 그 또한 같이 한마음으로 출현했으니까 평등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봤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이게 웬 니까? 세계를 돌아다녀봐도 자기 자신을 먼저 봐라, 자기 자신을 먼저 믿어라, 자기 자신을 먼저 알고 행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데는 한군데도 없어요. 이론으로만 '너를 먼저 찾아라' 했지 진실로써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모든 걸 타의에서 구하게끔 해놨어요. 그렇게 말들을 하고 그렇게 말하는 걸 듣고 가고 있어요. 기독교든 가톨릭이든 다요, 그렇다고 해서 불교는 빼놓는 게 아닙니다. 불교 역시 그렇구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지금 어느 주머니에서 살고 있는지, 그럼 우리가 또 미래로 가서 어느 주머니로 나오는지 이것을 알아야죠. 그래야 우리가 한 백짓장 사이를 뛰어넘죠. 우리 마음은 하나도 고정된 게 없다는 것만, 이 세상살이가 내놓을 게 없어 어떤 것 할 때 내가 했다고 내놓을 게 없다는 것만 알면 공한 이치의 진리를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빠르고 좋은 것을 왜 그렇게 무시하고 얽매이고 끄달려야 됩니까?

한가지 눈물 나오는 것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만 인생이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이 그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애를 태워야합니까? 인생이 이 모습을 가지고 망망대해에 배로 떠 있는데 그 떠있는 배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체가 없어서 바다도 없고, 배도 없고, 가고 옴이 없고, 그 가고 옴이 없는 까닭에 여여하게 가고 옴이 없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이 주머니 속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타의로만 배운다면 이 주머니 속을 떠날 수 없을 것입니다. 내 몸통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 공기주머니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이 공기주머니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또 다른 모습으로 이 주머니에서 뱅뱅 돌다가 몇 생 아니 세세생생을 아마 이 주머니에서 돌게 될 겁니다.

사람으로 세번을 연거푸 태어나야 진짜 부처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든 그 살던 습이 있어서 그 모습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 착을 갖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은 사람 모습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뱀은 뱀의 모습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모두 살던 습에 의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내세울 게 없다는 자체를 바로 알고 자기가 텅 빈 그 자체이며 그냥 공했다고 생각을 할 때엔 세상법이 그대로 즐겁고 내일 죽든지 금방 죽든지 상관없이 여여하게 살 것입니다. 그렇게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은 굶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죽이지도 않고 또 가정을 망쳐지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건 왜냐? 집에 주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몸 속에 주인이 있기 때문에 항상 자기 몸을 이끌 때 잘못가는 길도 잘되는 쪽으로 스스로 이끌어서 가게 만듭니다. 여기 주인이 있어서 잘가게끔 하는데 왜 잘못갑니까? 그것은 내 주인을 스스로 진실로 믿고 안믿는데 달려있는 겁니다.

또 진짜 주인이 있나 없나를 따지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야 물어볼 것도 없죠. 왜냐하면 자기 주인없이 움죽거리고 말하고 보고 듣고 이렇게 살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송장이죠. 의학이든 과학이든 천체물리학이든 철학이든 뭐 어떤 거든지 다 그 한마음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마음 없이 이루어지고 만들어지는 것 어디 보셨습니까? 한마음 속에서 분리해서 필요에 따라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는 거죠. 천차만별로 나투어서 말이죠. 쓰임새에 따라 밖으로 낼 때는 갖가지로 천백억화신으로 나가지만 안으로 들일 때는 한마음으로 들인단 말입니다. 한군데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예를 들어서 자가발전소가 하나라면 그 발전소에서 전력이 다 나갑니다.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여지는 전력이 전부 한 발전소에서 나간다구요. 전력은 가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실천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력이 나가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할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내 다음이 그렇게 광대하고 무변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믿어야 됩니다. 자기의 공한 그 가운데서 출현하는 그 마음들이 얼마나 광대하고 무변한 묘법인지 여러분은 아마 실천을 해봤더라면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그렇게 실천을 한다고 해서 남을 무시하거나 '내가 이만하면 되겠지' 또는 '내가 이만큼 아는데' 이런 것도 안

☞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악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의 불교 (188)

자기를 버리면 업으로부터 자유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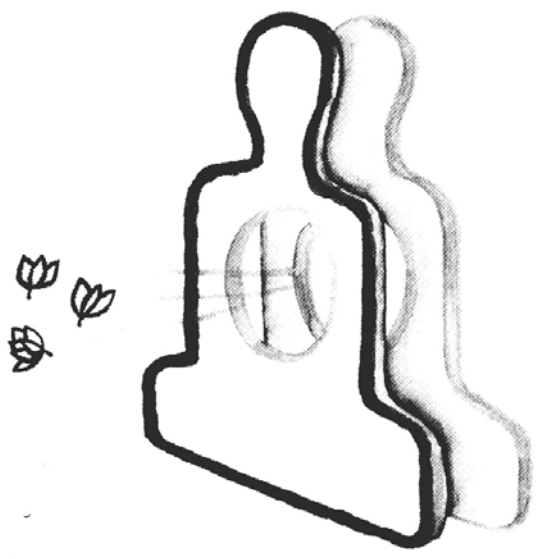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비유하여 녹음테이프가 재생되는 그것과 닮았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전생에 녹음된 것들이 연이어 경계로 다가오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필연이다. 그것에 일일이 오욕칠정으로 응하다 보면 다음에 다가올 업을 재녹음하는 것이 된다.

그렇지만 다가온 경계 그 자리에서 놓고 쉰다면 어떻게 될까? 무심하게 경계를 맞고 보내면 녹음테이프를 지우는 것과 같아 공테이프가 되지 않겠는가? 이미 녹음되었던 것은 다가온 경계로서 끝나고 더 이상의 녹음은 없게 될 것이다.

카르마(업)의 법칙엔 예외가 없다. 행위라는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 개별적으로 사정을 봐주는 일도 없고 정상참작이라는 것도 없다. 그것은 마치 메아리처럼 행위자에게 되돌아 온다. 행위라는 작용과 결과라는 반작용은 반드시 짝을 이룬다. 홀로 되는 법은 없다. 선한 행위는 선한 결과와, 악한 행위는 악한 결과와 동전의 앞 뒷면처럼 맞닿아 있다. 그러기에 지금 내게 다가온 모든 경계는 싫든 좋든 내 행위의 결과로 보아야 한다. 그 언젠가 내가 짓고 내가 행하고 내가 생각했던 일의 결과가 지금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그것으로부터 도피할 길은 없다. 다가온 경계가 아무리 괴롭고 싫은 것이라해도, 또 그것을 모면하고 싶은 마음이 아무리 끓어 오르더라도 그로부터 도망치거나 벗어날 길은 없다. 닥친 것은 닥친 것대로 제 값을 치루고 넘겨야 한다. 내 것이기에 남에게 전가시킬 수도 없고 남보고 대신해 달라고 할 수도 없다. 설사 현실에서 그렇게 한 듯이 보일지라도 그것은 다만 다른 형태의 '행위-결과'라는 새로운 카르마의 씨를 뿌린 것에 불과하다. 이른바 녹음테이프에 덧씌워 녹음한 것과 같다.



카르마의 법칙에 예외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가능하면 선행을 쌓아야 한다. 그 법칙을 아는 한 선업-선과보의 길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 않다면 세세생생 삶이 괴롭고 고통스러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가지 문제가 있다. 무엇이 선행인가? 선행의 기준은 뭔가? 그것은 때로는 우리들의 지적능력, 관별기준을 넘어선 문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의 분명한 기준이 있다. 무엇이 선행인지 잘 모른다해도 우리에겐 부처님의 가르침, 경전의 말씀이 있다. 말씀을 따라 배우고 실천하기. 이것은 카르마의 법칙 속에서 삶을 개선하는 최저의 준칙 또는 최선의 선택이 된다. 지금부터라도 그렇게만 한다면 이미 녹음된 것이 무엇이든간에 나의 삶엔 서서히 햇살이 비치기 시작할 것이다.

가르침 중에 가장 으뜸인 것이 있다. '비움'이다. 비움은 무엇과도 비견키 어려운 최고단계의 작업이다. 우리들 중 누구라도 이 '비움'을 통해 최고의 단계인 붓다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이른바 카르마의 법칙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의 경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공테이프와 같다. 카르마의 법칙은 있으되 카르마의 구속력이 없는 그야말로 대자유의 경지로 갈 수 있는 것이다.

비움이란 곧 자기를 버리는 것이다. 자기를 버린다 함은 어떤 행위에서든 '나'라는 상을 비워내는 것이다. 나의 행동 나의 느낌 나의 생각이라는 그 자리에서 '나'를 빼어버리고 다만 행동 그자체로 남는 것이다. 다시말해 나의 행동 느낌 생각에 스스로 묶이지 않음이다. 업이란 스스로 지은 행위 느낌 생각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묶임으로써 그 결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없음을 말한다. 이른바 자기 생각에 자기가 걸리고 자기 느낌에 자기가 걸릴 때 우리는 스스로를 구속하는 카르마의 법칙에 얽매이게 되는 것이다.

비움은 자기를 버리고 대신 본래의 성품이 발현되게 하는 일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카르마의 구속력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고자 함이다. 비움은 구속과 자유의 갈림길이다.

"앞도 없고 뒤도 없이 놓고 나갈 때 비로소 앞생각도 끊어지고 뒷생각도 끊어져 놓는다는 생각도 없이 무심으로 놓고 가게 된다. 비로소 어디에도 걸림없는 도리를 알게되고 함이 없이 하는 도리도 알게 된다."

협찬 : 이 장 욱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바퀴 중심은 구르지 않고 힘만 배출

☞ 15면에서 계속

됩니다. 부처님은 제일 최상승 꼭대기에 올라가셨어도 올라간 게 없다고 하셨습니다. 왜냐? 맨 아래 지옥에서도 부처님이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도리를 아신다면 이 세상에서 내가 잘한다고 내세울 게 있겠습니까?

나는 그전에 그랬습니다. 돌아다보면 너무나 불쌍하고 기가 막힌 일이 많았는데 그 뒤에 또 생각을 하니까 '허허, 내가 한 게 뭐 있다고, 내가 이 세상에 그냥 나온 게 어디 있어? 내가 나온 것도 없고, 내가 한 것도 없고, 내가 가는 것도 없고, 내가 사는 것도 없고, 그냥 그대로 여여하게 물처럼 살고 있는데 내가 했다 해서 애달파 할 일이 뭐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보세요.

그 물이 물처럼 살고 있다고 해서 물이 돗하는 게 있습니까? 모두를 먹여 살리고 있고 구정물이 들어오든 흙물이 들어오든 핏물이 들어오든 고름물이 들어오든 다 한마음으로 한바다로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채찍질을 할 땐 여지없이 채찍질을 하고 말입니다. 또 아주 맨 밑바닥의 생물까지 살리기 위해서 한번씩 뒤집기도 하고 말입니다. 한번씩 뒤집어 놔야 생물들이 다 살 수 있거든요. 바다 맨 밑바닥까지는 태양열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요. 또 뒤집어 놓지 않으면 먹을 거리가 모자라 다 먹고 살 수도 없으니까 그렇게 자동적으로 된다는 것. 그래서 물이 여러분을 볼 때 '나 같이만 산다면 근심걱정이 없을텐데' 이럴 겁니다. 산을 보십시오. 산이 저렇게 우뚝 서 있어도 말입니다. 사람들이 죽고 살고 또 죽고 살고 이래도 산은 그대로 묵묵히 내려다보고 있잖아요.

우리 사는 자체가 마음의 탓이지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그러니 마음으로 수행을 해야지 육신으로 수행을 한다면 몸뚱어지면 수행도 떨어지게 되죠. 말을 잘한다구요? 말 잘하는 것도 몸 떨어지면 입 떨어지고 말도 떨어지는 걸요. 뭐가 남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내 근본에서는 세세생생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든 수레바퀴 같이 돌아가죠. 바퀴가 돌아가는 데는 중심이 있어야겠죠. 중심이 있으면 중심은 움죽거리지 않아도 힘이 있기 때문에 힘을 배출하고, 그 힘으로 바퀴는 밖으로 이탈하지 않고 구를 수 있어요. 사람으로 비유한다면 사람의 근본이 바로 저 심봉이라면 그 심봉을 믿고 거기다가 다 맡겨 놓아야 모든 것이 돌아가니 사실 맡긴다 안맡긴다 라는 언어가 붙지 않죠. 심봉이 끼워져 있으니까 바퀴는 그냥 자동적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우리 살림살이가 이미 그렇게 돼 있는데 심봉을 믿고 가면 되지 왜 딴 생각을 합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껄껄 웃음이 나올 수 있어야 무난히 돌아가죠. 내가 힘이 없으면 웃음은 커녕 얼굴이 찌푸려지고 한숨이 나오고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에게 심봉이 있어서 그 힘을 가졌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전체 바퀴가 굴러가게 할 수 있는 힘 말입니다. 그 힘은 어떻게 굴러가든지 항상 힘이 되어줍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쓰고, 어떻게 행하고, 또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주머니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구요.

그럼 질문하십시오. 여러분이 다 나와 더불어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나는 빼놓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나도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이 없으면 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서로 도반입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문 스님 법문을 듣고 공부하면서 모든 것을 둘로 보지 않고, 항상 근본 마음자리에서 돌리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잘 되지 않고 오히려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 남에게 잘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 또 남이 잘 되면 기뻐하기 보다는 오히려 시기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런 점을 알면서도 잘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스님께 여쭙습니다.

답 내가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거든 '시기 안나게 하는 것도 너 아니야' 하고 놓으세요. 또 즐거운 마음이 생기거든 '즐거운 마음을 내게 해서 참 감사해' 하고 놓고요. 그래서 양면을 다 거기다가 놓으라고 그랬죠. 이게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나의 근본을 믿으면 스스로서 잘되게 이끌어 갑니다. 우리 몸뚱이는 어찌 보면 로봇과 같습니다. 로봇 있죠? 로봇이 어떤 일을 할 때는 그 일을 시키는 사람이나 기계가 따로 있어서 지시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움직이는 것도 마음에서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몸뚱이는 심부름만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잘 가게 해서 감사해' 또 어디가 고장이 났다면 '고장이 나게 한 것도 너니까 고쳐서 이끌고 가는 것도 너 아니야' 하고 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자꾸 해보면 나중엔 힘이 생기게 돼요. 힘이 생기게 되면 '허허, 내가 괜히 그랬구나. 그렇게 해도 서로 해로울 것도 없는데 괜히 내 생각으로 그렇게 됐구나' 하고 아마 뉘우쳐질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좋아도 거기에 감사하게, 또 나빠도 거기에 '네가 한 거니까 잘되게 하는 것도 너 아냐' 하고 놓으세요.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 있는데 바로 지금의 컴퓨터와 같습니다. 그래서 입력되었던 것이 현실에 나오는데 다시 거기다 재입력을 하니까 앞의 입력된 그릇이 비더라 이런 말입니다. 자꾸자꾸 그릇이 비고 또 비고 그러는대로 자꾸 입력을 하니까 완전히 해말갛게 그릇이 비더라, 그래서 아주 밝게 자기라는 놈이 등장을 하더라 이런 겁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현실에 나오는 것을 팔자운명이라고 하는데, 현실에 나오는 것을 되집어 넣을 수 있는 사람은 팔자운명이 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화나고 아프고 그런 것도 알고 보면 모두의 몸 속에 들어있는 인과성·업보성·세균성·영계성·유전성 이 다섯가지가 포함돼서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 작용이 다를 뿐입니다. 다 가지고 있으면서 업식에 따라 그것들이 나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다섯가지가 작용을 하는 겁니다. 괴롭게 하고 망하게 하고 병들어서 죽게 하고 이러는데 원수를 갚으려면 그렇게 해야 갚죠. 자꾸 그렇게 나오는 것을 거기다 속아서 자꾸 마음을 그대로 쓰니까 힘들게 죽는 사람도 있고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고 힘들어서 가정을 파괴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팔자운명에 매달리지 말고 그냥 거기다가 놓으면 그대로 만사가 태평입니다. 팔자운명이 자꾸 없어지니까요. 그리고 팔자운명이 없어지고 새 물로 다가 입력을 하니까 새 것이 현실에 나오게 되는 거죠. 꼭 그렇게 하셔야 할 겁니다. 그러니 겁내지 마시구요 무조건 믿고 '화내는 것도 시기하는 것도 너 아니야. 그러니 그렇게 안하게 하는 것도 너만이 할 수 있어!' 라고 해도 좋습니다.

돈은 어떻게 벌고 써야 합니까

문 대구지원에 다니는 신도입니다. 그동안 불교를 공부하는 불자라고 자부해 온 지가 15년이나 되고 나름대로 이것저것 많은 노력도 했습니다. 그러나 스님을 만나고 이 마음공부를 시작하면서 지난 세월이 다 수박 겉핥기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수박을 쳐다만 볼 것이 아니라 쪼개서 진짜 맛을 봐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보니 생활 속에서 체험도 되고 또 가정이나 직장생활에서도 굉장히 즐겁고 의욕도 생기고 당당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삶에 대한 새로운 의지를 심어주신 스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스님께 여쭈고 싶은 것은, 사람이 살아나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스님 법문을 들으면서 악간 혼돈이 생겼기에 말씀드립니다. 어떤 때는 내면에서 말하기를 불교를 믿는다는 네가 돈에 욕심을 내면 그게 믿는 거냐? 라고 물어올 때가 있습니다. 돈이란 건 우리 삶에서 떠날 수도 없고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인데 스님께서는 항상 돈조차도 놓으라고 말씀하시니 어디까지가 욕심이고 욕심이 아닌지, 또 그렇다면 세속에서 살면서 돈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벌고 써야 할지, 그리고 서원과 욕심과 탐심은 어떻게 틀린 건지 여쭙습니다.

답 살아가는데 있어 돈이 없으면 참 궁하고 괴롭고 그렇죠. 그런데 묘한 법이 있습니다. 돈을 꼭 써야 될 때는 돈이 나오게끔 만드는 방법이 있죠. 남한테 꾸러가지 않고 또 돈을 쌓아놓고 살지 않아도 내가 어느 때든지 필요할 때면 딱 나오게끔 말입니다. 그런 방법을 몰라서야 어찌 부처님의 길을 따른다고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바가지가 없어서 불편한데 이러면 벌써 주인은 알고 '어- 바가지가 있어야 내 심부름을 하겠구나' 하고선 바가지를 달컥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돈이 없다고 했을 때 '이거 참 어떡해야만 돈을 만들어서 쓰나, 어떻게 해야만 이걸 갚나' 하고 그냥 안절부절을 못하는 사람에게는 돈이 빼끔히 들여다보고는 바깥으로 달아 나가요. 저 집으로 들어갔다가는 그냥 이리저리 찢기고 온통 야단나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이나 사람이나 다 마음이 있어서 모두가 일거수일투족 한마음이 돼서 그 가운데서 다스리는 주인이 다 하게끔 돼 있어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죠. 이 절을 지을 때 말입니다. 돈 한푼 없었죠. 그때는요. 사람들은 자꾸 모이는데 앉을 데가 없었으니 집이 필요했어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그저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서 이렇게 된 겁니다. 오래끌지도 않구요. 만약에 내 사사로운 욕심으로 집이 필요했다면 이거 안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의 집이기 때문에 된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넉넉히 쓰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욕심을 부려서 돈 없다고 돈 생기게 해달라고 원을 한다면 그것은 안되죠. 그러나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모두가 필요로 할 때는 내가 없는 것을 그도 알기 때문에 갖다 줄 거라는 거죠. 네가 형성시켰고 네가 움죽거리게 하고, 네가 살게 하고 네가 심부름 시키면서 심부름을 하는 놈에게 돈을 안줘서 심부름을 못하게 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 심부름 시키는 그놈한테다 탁 맡기고 콧방귀 콱 치라구요. 아! 무슨 걱정입니까? 심부름 하는 하인은 주인의 심부름만 하면 그뿐이지 돈이 있고 없고 무슨 그런 참견을 하느냐 이겁니다. 살림할 돈이 없으면 주인이 어련히 알아서 줄까봐 걱정을 합니까. 아, 주인이 주면 하고 주인이 주지 않으면 안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나중에는 진짜 주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주인도 없고 하인도 없고 진짜 그 가운데 그냥 자기가 자유스럽게 되는 거죠.

불을 지피는데 말입니다. 젖은 나무로 불을 지피느냐 마른 나무로 불을 지피느냐에 따라서 불쏘시개가 덜 들어가고 더 들어가고 그러죠. 마른 나무는 불쏘시개를 조금만 해도 타버리는데 젖은 나무는 불쏘시개를 하면 그 불쏘시개만 홀랑 타버리고는 더 이상 안타죠. 그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수행이 어느 정도 돼 있어야 나무가 말라서 잘 타고, 수행이 어느 정도 돼 있지 않은 아주 젖은 나무라면 안 타겠죠. 그러니까 아직도 껍데기에 매달려서 즉 말하자면 타의에서 구하는 습성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줄여서 아예 그냥 진짜로 무조건 믿고 그렇게 하신다면 훨훨 탈 겁니다. 꼭 그렇게 해보세요.

과거의 습이 너무 많습니다

문 스님, 저는 이제껏 살아오면서 참으로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었습니다. 그때는 이런 마음공부도 만나지 못했고, 또 살아오는 과정에서 제대로 되는 일이 한가지도 없었습니다. 이제사 스님 법문을 만나 공부하면서 생각해보니 매사 내가 한다는 생각으로 무조건 앞만 보고 달려온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이제부터는 스님 말씀대로 주인공에 맡기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과거의 습이 너무 많습니다. 스님, 큰 가르침 주십시오.

답 우리가 말입니다. 하다못해 나무를 한그루 자르더라도 목신과 지신과 더불어 보이지 않는 관리인과 한마음이 돼야 그게 아무 탈이 없게 되는 이치가 있습니다. 만약 그 나무와 더불어 한 마음이 됐을 때는 그 나무 물질은 잘라버려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매사 일을 자기가 한다고 그렇게 설쳤으니 뭐가 되겠습니까?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반드시 주인공에 맡겨서 거기에서 모두 하게끔 하십시오. 만약에 소를 한 마리 잡는다 하더라도 소를 잡지 않으면 안될 때, 주인공에 맡기고 한다면 살생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들에게 약이 되고 소의 근본은 바로 무명을 건져서 나한테 집어넣었으니 사람이 된 거죠. 금방 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굴려서 재생이 돼서 사람으로 인도, 환생을 한다면 그것은 이쪽도 좋고 저쪽도 좋고 다 좋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수레에 한번 굴려서 내놓으면 공덕이 된다 이 소립니다. 하여튼 그렇게 어렵고 가난하고 무질서하게 살지 마시고 모든 걸 중심을 두고 사신다면 어떠한 괴로움이 있더라도 그 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문 아닌 문 어떻게 찾는지요

문 저는 광주지원 청년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큰스님 법문 중에 '문을 찾되 보이는 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문 아닌 문을 찾으라' 고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뜻을 헤아려보면 진리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또 진리를 찾아가는 방편 또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한다고 해서 어떤 보이는 걸로만 찾지 말라는 뜻으로 나름대로 새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문 아닌 문을 찾아야 되는데 또 넘어질 때는 안보이는 걸로 자꾸 넘어집니다. 그래서 스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문 아닌 문을 찾되 문 아닌 문은 어디에 있는 것이고, 또 어떻게 찾는 것이며, 그 문 아닌 문 안에서 내가 도대체 무엇을 찾아야 되는 건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답 몸뚱이로서는 문을 꼭 찾아서 들어가야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런데 마음은 말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나갈려면 어떻게 나가야 마음이 나가죠?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으로 집에를 갔다 와보세요. 어디로 나가야죠? 지금 마음이 문을 찾아서 나가야 될까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나가야 될까요? 난 여기서 저 건너 방에를 벽도 보꾹도 없이 뭐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나가지는데… 건넌방 가는데도 그렇고 지구 전체를 돈다 하더라도 그 사이밖에 안돼요. 또 다른 우주에, 태양에, 또 다른 혹성에 간다 하더라도 차이가 나지 않아요. 한생각 딱 하는 것에는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그러면 내 몸 속에서 수없는 입자가 만약에 벽도 없고 보꾹도 없고 문도 없이 나간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을 두고 '천백억화신이 나툰다' 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됐다는 것만 해도 아주 최상의 점단이죠. 인간이 마음으로 자기 속에 있는 그 모든 의식을 입자로 내보낼 때는 한계가 없거든요. 그런데 문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문은 이 몸뚱이 모습이 있는 걸로 족하지 진짜 무슨 일을 할 때는 문을 찾아다니면서 일을 하지는 않죠.

옛날에는 창과 칼과 활을 쐈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총, 대포, 심지어 뭐 로케트까지 올라가고 말예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외에 또 그것보다 더 광대한 문제를 어디서 가져옵니까? 빛보다 더 빠르고 한계에 부딪치지 않고 가고 올 수 있는 것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문을 찾고 배우려고 하지 마라, 문을 찾고 공부하는 자는 학(學)으로 지식(知識)으로 이론(理論)으로만 공부하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마음공부하는 것은 문이 없는 문을 찾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 마음은 문을 따로 찾지 않아도 아무데고 문이 된다는 것, 은산철벽도 문이 된다는 것, 깊은 물도 문이 된다는 것, 허공도 문이 된다는 것, 그냥 어디고 문 안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내 아니되는 게 하나도 없구요. 하다못해 미생물까지도 내 아니되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걸 부처라고 이름했고 공덕이라고 이름했죠.

'일산(日傘)의 공덕은 크고 작음도 없이 그렇게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열심히 하세요. 자기 주인공만이 할 수 있다고 믿고 가다 보면 정말 그 주인공에서만이 문없는 문을 찾을 수 있어요. 과거 미래를 둘 아니게 마음대로 자유자재 할 수 있는 문은 그 문밖에 없어요.

외모로 여자 분별하는 습 많아요

문 저는 37세 된 노총각입니다. 마음공부를 한다고 하면서도 예쁜 여자, 안 예쁜 여자 등 늘 분별이 많아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그런 나쁜 습 때문에 많은 여자들을 울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스님께 여쭙습니다. 저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이 나쁜 버릇을 어떻게 고쳐야 될지요?

답 참 좋은 말씀 하셨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꼭 당신같은 사람만 얻어요. 너무 넘치게 올려다 봐도 안되고 넘치게 내려다 봐도 안됩니다. 분명히 댁의 분수에 맞게 걸맞는 아리따운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주 이쁘지도 않고 아주 못생기지도 않고 마음씨가 알뜰한 사람을 만나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 마음공부라도 열심히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더 좋겠죠.

쓰러지는 회사들이 많은데…

문 요즘 사회적으로 참 힘든 일이 많습니다. 무수한 중소기업들이 쓰러지고 심지어 대기업이 쓰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어려운 일을 많이 겪어봐서 마음이 무척 쓰리고 아픈데 그 사람들을 위해 어떤 마음을 내고 관을 해야 될지 가르침 주십시오.

답 예를 들겠습니다.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거지를 만났다고 칩시다. 어떻게 도와주는 것이 세세생생 그 사람을 건지는 길이 되겠습니까? 물론 때로는 먹을 걸 주는 것이 좋을 때도 있고 돈을 주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겠죠. 하지만 정말 그 사람이 그 모습에서 벗어나길 원한다면 바깥으로는 물질을 돌아가게 하되 안으로는 자기 밥 자기가 지어서 먹게끔 무주상보시로 마음을 내줘야 하겠죠. 그러나 모든 만물이 그 습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했듯이 자꾸 얻어먹게만 한다면 오히려 습을 보태줘서 묶어두는 꼴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뿌리부터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가만 두는 것도 하나의 방편입니다. 가만둬도 잘돼갈 겁니다. 가만둬도 잘돼갈 겁니다 하는 소리는 그 속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요 그것이 시대적으로 변화가 있는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상대에 따라 틀리죠.

항상 여러분과 도반으로서 한자리에 앉아 공부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지구도 생명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함께 이런 문제를 생각하고 놓을 줄 아니까 이제 걱정 안해도 되겠습니다. 우주 천지에 직결돼 있는 문제들인만큼 온 우주천지에 여러분 마음과 통신이 되고 있으니 괜찮겠구나, 부딪치지 않겠구나, 굉장되지 않겠구나, 에너지가 없어서 못살지는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그 한생각 생각이 참 거룩하고 고마운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우주하고도 직결이 돼 있으니 한생각을 잘 내신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얼심히 공부하십시오.

협찬 한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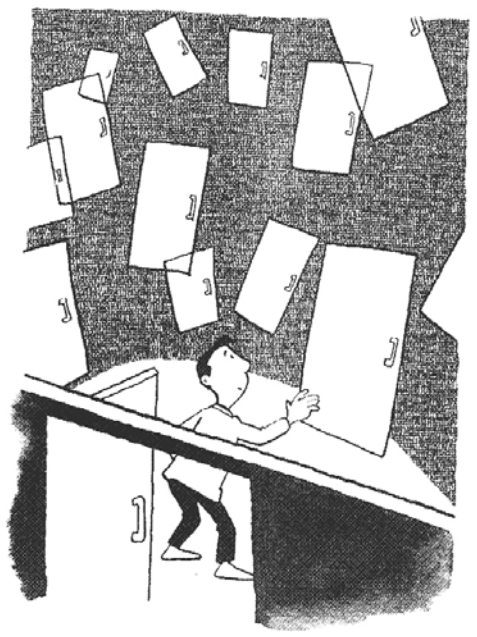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찰나로 화해 돌아가며 나투는 게 '인간살이'
'내가 했다' 세울게 없으니 업 붙을자리 없어

> 그릇이 비고 또 비고
> 자꾸 재입력 하면
> 그릇이 완전히
> 해말갛게 비워져
> 아주 밝은 자기가
> 등장합니다

불자정보 광고는 불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생활광고면입니다.

불교관련상품, 강좌안내, 구인 · 구직, 각종 소식,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누구나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 함께 하는

불·자·정·보

최소규격 및 가격 : 세로 5cm × 가로 2cm (1회 2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 4회이상 게재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한대불교 전국 지사 · 지국 에서도 접수 가능 합니다.

• 건 강 •

암 · 간경화 · 완치 보장

성인 백혈병 · 당뇨
만성 신장병 · 암 · 神病
정신질환 · 원인모를 病

보상금제도도입
치료후 병원 검사결과 현저한 호전이나 완치가 아니면 보상금 (치료비+1천만원)을 드립니다.

제3의학 · 심요법

TEL : 0552-585-8118 · 8128
H.P. : 011-559-8118/8128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하림리 우계동

보은암

※ 치료사례 비디오 테잎 무료로 드립니다 ※

간호사 및 간호보조원 모집
(스님 혹은 불자신자)

만 40세이하 간호사 및 간호보조원 자격증 소지자로써 미혼 혹은 독신자이어야 하며 상시 근무가능한 자

◆ 특히 스님 혹은 불교신자 환영
◆ 대우 : 국가공무원 대우규정에 준함
◆ 운전가능자 우대

불교 사회 복지법인 **소 향 원** (무료양로원)
주소 전남 화순군 춘양면 우봉리 495-1
전화 : 0612)373-6406
FAX : 0612)373-8767

病 없는 세계로 가는 길——

선관단식 · 생식

안내책자 무료우송
⊙수련장: 경 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93)834-1115~6
012)598-1015

불심과 정성으로 보살피는

불자 간병인

◇ 환자 간병 / 산모관리
◇ 12시간 3만원
24시간 4만 5천원(환자)
◇ 산모관리 숙식1달기준 130만원
출퇴근 1일기준 3만 5천원
◇ 서울 - 무-제-98-1호 허가
◇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603-15
☎02)363-7884/017)247-7884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간병인회**

각종 암 · 백혈병 치료
(現代醫化學의 克復, 신비의 효능 책임치료)

▶▶**스님의 비법** : 성장 신체의 원동력이 되는 무려 30여종의 항생물질이 형성되며 그 중에서도 특히 癌세포에만 달라붙는 아미티로진 또는 아지티로진 같은 특수한 물질이 형성되는데 암세포만 발견하면 즉각 달라 붙어 癌세포를 에워싸므로 3일이면 癌세포 활동이 중지되고 한달이면 癌세포가 자동적으로 인체의 體세포로 전환도니다 백혈병 5~6개월 완치

⊙ 당뇨병, 간질병, 위, 십이지장, 폴립, 심장질환, 고혈압, 동맥경화, 불면증, 팔다리 아픔, 피로, 비만, 근무력증 등의 환자는 한달치료로 가능하다. (대도시권 배달가능)
⊙ 유방암, 자궁암은 말기라고 해도 3개월이면 치료됨.
⊙ 각종 암 수술후 재발방지 필요한분
☎ 0547)437-4136, 437-4135

• 강 좌 •

현정 심성개발 · 상담센터
Tel. (02)583-0041
(지하철 사당역앞)

▷ 본 상담센터는 개인상담을 통해 마음이 아파 홀로서기 힘든 사람들과 마음나누기 하는 곳입니다
▷ 오전 전화상담, 오후 면접상담
▷ 적성 인성 등 각종 심리 TEST
▷ 심성개발 및 감수성 훈련(ST)
소그룹 지도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8시 반까지 강좌)
▷ 단전호흡을 통한 심신건강 및 집중력 기르기

▣ 신경성, 집중곤란, 대인불안등 스트레스 적응법 지도

수맥 강좌

신비의 추 사용법
매주 목요일
수맥관련 상담
우물파기, 터보기
도면 보내주시면 수맥 찾아드립니다.
02)774-2118
011)239-6817

풍수학, 동양철학, 침술 수강생 및 통신생 모집

◇모집기간 : 현재 접수중◇연령, 학력 제한없음
◇수업기간 : 3개월(24시간)
- 이수자 졸업장 수여
- 주간 : 오후 3시~5시-야간 : 7시30분~9시30분
◇개인지도 수강자는 시간 및 진도 특별조정함
◇강사 : 스님(철학박사, 승가대교수)
◆풍수, 운명, 침술, 감정시무하고 있음
(철학관 및 토교원 개원시 지원 배려함)
(출가관심자 승려 수계득도 지원함)
0331)264-4582
대 · 불광사, 승가대학 교무처
(위치: 경기도 수원 용인지역임)

꼭 알아야 할 秘要 특강

1. 모든 문제의 成敗 · 可否 판단법
1. 운명 문제의 간단명료한 판단법
1. 현실 문제 적중법 및 각종 방편법
1. 이사, 결혼, 풍수, 건축 등 각종 택일법
1. 정신통일 건강 및 초능력 개발법

02)597-6211
(45일완성 · 통신가능)
正山堂 金 庚 泉 직강

전통불교의식 확인모집

●기본과정 : 도량석, 종송, 예경, 불공, 시식등
●중급과정 : 대령, 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특별의식
●어산작법 : 초급과정:바라무, 나비무 작법, 어산초급과정
●원왕생과정 : 불교식 장의 장례(다비의식)
출가상담및 교육과정<기본의식 교리, 습의>
반야심경, 금강경<10폭 병풍> 사경법회
※각 과정 통신생 모집 ※ 학인스님특별반 모집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77-1 원방BD 4층 (봉은사옆)
☎ 02)511-0108
대한불교조계종 **전통불교의식연구원**

• 구인구직 •

활법선원 교육생 모집

◇내용 : - 선불교교리
- 명리학(사주학, 성명학)
- 기공(법륜공)
- 자연치유학(활법-척추교정술, 경혈지압 및 맛사지, 자연건강법)
◇특전: 교육 수료후 선법사, 활법사, 명리역학사 자격증 발급
※스님은 특혜 있음
(위치:7호선 상봉전철 1번출구앞)
교무처 : 02)434-7576/F.434-7576
생활선불교교육원(대학)

좋은 인연을 찾습니다

◇50세, 독신, 재가법사입니다.
◇전직 교사로서, 현재 청소년 대상 복지사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작금, 뜻하지 않은 큰 어려움을 겪던 중 역시 진실한 평생 도반이 필요하며, 또한 그 소중함을 절실하게 깨우치고 있습니다.
◇ 청소년 대상 복지 · 문화 포교원을 건설하는데 남은 여생을 함께 하고, 도움을 주실 진실한 보살님을 찾습니다.
◇아름다운 인연이 있기를 부처님전에 축원합니다.
02)942-6900/015)129-0000
재가법사 일 산 합장

중견 여직원 모집

◇업무 : 문서편집 및 학생상담
◇자격 : 1. 전문대졸이상, 28세이상
2. 저녁시간(주2일)
토요일 근무가능한 자
◇근무시간 : 주 40시간
◇근무일시 : 면접후 즉시 채용
02)336-1090/02)336-1091
한국불교문화대학
서울 마포구 동교동 173-14 (천일빌딩 305호)
(2호선 홍대역 출구 4번 맞은편)

구 직

●미혼여성
●경리사무, P/C 가능자
●불교신자
02)732-2068
불교전통문화원

공양주 보살님 구함(여자분)

경험 있으신 분
약 사 암
02)796-8514

천/일/기/도
기도법사님 모십니다.

한라산 영실존자암
011)696-8500

스님 모십니다.

천년고찰입니다.
비구는 50세전후
비구니스님은 55세전후
다소 약 값 지불 가능함.
3개월 이상 거주하실 분
도반 내지 권속처럼 동거하실 분
011)375-0667
0397)574-9300~2

• 불교용품 •

◆보 리 수◆

취 급 품 목 | 각종 수입향 염 주 불교악세사리 | 일 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 수련원 •

◆ 청학사 수양원 ◆

■ 수양 · 요양 · 기도 · 공부
■ 경전강의, 참선기도
■ 月 숙식비 ₩300,000
■ 1인 1실-침구 일체 완비
0595)883-2933
011)446-2933
경남 하동군 악양면 노전마을
청 학 사

• 기 타 •

전통사찰 건축

(문화재 기능인 등록 제 962호)
기둥은 육송으로만 사용합니다.
※시공사찰 : 수덕사, 진관사, 승가사, 칠보사, 보광사, 사자암, 원각사, 김용사, 대원사, 망월사
경북 영주시 풍기읍 서부 3리
0572)636-2509
011)507-3629
이 민 과 합장

全國 佛子님께
氣龍 達磨圖를 나눠드립니다.



혜월당 회향암
0564) 33-2037
017) 531-2929

달마보급 안내



연락처 :달마보급 선양회
011)841-3591

염불전용녹음실
⊙ 법당 앰프, 마이크 설치 ⊙

●평소에 염불을 녹음하고 싶었으나 비용과 음질 때문에 망설였던 스님
●현재 사용하고 계신 마이크에 불만을 갖고 계신 스님
●직접 법당내에서 평소에 하시는 염불을 녹음하시고 싶으신 스님
※ 수십년간 법당에서 좋은 염불을 하고 담고 고운 음질의 마이크는 없을까 연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상법회를 할 수 있는 명상음악과 법요의식용 찬불가 음반이 필요하신 분)
전화문의(法音寺) 김 광 덕 합장
0417)551-1562

긴급적선

경제파탄으로 불자가족이 죽음직전에 적선을 호소합니다.
국민은행
838-21-0132-495
(김기창)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보답하겠습니다.

행운결혼 상담소 모범업소 관허 1

초 · 재혼 특별상담
●엘리트 우수회원 다수확보
●성심, 성혼 책임 보장
●신원확실, 비밀보장
※부모님 상담 환영
(代) 02)960-4564

학/자/금 천오백만원

대여해 주실 분 찾고 있습니다. 속히 갚을 수 있습니다.
015)8624-0911
대학생 法雨 합장

• 사찰안내 •

사 찰 안 내

◇위치 : 공주 ◇부지 : 500평
◇법당 : 18평 ◇요사 : 33평
◇가액 : 1억 3천만 ◇고찰산사
◇석간수 풍부, 시설완비

포교당 안 내

◇위치 : 서울 홍은동 4거리
◇법당 : 20평, 방, 주방5평
◇보증금 1,300만원, 월세 30만원
◇시설비 절충, 즉시 법회 가능
◇욕실 및 원체시설완비, 급히 양도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상담전화 02)723-4082 / 011)232-4082
광 진 불 사

포교원 안내

◇위치 : 대구시 북구 복현동 (주차시설완비)
◇ 법당 : 2층 43평, 옥상사용가능
- 개금3존불(넉자),
- 후불신중탱화 집기일체 포함
- 주지실 공양실 욕실등 완비
(입주즉시 법회가능)
◇ 가격 : 3천만원(보증금+시설비일체)
월 40만원
016)519-9551/053)957-9551

토굴 겸 암자 안내

◆위치 : 경남 밀양시 단장 미촌리
◆대지 : 103평
◆건물 : 25평(슬라브, 시설완비)
◆매가 : 4천만(등기 필)
※밀양에서 표충사간 1/3지점
0542)371-1306
0527)353-4188

◆사찰 및 부지

◇ 위치 : 경남 진주시
◇ 부지 : 약 2,000평(평토작업완료)
◇ 요사 : 28평(임법당 14평, 방4개)
7평(부엌, 욕실, 창고)
◇ 가 격 : 2억 5천
◇ 특 징 : 계곡앞에 저수지,
양쪽 암반계곡, 기도처나 신원용도
진주시내 15분, 마산 I.C. 20분,
부산 1시간 거리,
전화 · 전기 · 도로 있음.
016)589-0560
0591)758-3445

사찰부지안내

◇위치 : 대전시 동구 상소동 (대전역에서 20분거리)
- 임야 : 9,777평(도로인접)
- 밭 : 323평
- 묘자리 가능
◇가액 : 1억 3천만원
※사정상 급히 안내(시세 1/3가격)※
042)585-1101
011)429-0222

포교원 안내

◆ 위 치 : 서울 신림본동 신림4거리 보도10분거리 대로도변 2층
◆ 삼존불,후불탱화,신중탱화, 칠성탱화,각종만다라화 여러점
◆ 보증금 : 1천 5백(월 50만원)
시설및 일체물품(1천 2백만원)
02)888-1642
011)686-9925

포교당 안내

◇위치 : 부산 최고 요지
◇평수 : 50평
◇법당 : 사무실,공양실, 방 3개,창고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 2,300만원
◇시설A급 : 신도카드 400매, 삼존불, 동불봉안
051)441-6773/011)825-1662

사찰안내

◇위치 : 장호원 (서울에서 약1시간거리)
◇대지 : 437평
◇총건평 : 83평
- 법당(27평), 사무실(15평)방4개,
- 요사채(41평)방11개, 주방, 화장실
◇가액 : 3억 3천만원(대지값)
◇특징 : 발전 요충지의 명당
※ 직접면담 ※
0446)877-9051
012)925-6118

사찰 안내

◆ 위 치 : 전북군산시 월명공원내
◆ 전 세 : 최저 가격절충
◆ 요사채 : 30평, 대웅전 18평
※급한 사정으로 현재 운영중인 사찰을 양도 하고저 합니다.
0654)461-4152
011)579-9865

사찰안내

◆ 위 치 : 경북
◆ 법 당 : 32평, 요사 : 38평
◆ 부 지 : 400평 ◆ 가 액 : 2억
⊙ 전국의 사찰,포교당 다량 확보하고 있으며 다년간의 경험으로 양도, 운영 하실분에게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포교당)운영하실분

◇위치 : 대구광역시
◇대지 : 50평(등기완료)
◇총건평 : 1층, 2층, 반지하식당
▶합 : 73평
- 1층 : 법당 - 2층 : 요사
- 반지하 식당 : 공양칸
◇가액 : 매가 1억 1천 5백만원
011)790-7162
053)656-6609

사 찰 안 내

◇위치 : 충남 천안역에서 15분거리
◇부지 : 약 500평
법당-대웅전,약사전,산신각,칠성각, 용궁,입상 미륵석불 3미터,세쌍둥이 코끼리 삼층탑(법당내외시설일체)
요사채-큰방 3, 입식부엌 1(1동)
보통방 2(1동)
◆특징 : 조용하고 깨끗한 기도도량 마을에서 1Km 떨어진 야산속
◆가격 : 1억 7천만(사정상 급히 양도)
011)686-9925

사찰안내

◇동네어귀, 절옆 지방문화재 탑
◇평수 : 360평, 주차장 84평, 만들 땅 밭 173평
◇대웅전, 요사채, 화장실, 신축(50평)
◇가액 : 2억 9천만원
0654)451-2410
011)671-5161

사찰(급)안내

◇위치: 경상북도 포항시 인접
◇대지 및 경내지 도합 301평
◇대웅전: 현대식 건물 30평
◇산령각: 목조 3평
◇요사채: 목조 스레트건물 30평
◇ 지하수 또는 상수도 완비,
◇ 진입로 2톤까지 다닐 수 있음
◇ 가액 : 2억
0562)284-3402
011)524-3402

촌 집 암 자

◆위치 : 경북 의성
◆가격 : 전세금 없음
시설비 1,200만원
0576)832-0831
016)290-6699

사찰(급)안내

◆위치 : 삼천포 시내에서 5분거리 ◆부지 : 약 1,700평
◆법당 : 27평 ◆요사채 : 약 20평
◆주지실: 12평 ◆버스진입도 됨, 주차장 약 200
◆가격: 1억 7천만원(전세가능)
◆특징 : 수려한 산세와 계곡이 접한 기도도량으로 웅장한 송림속에 자리잡고 있고, 삼천포 시내와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빼어난 경관과 버스정류장에서 도보로 5분거리로 편리한 교통과 사계절 일급수 물이 흐르는 계곡이 접하고 있는 청정한 기도도량.
■ 창건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불심이 돈독하신 분중 6천만원의 동참금을 내시고 평생 사찰에서 여생을 보내실 분의 연락을 바랍니다.※ 6천만원의 동참금은 5년후 바로 돌려드리고, 6천만원에 대한 담보설정은 즉시 해드립니다. 또한 사후 49재및 공덕도 세워드립니다
017)557-9448(주지직접)

포교당 안내

◆ 위 치 : 미야 3거리
◆ 건 평 : 50평, 5층건물의 2층
◆ 전 세 : 7천만원, 시설비 · 권리금 없음.
※ 4호선 전철역에서 가까움. 교통편리
02)941-3195

사찰 · 수행처 가능

◇위치 :산청군 신덕면 법서리 (황매산줄기)
※진주시내 30분거리 2차선 도로옆
◇대지 : 142평
◇건평 : 29평
◇가액 : 9,500만원
※ 순수 한국노송 통나무와 황토로 건축
0596)973-1586

포교원 안내

◆ 법당 15평 삼존불 및 모든시설 완비
◆ 요 사 : 3층 옥탑, 단독방 1.
◆ 3층 - 방 1, 주방 1, 욕실 1.
◆ 가 격 : 보증금 8백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 500만원(조절가능)
02)461-6091
011)493-8936

포교원 안내

◆위치 : 서울 성북구 보문동
◆평수 : 64평, 한옥
◆방5개, 부엌, 마루
◆가격 : 평당 500만원(절충가능)
◆주택전철역, 교통편리, 주택밀집지역, 탑골승방 인접, 포교에 최적지임.
※ 꼭 하실 분만 전화주세요.
02)921-6831
016)262-6831

寺, 꼭 필요하신 분

◆ 울산 경주간 7번 국도변 분지형의 길상지
◆ 법당, 산신각, 요사3동(방사12), 옥외 석조대불
◆ 경내지 350평, 매가 절충가능
◆ 향후 발전가능성 많음
0561)775-0545
011-801-8818

새주인을 찾습니다.

경주 울산간 국도변, 절묘한 바위가 어우러져 있는 보기드문 기도도량으로서 편리한 교통의 수려한 경관이 최상이며 법당 뒷쪽 맑은 샘물이 일급수이며 툭 트인 전망이 좋은 도량임.
◇법당, 산신각, 요사채 3동
◇경내지 사용면적 1,000평-매 2억 1천
0561)743-4008
0598)943-2890

◆ 토굴팝니다

◇ 위 치 : 경남 하동군 청학동 근처
◇ 대지 : 90평
◇ 건평 : 15평(황토흙방 3)
◇ 가액 : 3천 7백만원
◆ 최고의 명당 (황토흙 방 3개)
◆ 차도 전기 미설치
0595)882-6407

불자 세상보기

■ 'IMF형 아동학대' 위험수위…피멍드는 동심

'아빠, 제발 때리지 마세요'

종교계 정신적 공황 치유나서야…제도적 방지책 시급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함함하다고 한다'. 뾰족하기 이를 데 없는 고슴도치의 털도 부드럽다고 할 만큼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맹목적이라는 것. 그런데 IMF관리체제로 인해 살기가 각박해진 탓일까. '고슴도치의 사랑' 마저 망각하는 부모들이 늘고 있다.

건축업을 하다 지난해 부도가 난 서울 반포동의 박모씨(40). 서울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남부럽지 않은 가정을 꾸렸던 박씨는 부도 뒤 부부싸움이 잦아져 6개월 전 아내가 가출했다. 이때부터 박씨는 6살, 4살난 아들과 딸을 둑하면 때리곤 한다. 공사장 막일꾼으로 생계를 꾸리는 박씨는 신경질이 나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아이들에게 화풀이를 하게 되었다.

경제난 심화로 사회 전체의 스트레스가 증폭되면서 이같은 아동학대가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다. 실직, 부도 등을 당한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화풀이식으로 폭행을 가하는 'IMF형 아동학대'가 급증하고 있다.

심지어는 자녀들과 동반 자살을 하는 극단적인 형태로까지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18일 서울에서 빚에 쪼들린 30대 가장이 8살, 5살난 자녀와 함께 독극물을 마시고 동반자살(아이입장에서는 살인)한 사건등이 그 예다. 가해자인 부모가 저소득층, 저학력층이 주를 이루던 과거와 달리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달라진 점이다.

아동학대 실태는 전국 16개 시·도에 21개 상담소를 운영중인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가 최근 실시한 조사에서도 잘 나타난다. 이 협회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97년 총 91건에서 올해는 7월말까지 이미 104건으로 같은 기간에 비해 80%가 늘어났다.

또 한국이웃사랑회 아동학대상담센터의 경우도 지난해 159건이었던 상담건수가 올해는 8월말까지만 234건으로 증가했다.

좋은부모되기운동본부 정송소장은 "아동학대는 정신적·물질적 원인에서 비롯된 가정파괴현상이 행동으로 표출된 것"이라며 "경제난에 따른 부작용과 후유증을 치유하기 위한 정신·의식개혁운동 등을 통한 가치관 개혁운동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간 우리나라는 유엔으로부터 폭력과 학대·착취에 대한 아동보호 조항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어린이 학대현상이 더 심해지기 전에 정부가 '아동학대당지법' 제정 등 법적·제도적 보호장치를 강화하고 종교·시민단체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신적 공황을 치유·예방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어려운 때 일수록 자녀와 함께 하는 가정은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는다. 사진은 산사를 찾은 불자 가정의 정겨운 모습.

좋은 눈 "자애의 마음으로 양육해야"

부모와 자식간은 천륜(天倫)이라 한다.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늘이 내린 도리인 것이다. 사랑은 '내리사랑'이라 하듯 모든 희생을 무릎쓰는 것이 부모의 도리이다. 하지만 IMF관리체제라는 고통이 '자식 사랑'이란 본능마저 잊게 하고 있다. "자애로운 마음은 온갖 안락의 원인"(우바새계경)이란 역설적인 사실을 망각한 탓이다. "가정은 가족이 마음으로 접촉하는 곳이다. 모든 가족이 서로 사랑으로 만나면 여러 가지 꽃이 만발한 정원처럼 아름답지만, 서로 화목하지 못하면 정원을 황폐하게 하는 폭풍과 같다"(랄리 증지부)는 가르침을 되새겨 가정에서 부터 희망의 꽃이 피어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내일의 희망인 자녀들에게 아픔 대신 꿈을 줘야 한다. "마땅히 자애의 마음으로 어린이들을 양육하며 언제나 가엾이 여겨 뜻대로 먹어 편안함을 얻게 해야 한다."(아난사사경) "화순(和順)은 집을 가지런히 하는 근본이다."(명심보감) 화목한 '가족애'는 마음의 평화와 용기를 안겨줄 것이다.

시론

왜 화장인가



이희재
〈광주대 교수·교양학부〉

우리나라 굴지의 재벌회사 회장이 세상을 떠나면서 화장을 하도록 유언했다. 많은 사람들이 호화분묘를 선호하고 풍수리지설에 얽매여 있는데 비해, 이분의 화장유언은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

중국의 지도자였던 등소평이 화장해서 그 재를 바다에 뿌려달라고 했던 것이나, 평생 원효연구에 몰두하였던 이기영 박사가 자신을 화장해서 원효의 얼이 서린 경주에 뿌려달라고 한 것은 강한 인상으로 남는다.

스님들의 화장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재가자들의 화장을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한편 기이하기도 하다.

우리나라와 이웃한 중국대륙이나 일본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화장을 하고 있다. 불교의 고향인 인도 역시 마찬가지다.

인도의 경우는 철저하게 윤회를 믿기 때문에 갠지즈강에서 목욕하고 그곳에 화장한 재를 뿌리는 것을 지극한 행복으로 생각한다. 그들은 죽음을 삶과 배반된 악의 세계라고 보지 않고 또다른 삶으로 가는 통과라고 담담하게 받아 들인다. 죽음의 재들이 흘러가는 물속에서 인도 사람들은 목욕재계를 동시에 행한다.

> 부도를 바라보며
> 육신에 집착않고
> 영혼의 정화 힘쓴
> 삶의 자취 느껴

달라이 라마의 티벳은 조장(鳥葬)을 한다. 고원지대인 그곳에는 목재가 귀하기 때문에 화장을 하지 못한다. 대신 세상을 떠나면 그 몸을 독수리의 먹이로 희사한다. 그들에게 육신이란 한벌의 옷과 다를 바 없다. 이제 몸을 떠난 영혼은 또다른 몸으로 옷을 바꿔입는다고 생각한다. 그러기에 그들의 죽음은 새로운 삶의 시작으로 의미를 갖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화장이나 조장에는 육신의 허무성과 영혼의 자유성을 표현하는 불교와 힌두교적 세계관이 깔려있다고 하겠다.

한국인들은 매장을 선호한다. 이것은 혼백(魂魄)의 얼(魂)은 하늘로 자유롭게 떠나지만 넋(魄)은 시신과 더불어 땅에 남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시신이 없어진 죽음을 한국인들은 아주 불행으로 생각한다. 비록 혼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지만 그 넋은 이 땅에 남아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비록 세상을 떠나지만, 그들은 후손들에 의해서 대대로 추념되어짐으로써 죽음과는 무관한 또다른 삶속에 편입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추념의 대상이 그 넋이 깃든 묘지임은 물론이다.

이러한 한국인의 오랜 풍속이 오늘날에도 고스란히 남아 풍수지리에 따른 길흉화복설이 근대과학의 성과와는 별개로 증시되어 오고 있음이 저간의 사실이다. 조상의 기(氣)를 이어받은 육신을 소중히 하고, 그 대를 잇는 가족에 대한 집착이 이 제도속에는 표현되고 있는데, 그런 오랜 관습을 탈피해서 화장을 유언한 것은 쉽지 않는 결단임이 분명하다.

우리나라의 고찰에는 어디든지 부도가 있다. 일종의 공양탑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도에서는 죽음의 그림자가 깃들어 있지 않다. 육신에 집착하지 않고 오직 영혼의 정화에 힘쓴 삶의 자취가 느껴진다. 더구나 이름을 새기지 않은 부도에서는 한 인간의 담담했던 삶의 향기마저 배여있다.

그러나 스님이 아닌 속가의 사람들이 화장을 꺼려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자신이나 자신의 선조의 자취가 사라져 버린다는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무덤보다도 더 아름다우면서도 상징적인 공양탑(영탑 靈塔)을 안전한 장소에 길이 보존할 수 있다면 이런 염려는 사라질 것이다.

앞으로 비좁은 국토에 더 이상 매장할 장소가 허용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화장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 이 화장의 풍속은 낯선 것이 아니라 이미 불가에서 대대로 시행해온 것이다. 다만, 전래의 넋이 깃든 체백(體魄) 존중사상을 감안하여 후손들이 귀의할 적절한 공양탑의 전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영생교회 7명 동반자살

'순교 영생' 종말론 맹신 사이비종교

누구나 언젠가는 닥쳐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해주는 것이 종교의 한 역할이다. 그러나 사이비종교에서는 영원히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영생(永生)이란 미끼로 끌어들여 참혹한 종말극을 펼쳐오곤 한다.

지난 78년 가이아나 인민사원의 914명 집단자살, 93년 미국 다윗파 86명 사망사건, 94년 스위스 태양의 사원 신도 48명 집단자살 등이 대표적이다. 러시아에서도 구소련해체와 함께 사회불안으로 종말론자들이 15만명이 넘는다고 한다. 옴진리교 사건으로 홍역을 치른 일본에서는 해마다 100여개에 달하는 신흥종교가 생겨난다고 한다.

지난 87년 32명의 집단자살로 사회에 충격을 던진 오대양사건을 겪은 우리나라도 사이비종교의 안전지대는 아니다. 5일 강원 양양군에서 영생교회 신도 7명이 함께 불에 타 죽은 승합차 화재사고로 그동안 잠잠한듯 하던 사이비종교의 악몽을 일깨우고 있다.

사이비 종교의 발흥은 급격한 사회적 변동이 일어날 때 이에 적응치 못한 계층에서 생기는 '세기말적 증후군'의 하나라는 것이 종교학자들의 분석이다. 정신적 물질적 위기시대에 종교의 사회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재경 기자

'우리말 상표' 인기 상종가

"같은 상품 일때 한글상표 선택" 72%

우리말 상표 이름이 요즘 인기다. 애국심에 호소하는 마케팅 전략이 잘 먹혀들자 업체들은 과거 '촌스럽다'고 외면하던 우리말 이름을 찾고 있다.

잠뱅이, 해찬들(해가 가득찬 들녘), 누비라(세상을 누빈다) …. 친근하고 참신한 이름의 한글상표가 영어 등 외국어상표를 능가하고 있다. 심지어는 '산드라' '카디날' 등 외래어로 불리던 국내산 장미 10여종의 이름이 '태양' '여명' 등 순수한 우리말로 바뀌었다. IMF관리체제 이후 거품이 빠진 시민의식의 반증이기도 하다.

한글상표 이름짓기 전문회사인 이름고을(대표 박항기)이 최근 서울시내 15~39세 남녀 1천5백15명을 상대로 실시한 '우리말 상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같은 제품이라면 한글상표를 선택하겠다"는 대답이 1천1백1명(72.2%)으로 지난해 보다 12.2%가 늘어났다. 반면 외국어상표는 22.2%가 줄어든 2백85명(19.7%)에 불과했다.

한글상표를 택한 이유는 친근감(19.9%) 애국심(15.9%) 참신성(9.1%) 등이었으며 외국어상표는 세련미(28.0%) 고급이미지(16.1%) 익숙함(8.7%) 등이 선택 이유였다. 최고의 한글상표는 청바지 잠뱅이(8.3%)가 차지했으며 고추장 등 식품상표인 해찬들(6.1%)과 대우자동차 누비라(5.6%), 화장품 식물나라(3.6%) 등이 뒤를 이었다. 김재경 기자

'아들·딸 골라 임신' 업체 등장

성비파괴·도덕성·외화지출 논란 예고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남아선호 사상 때문에 한푼이 아쉬운 IMF시대에 '외제 임신법'이 수입되어 남아 초과현상을 부채질함은 물론 외화지출 및 도덕성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서울 강남의 E사는 지난 7월 셀나스 임신법을 개발한 프랑스의 P연구소와 대행계약을 맺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했다.

지난해 개발된 이 임신법은 남녀를 결정짓는 X·Y염색체가 각각 '+' '-' 극성을 번갈아 띠기 때문에 이 주기를 이용해 자녀의 성을 결정하는 것. 98.7%의 성공률을 자랑한다.

55만원을 내고 자신의 혈액형·생리일 등 신체정보를 제출하면 이를 프랑스에서 처리, 남녀 선별임신 가능기간을 포시한 1년치 캘린더를 보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비용의 절반은 프랑스측에서 가져간다. 김재경 기자

노인권익 대변단체 '밝은 노후모임' 발족

노인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한 새로운 노인복지운동단체 '밝은 노후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임'(대표 서혜경 한국노인의 전화 상임이사)이 12일 오후 서울 불광동 한국보건사회연구원대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활동에 들어갔다. (02)365-2272 김재경 기자

이시대의 마지막
氣功 불가기공의 비전
(연/화/도/법)

26년간 입산수도 중생을 위해 하산하신
(도현선사님 직접지도)
14박~15일 단시간 만으로 비전 전수!

◆연화도법은 총 740년이라는 긴 세월간 한 대에 1명씩만 전수해오던 도맥입니다.
◆누구나 바로 천기 및 지기를 느낄 수 있고
◆우리 인체에 음양의 기운을 돌릴 수 있으며
◆14박 15일 수련만으로 기치료의 능력이 자생됨.

이러한 대중들은 꼭 (연화도법)을 전수 받길 권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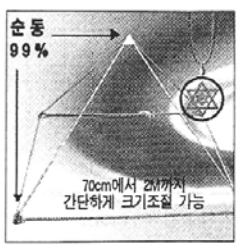
◆사찰 포교당 및 모든 불제자가 기치료 능력을 배워서 대중을 위해 봉사 하실 분
◆어떠한 일을 해도 전생의 업장으로 인해 일이 안되는 분
◆현대의학으로는 치유가 불가능한 모든 대중 및 불자님
◆기치료를 꼭 배우고 싶은 분
◆기공을 전수받고 이 도법을 대중에게 전수시킬 수 있는 상근기가 강하신 모든 남·여
◆수년간 수련해도 공의 발공이 안되시는 분

연화도법 연구학회
전화 (0431)292-9090
FAX (0431)292-9091
육식 완전 해결 선방 준비 되어 있음.

氣가 통하는 순간
참을 수 없는 통증이 사라진다

●全身氣通의 오묘한 功法-천문을 통해 氣가 들어오면 병기, 사기, 탁기가 빠져나오며 명문혈에서는 옷자락이 펄럭일 정도로 찬기운이 빠져나오고…
●누구나 좋은 집터, 명당을 얻는다 - 한 유명한 지관이 길을 가다 분묘에 서본다. 이 자리에 분묘는 명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인데 좌향이 15 틀어져 아무리 이 자리가 명당일지라도 그 자손이 비참하게 멸망하는데…「이 묘 쓰고 크게 번영했는데 사초하고 망했구먼」 집안청년 17명이 1년내 죽어 버렸고 재산은 모두 탕진했습니다.
●암, 당뇨요법 - 이제껏 이 자료를 공표하지 못한 이유는 어느 대학교수가 뇌종양환자의 치료를 한다고 나의 문헌을 요구해왔다. 정확하게 자료를 넘겨주었던 바 그 교수는 수개월후에 제약회사에 갖고가서 신약을 발표, 의학박사 학위를 획득, 이렇게 지금까지 가르쳐준 자료는 개업의에서부터 여러 대학의 의사들이 노력도 하지않고 박사학위를 획득하는 제물이 되어 버리므로 공표를 굳게 거절해왔다.
●숯가루요법, 설사, 장염 ●히란야 육각성의 기적
●氣功治病秘法 ●소주천 속성법의 비밀
●氣주입법(미국 일본 등에 알려진 氣주입법)

기적의 육각성 피라미드
최근 피라미드가 인체의 피로회복·스트레스 해소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입증되었으며, 신비의 피라밋 파워를 이용 건강증진, 기수련, 질병치유 촉진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책자 정가 : ₩10,000 · 우체국:014092-0035728-17(김건순)
氣功研究會 ☎ 02)455-6944/453-5851

♣ 불/자/정/보(사찰) ♣

사 찰 안 내
◆위치 : 경북 고령군 쌍림면
◆면적 : 총 5,800평 - 준 농림지역
(이중 600평 대지, 5,200평 전)
◆법당 22평, 산신각 3평, 요사채 2동 각 30평씩, 공양실 13평(층5동), 신축건물, 주차장 완벽, 등기완료
◆환경 : 전망최고 사찰정면에 큰 저수지유, 사찰 및 별장, 시설은 A급, 마을에서 3Km 산중턱에 위치, 뒷편은 울창한 숲 - 유실수, 고령 I.C에서 6분, 대구에서 30분, 88고속 및 국도
0543)954-6194~5/011)501-2219
FAX 0543)954-6196

사찰운영하실분
◆위 치 : 통영시
◆부 지 : 1,179평/ 법 당 : 25평/ 요 사 : 25평
◆주차장 : 무한대 주차가능 버스진입
◆가 액 : 1억 9천만원
◆특징 : 수려한 산세와 1급수 청정계곡물이 사계절 흐르는 기도 도량으로 주변이 울창한 송림으로 감싸안고 있는 금오탁시형의 천하명당자리.
◆위 치 : 김천역에서 15분거리
◆부 지 : 3,000평/법 당 : 33평 ◆요 사 : 50평
◆가 액 : 전세 5천만원
※전국 사찰, 포교원 급히 구합니다. 사정이 있어서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하신 분은 연락주시면 좋은 인연 결합하여 드리고 양도외 사찰 건축, 세무, 법률도 무상으로 상담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스님의 일반인, 무속인, 보살 상담은 절대 사양합니다.
(주)동국불사
상담 : 02)512-4447/ 011)736-4447

암자·포교당 최고요지
◆위치 : 서울 은평구 대조동 (전철 3호선, 6호선)
◆대지 : 54평, ◆건물 : 25평,
◆가격 : 1억 9천만원 (웅자 4,500포함)
◆법당 2, 방2, 현재운영중
포교당 창건 원하시는 스님, 법사님, 신도님께서는 직접 방문하세요.
011)721-5720
02)384-5720/386-8955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 대지 : 260평
◆ 건물 : 약 80평
◆ 매가 : 1억 3천만원
0333)691-2351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도원구상계동
◇ 평수 : 50평 3층건물(3층), 방2,주방(주차가능)
◇ 가액: 보증금 3,500만원(월25만원)
◇ 시설비 : 2,500만원
◆ 주변전철역, 교통편리, A.P.T 주택밀집지역, 포교에 최적지임.
02)939-3647012)341-3647

연기법 알면 생명위기 극복

혼돈 속에서 조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현대의 불자들이 우선 지녀야할 덕목은 바로 연기법에 대한 확고한 인식과 사무량심을 마음 속에 간직하는 것이다.

창립 10주년을 맞은 정토회(대표 법륜)가 16일 동국대 예술극장에서 '혼돈 속의 조화'를 주제로 개최한 기념 심포지움에서 슐락시바락사(태국, 환경·평화운동가)와 도법스님(실상사 주지) 등이 이 같이 강조했다.

정토회 '혼돈속의 조화' 주제 심포지엄

슐락시바락샤 "사무량심이 환경보호 해결책"

도 법 스 님 "서로 존중·포용할때 평화 구현"


◇도법스님


◇슐락시바락사

슐락시바락사(65)는 '환경문제의 정치화'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서 인간의 탐심(貪心)으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으며, 아시아 불교국가에서 프라 프라착스님(태국) 등이 생태계 보호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지만 사회적 기득권을 이미 가지고 있는 환경 파괴자들에게 모두 박해를 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슐락시바락샤는 환경문제는 다분히 경제적 정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불자들은 부처님이 가르친 사무량심을 토대로 우리의 탐심을 없애는 등 환경의 쟁점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무량심이란 모든 사물의 행복과 안녕을 바라는 마음(慈·Metta),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悲·Karuna), 언젠가는 선해질 것이라는 바람(喜·Mudita), 평정한 마음(舍·Upekha).

슐락시바락샤는 "사무량심은 우리에게 자비(慈悲)를 토대로 도덕적 용기를 갖게하며 고통받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는 동정과 착취와 고통에서 만물의 해방을 바랠을 품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대의 마지막 운동, 깨달음'을 발표한 도법스님은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한 미혹과 무지로 인해 인간의 고통과 불행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며 "우주적 생명질서에 따라 서로 존중하고 포용하는 논리로 삶을 이끌어갈 때 아름답고 평화로운 삶이 이루어진다"고 강조했다. 비인간화와 생명위기의 상황이 심화되어가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연기법에 따른 세계의 실상과 존재가치를 깨닫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의 길이라는 것이다.

이외에도 '깨달음' '민족통일' '환경' 등 세 주제로 진행된 기념 심포지엄에는 '통일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리영희 한양대 명예교수), '생명의 질서와 새로운 윤리'(김용정 동국대 철학과 명예교수) 등이 발표됐고, 동국대 예술극장을 가득 매운 5백여명의 사부대중은 시종일관 깊은 관심을 보였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창립 10돌 맞은 정토회

환경운동 목표로 설립 JTS 인도·北돕기 활발

80년대 후반부터 불교계 사회운동의 가능성과 저력을 보여온 정토회(대표 법륜스님)가 16일 창립 10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정토회가 걸어온 여정에는 '맑은 마음·좋은 벗·깨끗한 땅'이라는 정토회 실천 지표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의 근본적인 행복을 묻는 화두가 깊이 배어 있다.

포교·복지·평화·환경 등의 분야에서 정토회가 추진해온 각종 사업에서 찾을 수 있는 이 화두는 바로 "인간이 참으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평화롭고 만족스러워야 하고, 기본적인 의·식·주가 보장되며, 사람 사이에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 하고, 자연환경은 쾌적하고 생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토회는 7평 규모의 홍제정토포교원을 거점으로 88년 발족했다. 당시 불교계는 물론 일반 사회에서도 눈돌리지 않았던 환경운동을 위해 첫발을 내딛었다.

이어 국제적인 기아구호사업을 위해 91년 JTS(Join Toghether Society)를 설립, 93년 12월부터 인도의 불가촉천민 지역으로 알려진 둥케스와리에서 우리나라의 초·중학교 교육기관에 해당하는 수자타아카데미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정토회 사회활동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95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북한동포돕기운동이다. 이 운동으로 정토회가 현재까지 모금한 금액은 12억여원. 이 수치는 불교모금사상 가장 많은 액수이다.

이 땅에 정토를 실현하고자 발원한 정토행자들이 93년부터 부처님 열반일을 기해서 1만일결사를 시작한 것도 정토회의 뚜렷한 발자국이다.

현재 1만일결사 중 제2차 천일결사가 진행중이다.

정토회는 현재 서울의 중앙법당과 8곳의 지역법당, 문경수련원, 한국불교환경교육원, 한국불교사회연구소, 정토불교대학, 월간 〈정토〉 등 조직을 갖추고 지구촌 정토 가꾸기에 여념이 없다.

주부신행담

깨달음을 주신 부처님 ③·끝

절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난 소희에게 약속했다. 내가 소희한테 가면 절대로 헤어지지 말고 영원히 같이 있겠노라고. 무릎이 닳도록 절을 하며 다짐 또 다짐했다.

그러나 내 마음 속에서 서서히 자라나던 독소는 소희와 같이 불장난을 하다가 살아남은 은미에게로 향해갔다. 부처님 앞에서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도 은미를 데리고 죽으려는 악한 마음을 먹고 있었던 것이다.

지장보살님에게 매일 같이 기도를 하던 어느날 소희의 천도재를 올렸다. 부처님 앞에 천배도 드렸다. 불자인양 부처님 앞에서 기도를 했지만 그것은 또한 내 마음 속에서 자라나는 독소를 향한 기도이기도 했다. 부처님의 올바른 말씀을 듣고 있었더라면 결코 지지를 생각도 못했을 짓을 소희를 위한다는 생각에 어리석은 짓을 과감히 실행하려 했다. 지금 생각하면 아찔할 뿐이다.

천배를 올린 다음날 난 은미의 집으로 가서 은미를 데리고 나오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오는 순간부터 그 아이는 이미 은미가 아니었다. 마음 속 한구석에서부터 서서히 내 딸 소희로 느껴졌다. 그런 느낌이 너무도 이상했다.


그림·문병성

죽이려던 아이가 내딸로 느껴져…

그래도 난 마음을 다잡았다. 이 아이는 내 딸 소희를 죽게 만든 은미라고. 악해지려는 마음을 다잡고 은미를 집으로 데려왔다.

은미를 죽이지 못하면 실컷 두들겨 패기라도 해야지 하는 악랄한 마음으로 데려왔지만 부둥켜 쥔 은미의 조그마한 손은 너무도 따뜻했다. 자꾸 소희 생각이 났고 나도 모르게 악하게 먹었던 마음이 서서히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그 때 부처님의 엷은 미소가 내 눈에 보였다. 지장보살님의 모든 중생을 구제하신다는 자비로운 말씀이 머리 속을 가득 메웠다. 내가 너무 어리석게 느껴졌고 부끄러웠다. 소희도 은미도 모두 내 딸인데 어떻게 그런 악한 마음을 먹을 수 있었을까. 내 자신이 너무도 소름끼쳤다.

그순간 '나'라는 존재는 가여운 하나의 개체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내 마음에 사무치도록 깨달음이 다가왔다.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큰 자비로 우리 소희를 죽음과 바꾸게 만든 은미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셨구나 싶었다.

은미를 죽이려고까지 마음먹었던 악한 심정을 울면서 참회했다. '소희야 너도 은미를 용서해 준거야. 그리고 좋은 가정에 인연맺어서 못다 산 삶을 다시 한 번 사는 거야. 이제 엄마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은 부처님 전에 열심히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 열심히 기도해 줄께. 꼭 약속하마. 며칠 있으면 너의 열번째 생일날이지. 케익 사가지고 너 있는 곳으로 갈게. 그때 우리 많은 이야기하자.'

지금은 내 마음도 어느 정도 편안해 졌고 웃을 수도 있다. 난 사랑하는 내 자식을 잃고 나서야 부처님께 귀의하게 되었지만 열심히 정진하고자 한다. 부처님께서 나를 감싸주신 덕에 악한 마음을 버리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먼저 간 우리 소희를 위해서도 경생토록 참회하며 살 생각이다. 내게 올바른 마음을 일깨워 주신 부처님을 경배하며 자리이타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이은희〈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노래에 맞춰 율동을 선보이는 법화사 새싹불자들.

제주 법화사 어린이회 창립

서귀포지역 어린이 2백50명 가입

11일 오전 11시 법화사(주지 시몽스님, 제주도 서귀포시) 대웅전 앞마당은 풍선을 들고 삼삼오오 짝지어 뛰어다니는 어린이들과, 그 광경을 지켜보는 사부대중들로 가득 메워졌다. 잠시 후 연단에 올라선 한북스님이 마당의 부산함을 정리하며 법화사 어린이법회 창립제를 시작했다.

"불교가 무엇이예요." 한북스님의 질문 한마디에 지금까지 풍선과 친구들과의 놀이에 푹 빠져 있던 아이들이 연단 앞으로 모여들더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함으로써 스스로 부처가 되기 위한 종교예요"라고 대답했다.

어린이법회 시작과 함께 정연한 모습을 찾은 2백50여명의 어린이들에게서 먼훗날 제주도 서귀포시의 불교 위상을 가늠케했다.

어린이법회의 준비를 도맡아 온 한북스님은 "창립제까지 해서 12번의 어린이법회가 봉행됐다. 어린이법회는 장소와 한스님의 원력만으로 성사시킬 수 없는 일이다"며 "그동안 사전연습과 같은 어린이법회를 봉행하면서 프로그램 개발, 어린이지도자들의 교육, 지역 주민과의 유대 개선 등 부대사업들도 병행했다"고 설명했다.

'꿈나무' 키우는 푸른도량

목동청소년회관 26일로 개관 10돌

69개 강좌…21세기 정보화 산실 지향

청소년 문화활동의 요람인 목동청소년회관이 26일 개관 10주년을 맞는다.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형성과 자아개발을 통한 청소년상 정립을 위해 서울시로부터 전국비구니회가 위탁·운영해온 회관은 '서원, 자비, 인욕, 정진'을 관훈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청소년 복지를 통해 구현해왔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88년 회관 개관 당시 서울시에 위치한 청소년회관은 기독교 운영의 묻래청소년회관을 포함 총4개였다. 따라서 교계의 회관 위탁은 청소년 포교의 주춧돌이자 청소년 복지의 단초를 마련한 혁신적인 사건이랄 수 있다.

현재 목동청소년회관은 청소년, 유아, 어린이, 직장인 및 주부를 위한 교양 취미 체육 등 전국서 가장 많은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이중 비행청소년을 위한 '일탈 청소년 제자리 찾기'를 비롯해 교육문화사업 6개 분야 31개 프로그램(회원 7백28명), 사회체육사업 4개 분야 26개 프로그램(회원 1천7백26명), 상담사업 1개 분야 12개 프로그램(회원 62명)으로 총 11개 사업 69개 강좌는 청소년 보호와 육성에 모범을 보이고 있다.

관장 명우스님은 "21세기를 앞두고 청소년 포교의 새로운 방향제시가 절실해지는 시대적 요청 속에서 정보문화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문화시설 제공과 새로운 대안으로 청소년 지역사회교육장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청소년단체 지부설립 잇달아

대구 파라미타 동화사서 31일 출범

청교련 내달중 강원·해남에 교두보

대구광역시, 강원도, 전라남도 등에 청소년 포교의 교두보가 될 지부들이 연이어 창립될 전망이다.

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현근스님)는 31일 동화사에서 대구지부를 마련하고 청소년교화연합회(회장 현성스님)도 내달 중순 강원지부와 해남지부의 개원을 앞두고 있다.

대구지역 중·고등학교 불교학생회를 중심으로 창립될 파라미타 대구지부는 지거스님(동화사)이 산파역할을 맡고 있으며, 이미 4백여명의 '예비' 회원들이 포진한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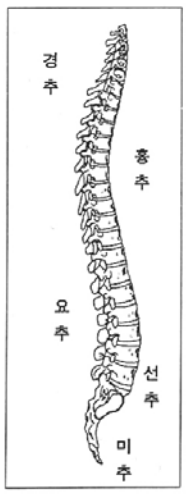
지거스님은 "지역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불교를 접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슬라이드 영상매체 등 청소년들에게 친숙한 매체를 통한 포교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도에서 자연학습원을 운영하고 있는 현각스님(성불원 주지)은 자연학습원을 이용한 청소년 포교 전략을 세워 놓고 청교련 강원지부의 개원을 서두르고 있으며, 영주스님(전남 봉우사 주지)은 청교련 해남지부의 창립을 손꼽고 있다.

영주스님은 "전남지역은 인구비례로 계산해볼 때 기독교가 우세한 특수한 지역"이라며 "청교련 해남지부의 결성을 계기로 이 지역 청소년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명예퇴직창업
MBC출발 달리는 새아침 김우현회장 활법 6개월간 강좌



경추 1~7번: 두통, 신경질, 불면증, 고혈압, 만성피로, 편두통, 뒷골아픔, 어깨통증, 목덜미가 뻣뻣함

흉추 1~12번: 심장, 폐, 간장, 당뇨, 위장질환, 신장, 불임병

요추 1~5번: 요통, 하지순환불량, 좌골신경통, 하복부통증

선추: 생식기계통, 정력증강

▸특 전
1. 법개정으로 누구나 본협회 자격을 취득후 사무실의 평수와 관계없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활법원을 운영할 수 있음.
2. 교육수료자는 "세계공인활법사 5단증, 사범기공사, 스포츠 맛사지사, 카이로프락틱사, 운동회복사 자격증" 부여

스님·법사·포교원운영자·물리치료사·침구사·대체의학연구자

▸교육내용
1. 활법기초이론 (해부학, 생리학)
2. 활법교정술 (경추, 흉추, 요추)
3. 스포츠맛사지교육 (지압)
4. 카이로프락틱교육 (짝다리교정법,즉시효과)
5. 사지관절교육법
6. 기공술
7. 운동회복법 (저항운동법)
8. 자연건강법
9. 내장부활운동법
10. 협도자극운동법

▸교육안내
교육기간:5박6일(속성반), 3개월반.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수업시작

준비물:
1. 교육비 및 회비2. 사진 3×4:10매
3. 주민등본:1통4. 신청서:협회에 비치됨

※연락주시면 안내서 보내드림.

【 특허청등록원 제13235호 】
사회단체 세계건강활법협회
본부연수원: 0571)855-6461/859-4156, 02)522-1122, 011)522-1122

불교 명예 학인 모집
본 교에서는 대구·부산에서 3년동안 무료로 공부하고 졸업할 수 있는 특별 장학생(명예학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동참바랍니다.

● 모집내용 ●

■ 부 산
1 강의일시 : 매주 금요일 오전반 10시~12시 / 오후반 2시~4시
2 강의장소 : 좌천동 우체국옆길·파란들가구3층 (한국승가대학원 부산강의실)
3 모집인원 : 오전반·오후반 각○○명
4 졸업혜택 : 3년무료(교재·회비일체)·졸업증서 및 자격증수여

■ 대 구
1 강의일시 : 매주 화요일 오전반 10시~12시 / 오후반 2시~4시
2 강의장소 : 신암2동 강남 APT 정문 서쪽 2층 (한국승가대학원 법화경연구소)
3 모집인원 : 오전반·오후반 각○○명
4 졸업혜택 : 3년무료(교재·회비일체)·졸업증서 및 자격증수여

UN·IAEWP 지정·평화교육기관
한 국 승 가 대 학 원
책임교수 최 광 영(공덕)
053-952-8711·017-501-8711

청국장은 암예방 및 장수식품


MBC 방영

제3753호 특허품


KBS 방영

청국장 발효제 쿠쿠

최고賞

구수한 맛을 살리고 주변에 풍기는 지독한 냄새 제거



■ 다기능
● 청국장
● 요쿠르트 (딸기,사과,프도)
● 식혜
● 보온밥통 겸용

완전자동!!

■ 특별보급가:₩170,000
■ 분 할 가:₩30,000×7회

연구개발 한국청국장연구소

보급처: 한마음 ☎ 051)865-1182 하나하나빨리 ♣크로바서비스:080-007-1182
전국 어느곳이든 배달가능!

부다피아

http://mall.buddhapia.co.kr

buddhapia shopping mall

부처님의 말씀과 향기를 느끼실 수 있는 기회를
부다피아 쇼핑몰에서 만나세요

주문방법
전화및 팩스로 주문해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TEL 02-732-1522 / 737-8861, FAX 02-737-0697)

배송
구매하신 제품은 입금 확인 후, 7일이내에 전국으로 배송해 드립니다
(50,000원 이상 구입시 무료 배송) * 다량 구입시 할인하여 드립니다

한국불교의 현황을 집대성한 1998년 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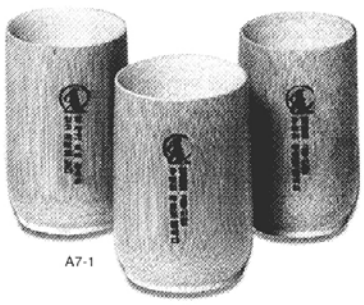


1) 한국불교의 현황 최근의 한국불교계 흐름을 약술
2) 종단 불교종단 50여곳의 현황을 수록
3) 법인 불교관련 법인 150여곳의 현황을 수록
4) 불교단체 / 기관 불교단체 및 기관 4,000여곳의 현황을 수록
5) 불교관련업체 불교관련 업체 1,000여곳의 현황을 수록
6) 사찰 국내외 사찰 포교당 13,000여곳의 목록을 수록
7) 인명 승가 및 재가불자 여명의 개인 인명자료를 수록
8) 불교문화재 초판 이후 추가 지정된 200여건의 불교관련 문화재 목록을 수록
9) 불교도서논문 초판 이후 추가 간행된 3,200여건의 불교관련 단행본 및 학사학위논문 목록을 수록
10) 한국불교연표 초판 이후 한국불교 관련 사건을 수록

4×6배판 / 1144쪽 / 양장제본 /
가격 ₩ 120,000

대나무 잔

완전 자연산 대나무로 가공한 제품 대나무 한 마디를 가공 하므로 크기(지름)는 일정치 않으며 차의 대나무 향이 어우러진 차 맛이 일품 입니다



A7-1

크기 9(세로) 5~7(지름)cm
가격 : 낱개 ₩ 8,000

법성게 걸망



A12

크기 500×460 (㎜)
색상 회색, 밤색, 진베이지색
가격 : ₩ 15,000

생광석 108염주

생광석에서 방사되는 세포 활성 에너지에 의하여, 생광석 108염주와 밀착된 부위의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다음과 같이 건강에 도움을 드립니다



A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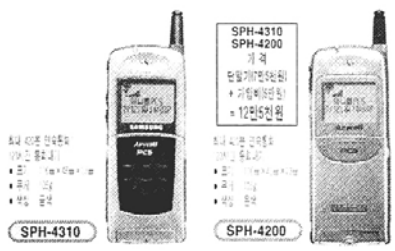
1. 손에 쥐고 기도하시면 손이 부드럽고 유연하여 지며
2. 목에 거시면 목이 부드럽고 유연하여 집니다
3. 어깨 부위에 올려 놓으시면 어깨 결림이 현저히 줄어들며
4. 팔목이나 팔에 감으시면 팔목이나 팔의 통증에 큰 도움이 되며
5. 피로가 훨씬 덜하고 기분이 상쾌하며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가격 : ₩ 35,000

가격 비교? … 고민 끝!

최신기종, 최저가격, 최고보시 PCS장만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최신 애니콜 PCS



손 안에 쏙 들어오는 초소형 초경량 최적크기 기본은 무게론 휴대기 간편합니다



G2

G2 · F21

가격 : 단말기(핸드폰)+가입비(만원) = 7만원

우리 기술로 만든 한방 미용 비누



A14

- 독특한 향 + 부드러운 촉감 + 미용과 영양기능
- 피부미용에서 미백효과는 물론 지연면역기능까지
- 한방 재료 추출물을 첨가하여 한국인의 체질에 맞게 만든 무공해성 신토불이 비누 · 99.9% 천연 소재 사용

■ 호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공학박사 이 기 영
"오보크린"은 경해로 인해 오염된 피부를 깨끗이 씻어내고 피부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할뿐만 아니라, 주수한 항균력과 면역기능까지 부여한 첨단생물공학적 고기능성 건강미용비누라고 생각합니다

■ 카톨릭대학교 환경학과 교수 이학박사 김 영 준
대기 및 실내에 산재된 각종 유해 중금속입자 및 오염물질들을 신속하게 제거해 주는 "오보크린" 건강미용비누는 이들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도시인들에게 건강한 삶을 제공해 줄 것이라 기대됩니다

■ 강원대학교 축산기공학과 교수 이학박사 최 연
세면비누는 이용등 수돌이지만 "오보크린"처럼 과학적으로 입증된 항균성돌질과 피부노화방지물질 등을 천연소재로부터 추출하여 합기한 "건강기능성비누"는 처세대 이미지의 상품이다

가격 : ₩ 18,000 (1세트 : 3개)

도자기 연꽃 향초

은은한 향기와 함께 세상을 밝히는 도자기 연꽃 향초! 가정의 장식용 소품으로도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량 주문시 할인가능 합니다

- 도자기 안에 있는 초를 모두 사용 하신후 낱개 초를 넣어 계속 사용할수 있습니다
- 향꽃이로도 사용할수 있습니다

크기 기로 5.5㎝, 세로5.5㎝

가격 : 도자기 연꽃 향초(레몬향) ₩ 3,000
향초(레몬향) 1set(10개) ₩ 5,000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한국 전통 미술의 백미를 천대 미술로 재현하여 귀한 분들께 마음의 선물로 전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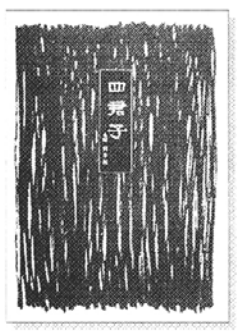
A4-1 A4-2 A4-3
골동품형 개금형 브론즈코팅형

재질 100% 청동
종류 브론즈코팅형 골동품형 개금형 크기 40.5 ㎝

가격 : ₩ 350,000 (코팅형, 골동품형)
₩ 580,000 (개금))

선화로 가는길 四君子

'사군자'를 통하여 선화의 세계로 발걸음을 내딛는다
국내 최초의 사군자 기법의 체계화 단순화 기법의 안내서가 아닌 배우는 분의 창의력을 지연스럽게 유도해 주는 동반자격인 책



四君子

목차가 화두상의 소재로써 쓰이기 시작한 것은 중국의 오대(五代)때이며 인물화조화(人物花鳥畵)의 일부 형태로 송대(宋代)에서 지극히 미약했고 독립된 소재로 발전 된 것은 북송대원초의 성시기로 신순한 중인(衆人)이었다 그는 소동파 황정견등의 교유에서 주현히 대나무의 성은 그당시가 읽기는 것을 보고 그 소재한 맛이 너무 좋아 붓으로 형태를 그리다가 복제법이 필법그대로를 연결 되었다고 한다 전은 선승인 보고하죠에 의하 이론적 체계라기 보다는 시적 고려 주기부터 나무와 더불어 그려지기 시작해서 고려후기와 조선시대에 절정 문인 사대부들의 심중 화풍하고 심미(美)를 표출하는 데서로 크게 유행하였다

(본문내용 중)

가격 : 최고급 양장 ₩ 120,000 (부록포함)
타블로이드 판 / 253쪽

기도 청자 세트

하나 하나 도공이 직접 구워낸 이천 기도 청자 세트
앙을각 세공을 도공의 손으로 직접 조각하였습니다
제품 하나마다 도공의 숨결이 느껴집니다
제품마다 정성이 가득합니다



응 도
· 추석 등 명절 선물용, 야외 기도 기정 기도, 제사, 신소등 응도다양
포장재질
· 천연 오동나무
규 격
· 청자향로(8㎝×5㎝) 1개
청자촛대(6㎝×4㎝) 2개
· 양초 향 각 한질,
촛대 비람락이2개

강력한 키실리안(Kurilian) 이 유해 전자파를 흡수, 용해 합니다

가격 : 1세트 ₩ 2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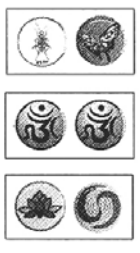
강력한 신소재 전자파 제거장치

인체의 뇌파는 미세한 마이크로 웨이브 이지만 핸드폰은 900메가헤르츠의 전자파를 발산하며 뇌중앙 유선등의 방울 유발합니다. 본 제품을 붙이기만 하면 안심" 핸드폰을 들고 붙이기 전에 오링테스트 해 보고 붙이고 나서 오링테스트 해 보시면 깔짝놀랄 정도로 달라짐을 알 수 있습니다



강력한 키릴리안 (KIRILIAN)이 유해전자파를 흡수 용해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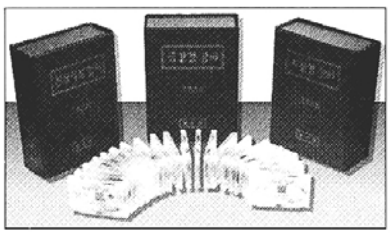
모든 전자기기의 성능이 좋아집니다



응도 휴대폰, 헤어드라이기 컴퓨터, 전기면도기, 진공청소기, TV 믹서 등과 수력파
규격 2개 1세트

가 격 : ₩ 9,000

무비스님 특강 녹음테잎



무비스님의 경전강의를 접해 보셨습니까?
비쁜일상 생활이지만 잠시라도 시간을 냄수 있다면 혼잡한 마음을 조용히 하고 꼭 들어 보십시오 무비스님이 직접 전해주는 감로수 같은 일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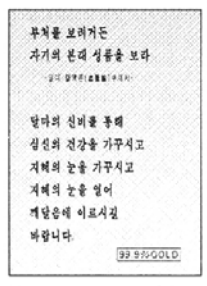
- 금강경 강의 : 테잎20개 45,000원
- 지장경 강의 : 테잎20개 45,000원
- 진심직설 강의 : 테잎20개 45,000원

화엄큰스님의 祖師西來意 달마도 보급

(순금 레스토트로 만들었습니다)

회엄큰스님 달마도를 항상 기까이 두고 공부한 덕으로 심신의 건강을 가꾸시고 지혜의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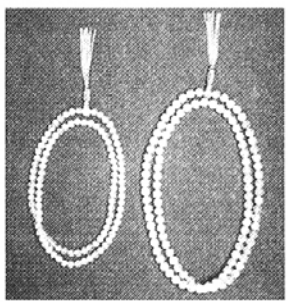
특 징 순금을 최대한 얇게 폴아 주머니속 지갑속에 넣어다닐 수 있게 제작하였습니다
재 질 순금99.9% 크 기 5.2㎝ × 7㎝

가 격 : ₩ 20,000

순금 99.9%

건강 옥 염주

옥은 군자의 길에 비기며 회남자 요화구에는 천지의 정(精)이라고 하였다 옥을 지니고 있으면 여러 질병을 예방해 준다고 하였다 이미 알려진 사실로서 몸에 지니면 기를 발산하여 고혈압 두통 소화불량 신경통 등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며 보석에 버금가는 대단한 아름다움을 겸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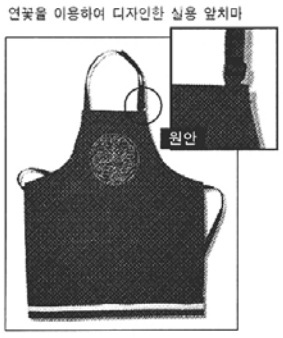


추석 선물용으로 좋습니다

증 류 청옥 백옥염주(小) ₩ 30,000
청옥 백옥염주(大) ₩ 40,000

앞치마

연꽃을 이용하여 디자인한 실용 앞치마



원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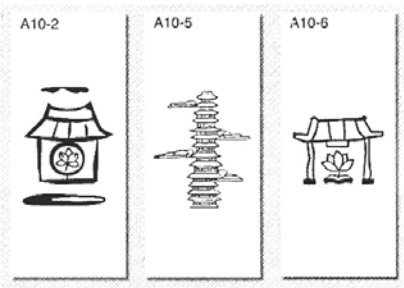


내부그림

색상 지주색
재질 T/C (면 혼합)
가격 ₩ 5,000
(100장 이상 주문시 원하는 인쇄 가능)

내부그림

기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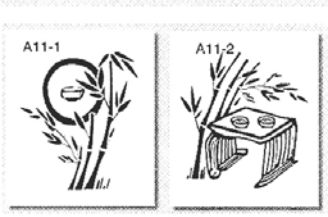


A10-2 A10-5 A10-6

다양한 불교적인 문양과 그림으로 선택하실 수 있는 폭이 넓어졌습니다 기도하실때 한결 더 부처님과 가까워 질 수 있습니다

대(大)
기장 84㎝ 폭 39㎝
가격 ₩ 1,600

▶ 원하시는 문구를 넣어드립니다 (100장 이상 주문시)



A11-1 A11-2

다포

기장 50㎝ 폭 39㎝
재질 면
가격 ₩ 800

▶ 원하시는 문구를 넣어드립니다 (100장 이상 주문시)



A9-2

반야심경 종 차걸이

맑은 종소리가 듣는 이의 마음을 편안히 해주는 제품입니다
(종에 반야심경 인쇄)

가격 : 낱개 ₩ 9,000

▶ 법보시 하실 경우 할인 가능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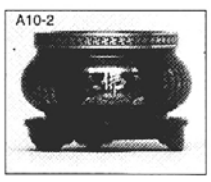
단주 열쇠고리

다양한 칼라 디자인



A9-1

증 류 검정, 밤색, 흰색
가격 : 낱개 ₩ 3,000



A10-2

반야심경 향로

청동제품으로 향로 주위에 반야심경 경전 문구 인쇄

가격 : ₩ 25,000

서옹 큰스님 불(佛)자 액자

서옹 큰스님의 불(佛)자를 공예작가 범오신생이 동판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소장하시면 큰스님의 맑은 기운을 느낄실 수 있습니다



A8-1

재질 동
특징 수공에 작품
규격 39㎝×43㎝

가격 : ₩ 50,000

관세음보살보문품 족자

이 경전은 관세음보살이 32가지 모습으로 나투시어 지비로 중생의 재난을 구제하고 소원을 모두 이루어 주신다는 절대신앙을 바탕으로 성립되었습니다.
관세음보살보문품이 널리 독송된데는 다음과 같은 까닭이 있는데, 이 경전을 외우고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면 팀곱 가지 모진 재난을 파하고, 탐, 진, 치의 심독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모든 소원이원만하게 이루어 진다는 말을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중생들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 관세음보살은 32가지의 모습으로 화현하신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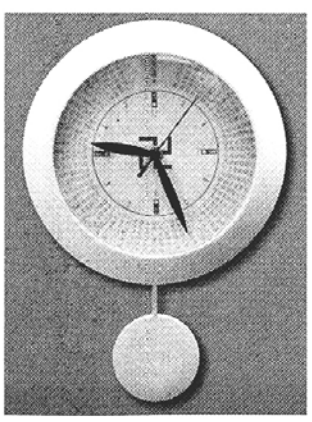


내부그림

A11

색상 진녹, 검정 비탕색에 금색 인쇄
크기 55㎝(가로) 140㎝(세로)
재질 후로킹
특징 변색이 없음

가격 : ₩ 30,000 (족자걸이 포함)



육바라밀 벽시계

항상 보는 시계에서 정진의 힘을 얻는다!

부처님의 말씀 육바라밀과 보왕삼매론을 시계에 접목시켜 디자인하였습니다 시간을 초월한 부처님의 말씀을 항상 가정에 두시고 부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수 있는 기회가 되실것입니다

육바라밀 생사의 고해를 건너 이상경인 열반의 세계에 이르는 실천 수행법인 육바라밀(六波羅蜜)은 보시(布施) · 지계(持戒) · 인욕(忍辱) · 정진(精進) · 선정(禪定) · 반야(般若)라고 하는 여섯 가지 실천덕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색상 백색원판에 4도칼라
크기 200×260×60㎜
원판내용 육바라밀 보왕삼매론

가격 ₩ 15,000

* 50개이상 주문시 원하는 경전문구 삽입 및 디자인 해드립니다.

문구암스님 범음 · 범패집



1 불공의식
2 심신이운
3 신정청 · 신중권공
4 상단청
5 상단권공 · 거목
6 대령 관욕의식 I
7 대령 관욕의식 II
8 대령 관욕의식 III
9 영반 · 목청소리 · 대천수소리
10 영산작법 I
11 영산작법 II
12 영산작법 III
13 영산작법 IV · 지장청사 I
14 지장청사 II · 지장권공 I
15 지장권공 II
16 전시식
17 배송
18 운심게
19 법시이운 · 영전점안
20 증성 · 천수작법 · 요잡

인간문화재 문구암 스님께서 직접 녹음하신 카세트 테잎 1질
· 불공의식, 심신이운, 영산작법, 대령, 관욕의식등 분야별로 녹음되었습니다

가격 : ₩ 50,000

법회안내



성수스님 (법수선원 조실)24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천안 천불사 초청 대법회. (C417)557-3223



청화스님 (성곡사 조실)11월 7일 오후 3시 동산교육회관 전국염불만일회 초청법회. 11월 14일 오후 2시 동국대 정각원 우리는 선우 큰스님 초청법회. (02)278-8672



일타스님 (해인사 지족암) 11월 1일 불교신행연구원 불교문화기행 일타스님 친견법회. (02)582-6613



보각스님 (승가대 교수) 28일 오후 2시 불교방송 10월 다보법회. (02)703-0108



최혜명법사 매월 첫째주 일요일 오전 10시 검단산 통일정사 법회. 매월 음력 1일 오전 9시 남한산성 백련사 〈천수경〉 강의. 매월 음력 15일 오전 9시 남한산성 백련사 〈반야심경〉 강의. (0342)734-5888

■ 법회안내를 원하는 사찰·단체는 법사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성실히 게재하겠습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신행 캘린더

10월22일 (목)

■삼사순례기도법회=무진법장사는 오전 7시 미륵신앙의 근본도량인 김제 금산사와 비구니 스님들의 참선도량인 완주 위봉사, 그리고 논산 관촉사의 은진미륵불을 참배하고 기도하는 삼사순례기도법회를 떠난다. (02)932-2333

■불교교육연합회 교학연구 발표회=불교교육연합회는 오후 7시 대전 아드리아 호텔 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23일에는 보문 중고등학교에서 '선수련이 자아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제28회 교학연구를 개최한다. (02)249-4192

10월23일 (금)

■IMF시대 각 종교가 본 결혼관·이혼관=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IMF불확실성시대 각 종교가 본 결혼관과 이혼관' 세미나가 열린다. 한국불교전국여법사회 성순경이사장이 불교부분 주제발표를 한다. (02)395-2571

■성철선사상연구원 제2차 학술회의=오후 1시 대학문화원 대강당에서 '선불교와 사리탑'을 주제로 성철선사상연구원(원장 목정배) 제2차 학술회의가 열린다. (02)265-5215

■적멸보궁 성지순례=통도사부산포교원(원장 심산)은 24일까지 정암사, 법흥사, 상원사 등 3대 적멸보궁 성지순례를 떠난다. (051)816-2241

10월24일 (토)

■화엄십선계 수계법회=우리는 선우가 창립 7주년을 맞아 오후 2시 수유리 화계사에서 화엄십선계 수계법회를 봉행한다. (02)278-8672



◇아름다운 가을,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려있는 적멸보궁 순례에서 마음의 결실을 맺자. 정암사 적멸보궁.

■초발심자경문 윤독법회=한국스카우트 불교지도자회는 오후 3시 다보빌딩 15층에서 〈초발심자경문〉 윤독법회를 갖는다. (02)292-8502

■봉정사·부석사 답사=답사여행의 길잡이 터사랑은 저녁 7시 30분 부석사 가을단풍과 고건축의 만남을 위한 답사기행을 떠난다. 봉정사-병산서원-하회마을-부석사 등지를 답사한다. (02)725-1284

■내장사·동학유적지 답사=국토문화연구회 옛돌은 밤 10시 정읍 내장사-단풍터널-동학운동전적지-녹두장군 옛집-만석보터 등지로 답사를 떠난다. (02)275-4333

■선남선녀 인연찾기=능인결혼상담실은 능인결혼예식장에서 제4회 선남선녀 인연찾기 행사를 오후 4시에 실시한다. (02)577-5800

■제9회 전국승가학인대회=오후 1시 도약의 21세기를 준비하기위한 제9회 전국승가학인대회가 화성 신흥사에서 25일까지 열린다. (0599)32-4471

10월25일 (일)

■한정섭법사 화갑기념 문집봉정법회=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한정섭법사 화갑기념 기산종사문집봉정법회가 열린다. (02)962-1666

■야외염불수련법회=전국염불만일회는 전남 대원사로 야외염불수련법회를 떠난다. (02)732-1215

■광주불교교육원 불교문화 유적답사=오전 7시 '염화미소에 담기 큰 가르침'이란 주제로 백제지역의 폐사지와 서산 마애불, 보원사지, 화전리 사면불, 태안 마애불 등을 돌아본다. (062)228-9098

■IMF이웃돕기 기금마련 백팔심경 도서전=IMF이웃돕기 기금마련 석천 이경희 백팔심경 도서전(陶書展)이 30일까지 세종문화회관 제3전시장에서 열린다. (02)544-2920

■부산중학생불교연합회 체육대회=부산중학생불교연합회(회장 서정락)는 오전 10시 부산 해동중학교 운동장에서 제15회 체육대회를 개최한다. (051)817-26648

10월27일 (화)

■종교음악제=대한민국종교예술제의 일환으로 오후 7시 예술의전당 음악당에서 종교음악제가 열린다. (02)580-1114

10월28일 (수)

■법현스님 자전에세이 출판회·음악회=오후 7시 한국일보콘서트홀에서 법현스님 자전에세이 출판기념 및 더불어사는 음악회가 열린다. 수익금은 양로원에 위문품으로 전달된다. (02)338-4595

종단소식

조계종

대흥사 성보박물관 개관

해남 대흥사(주지 보선)는 11월 17일 대웅보전 중창불사 낙성식 및 성보박물관 개관식을 각각 봉행한다. 또 대흥사는 이날 만등불사도 개최할 예정이다.

석왕사 창건 22주년 법회

부천 석왕사(주지 영담)는 창건 22주년을 맞아 20일 기념법회및 미얀마불상(석가모니부처님) 점안식을 시작으로 27일까지 큰스님 초청특별법회를 개최한다. 한편 25일에는 장례의례 종합법당인 왕생극락전 개원 1주년 기념 합동천도재도 봉행한다.

태고종

승려·교임 추가 연수교육

총무원(원장 인곡)은 승려 및 교임 연수교육을 15~16일 1박2일의 일정으로 서울 종무처 설법전에서 추가 실시했다.

이번 추가연수교육은 11월경에 있을 법계고시에서 지난 9월 연수교육에 참가한 종도들에게 가산점을 주기로 결정함에 따라 그 기회를 더 많은 종도들에게 주고 연수교육을 빠른 시일 내에 정착시켜나가기 위한 조치로 개최됐다.

백진결사, 국난극복 방생



백진결사(회장 일로스님·사진)는 22일 충북 영동 송호리 송호관광단지에서 오전 11시 국난극복 수륙방생대법회를 봉행한다.

백진결사는 95년 20여명의 스님들이 종풍확립 및 종단개혁을 목적으로 결성한 종단 산하단체이다.

천각종

종조열반 35주 추념불사



제 35주기 종조열반절 추념불사가 16일 총인원 종조전에서 신도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추기 스승강공 실시

교육원(원장 일정)는 20~21일 총인원에서 종단 산하 전 스승 및 종립학교 정교를 대상으로 추기 스승강공을 실시했다. '생활불교, 실천불교'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강공에서는 종조 회당대정사의 창종정신을 기려 스승의 위상을 정립하고 교화발전에 힘쓸 것을 결의했다.

총지종

추기강공·예산심의

통리원(원장 총지화)은 21~23일 총지사에서 추기강공을 실시한다.

추기강공은 불공, 정신교육, 경강공, 승단총회, 열반스승 추선불사 등으로 진행된다. 또 이번 강공에서는 98년 통리원 및 전당건설, 유지재단의 추경 수입·지출 예산심의와 내년 예산안을 심의한다.

한국법륜종

1백여 스님 법계고시

법계고시위원회(위원장 혜봉 교육원장)은 16일부터 21일까지 서울 광진구 중곡동 용암사에서 법계고시를 개최했다. 1백여명의 스님들이 참여한 이번 법계고시는 선덕·중덕·대덕은 논술고사로, 종사·대종사는 논문심사로 치뤄졌다.

조동종

11월 대인사에 총림개원

총무원(원장 송정)은 13일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11월22일 김해 대인사에서 총림 개원현관식을 갖기로 결의했다. 또 이날 보살계 수계법회, 종단가사봉정식도 봉행한다.

알림 본란은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란입니다. 각 종단 총무원 및 지방 종무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게재해 드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게시판

♣ 알림

△생명나눔 기금마련위한 하루찻집=생명나눔실천회는 23일 오전 10시~밤 9시까지 조계사앞 샘터다방에서 생명나눔기금마련을 위한 하루찻집을 연다. (02)734-8050

△청각장애인 위한 하루찻집=광림사 연화복지학원은 25일 오전10시~오후7시 키노하우스에서 청각장애인 무료운전교습용 차량마련을 위한 하루찻집을 연다. (02)202-5831

△주민도서실 개방=삼전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주민을 위한 주민도서실을 개방한다. 매주 월~금요일 오후 1시~5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02)421-6077

♣ 강좌

△간병인교육=두송종합사회복지관은 26일~29일 두송복지관 자원봉사자실에서 '가정보건교육의 이론과 실기'라는 내용의 간병인 교육을 실시한다. (051)265-9471

♣ 모집

△가산불교문화원·삼학원 교육생=가산불교문화연구원과 불교원전전문학림 삼학원에서는 불교원전연구과정, 불교어학연수과정, 근본경전강독 과정 등 98년도 2학기 교육생을 모집한다. (02)765-9602

△가정구급침술대학생=가정구급침술대학에서는 제2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22일부터 3개월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불가침구학회 사무실에서 강의한다. (02)725-2999

△방과후교실 자원봉사자=능인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통합방과후교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주 1~2회 학습지도, 예체능지도, 놀이 및 생활지도 등의 활동을 하게된다. (02)571-2988

△무의탁노인 생신잔치 물품후원=연꽃마을 송파재가노인복지센터는 송파구내 무의탁독거노인을 위한 생신잔치에 쓸 물품을 후원받는다. (02)203-3677

△효도관광 후원인=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무의탁독거노인을 위한 효도관광에 물품이나 후원금을 지원하거나 자원봉사자를 해줄 후원자를 모집한다. (02)282-1100

△색종이 접기 수강생=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색종이 접기 지도자 양성반을 모집한다. 4개월 단위 과정으로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강의. (02)852-0525

△어진간병인 교육생=불교자원봉사연합회는 제5기 주부 및 준고령자 어진간병인 교육생을 모집한다. 교육비는 무료. (02)723-6258

△주간보호센터 이용자=개금사회복지관은 60세 이상의 경증치매노인 및 거동불편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 기능동작훈련, 취미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주간보호센터 이용자를 모집한다. (051)893-5034

△결식노인후원자=불교신행연구원은 장충단공원에서 실시중인 결식노인 점심공양 후원자를 모집한다. (02)582-6613

△피아노교사=길음종합사회복지관은 어린이와 청소년, 성인들에게 피아노를 지도할 피아노강습교사를 구한다. 피아노 전공자로 1년이상 근무 가능자여야 한다. (02)985-0161

♣ 이전

△국제불교도협의회 사무실 이 부산시 진구 부전2동 168-291 한효빌딩 203호로 이전했다. (051)805-9203

△부산불교실업인회는 최근 부산시 동구 범일2동 830-293 삼한오피스텔 907호로 이전했다. (051)637-7174

염불 禪 주말 수련회 (토요일 저녁9시 / 일요일 아침7시)

와서 보라! 수행비전의 완벽한 테크닉을!

- 목탁치지 않고 자성의 운률에 맞춰 힘차고 박력있게 경쾌하고 신명나게 재미있고 리드미컬하게 행주좌와 동정간에 자동으로 염불되고 단전호흡되는 한국불교 전래이래 처음 공개되는 염불禪 수행법
- 큰소리로 장시간 염불해도 절대 목이 아프거나 쉬지않고 오히려 목소리가 트이며 말더듬, 실어증이 극복되고 가슴이 탁트여 시원해지며 피로감을 모르는 용맹정진시 용이한 수행법
- 염불 수행시 허가 이완되어 입천장을 탁탁치면 대뇌가 각성되어 또렷또렷해지며 졸음과 혼침이 극복되고 침은 저절로 넘어가며 중단전의 맺힌 기가 풀리며 스트레스는 저절로 해소되고 올곧은 자세가 계속 이어진다.

♣ 근심 걱정의 악업이 가슴에 맺힌 한이, 병고액난의 괴로움이 번개치듯 녹아내리고 문제해결의 지혜가 순간 떠오르며 간절한 소원은 즉각이루는 기도 수행시 가장 용이한 염불법이다.

- 독경을 잘하려면 세로쓰기 한글 경전을 한줄씩 읽고 왼손가락을 하나씩 헤아리면 오른뇌의 직관이 열리며 집중력 기억력 좋아지고 컨뇌망상의 잡념이 현저히 줄어들고 또렷또렷하고 정신맑은 상태로 독경삼매 이른다.

※ 호흡에 맞춰 절하는 법
들숨과 날숨과 숫자를 절 동작에 대입하면 자동단전호흡되고 또렷하게 숫자가 헤아려지며 삼천배를 하여도 절대 숨차거나 헐덕대지 않고 몸살나지 않으며 힘들지 않는 가장 진보된 수행법이며 최고의 건강법이다.

※ 대입수험생을 위한 3천배 100일기도 봉행 : 동참자 사진지참

- 수행내용 : 한글금강경 봉독, 석가모니불 염불정근, 참선, 와선, 행선, 호흡에 맞춰 108배, 도인건강법, 축원기도 7회
- (예약수련 20명, 넉넉한 목장, 초심자 기본수행법교육.
- 불자기업 오스트세이빙테크(주)에서 수련회비 일체를 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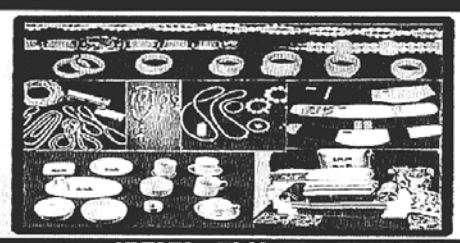
아름다운 소리산 물빛고운 소금강 법왕정사 수행원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인이피 마을) 소리산 참선캠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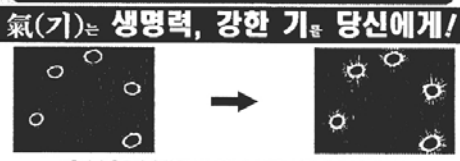
수행전문상담전화 (0338)771-7745 (오후 1시~8시)

금강산처럼 수려한 소리산 16만평의 영지에 위치한 청정한 수행전문도량임

춘천 옥산가 옥의 신비!



氣(기)는 생명력, 강한 기를 당신에게!



▲옥산가 옥목걸이 착용 10분후 찍은 손의 분광 파장대 확방하다
인족 사용전 1.5μV 인족사용후 3.0μV로 체내전압 상승

'보석' 인가? '영험한 치료제' 인가!

혈액순환, 고혈압, 당뇨, 신경통, 관절염, 으십견, 두통, 불면증, 심장병, 치매방지, 신장염, 갱년기장애, 피부미용, 생리통, 요통, 스트레스, 홧병, 노화방지…

꾸준히 사용해 보십시오. 참으로 잘 듣습니다.

북경중의원 부속중의연구소 임상실험
중국내 난치병 환자를 상대로 임상실험 결과 불면증 96.9%, 심장질환자 92.9%, 귀울림병 91.3%, 어지러움증 91.3%, 두통 83.3%, 고혈압 77.8%, 관절염 60%의 놀라운 치유 효과를 기록했다.(93. 2. 17)

玉도자기 玉이불 金賞 수상
이국 제10회 국제발명품전시박람회

옥산가 옥이 의약품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의서 本草綱目에 진옥은 백병을 다스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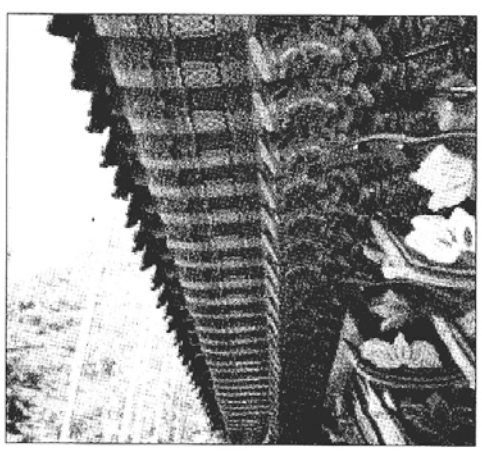
玉山家 옥만을 직접에서 사이만 효과가 있습니다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번지 (쁘렝땅 백화점 지하상가 입구) 是空 合掌

玉山家® (02)777-0105 (우편판매可)

金堂藝建

목조건축(신축 및 보수전문), 단청, 탱화 개금 불상, 시왕개채, 불사 문의 및 상담



문화재 관리국 등록

보수 357호 황규원 단청 352호 박정환
보수 502호 박정환 화공 1008호 심철호

(711-830)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명곡리 197-7 화원빌딩 4층
사무실 : (053)639-0407~8
F A X : (053)639-0407

장가안가길잘했네

베스트셀러 「저거는 맨날 고기 묵고…」의 저자

▪ 우학 스님의 새 수필집 ▪

「장가 안가길 잘했네」
전 2권 각권 6,500원

마음을 밝혀주는 새 법구경과 함께 더욱 큰 감동을 줍니다.

도서출판 좋은인연
053)475-3706~7

신 간

☞ 구름을 바라보는 물
정가 6,500원 이봉재 소설

☞ 삼천배 삼천부처님
정가 10,000원 우학스님 편저

☞ 마음을 밝혀주는 새 법구경
정가 2,000원 우학스님 편저



"이웃 잘살아야 저도 행복하죠"

아산 효행대상 받은 송복녀 보살

독거노인 초청 경로잔치
친딸처럼 식사 · 빨래 수발
20년째 동네 길흉사 챙겨

'고래할매'는 암남동의 좁은 이골목 저골목을 돌아 다니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부산 송도 앞바다가 내다보이는 서구 암남동에서 '고래할매'하면 모르는 이가 없는 송복녀(59 · 홍련화)보살. 새벽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향피워놓고 관세음보살을 염송한 후 동네 여기저기를 기웃거린다. 자신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없는지 살펴보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이웃들에게 밤사이 무슨일이라도 생기지 않았나 내 일처럼 챙겨온지 벌써 20년이 넘었다.

고래할매해장국집을 운영해서 얻게 된 별명 '고래할매'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때론 어머니같이 때론 딸같이 친근한 존재이다. 고래할매는 무의탁노인, 소년소녀가장 집을 일일히 찾아다니며 청소, 빨래, 밑반찬까지 해주는 서구 자원가사봉사회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형편이 어려운 이웃의 출산, 초상, 화갑, 결혼식 등 길흉사를 가리지 않고 챙기고 있다. 이제는 마을 사람들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 제일 먼저 고래할매 송복녀씨에게 연락을 한다.

송보살은 9일 아산사회복지재단(이사장 정주영)의 제3회 아산효행대상에서 경로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독거노인에게 경로잔치 베풀기, 회원들과의 연계로 말벗되어주기, 경로식당(식대 100원)운영,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주선, 천마재활원 방문 등의 봉사활동이 송보살에게 상을 안겨준 것이다. 그러나 송보살에게 진정한 상은 이웃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라고 말했다. 네살 아들이 소아마비로 장애인이 되면서 고통을 겪었던 송보살이었기에 자신보다 어렵고 고통받는 이들을 누구보다 잘 이해한다. 이웃의 고통이 곧 내 고통이었기에 부모없는 조카들을 키우고 노인이나 노동자에게 식당밥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다.

"자신에게 남는 것을 조금씩 나누면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송보살은 얼마전부터 빵집을 돌며 남는 빵을 수거, 매일 아침 소년소녀가장에게 배달해 주는 일을 시작했다.

천미희 기자(mhcheon@buddhapia.com)

성철스님 사리탑 준공법회

내달 8일 해인사…최재은씨 설계 높이 3.4m

성철스님문도회(회장 원택스님)는 스님의 열반 5주기인 11월8일 성철스님사리탑 준공 회향법회를 봉행한다.

해인사의 일주문밖 1백m 지점에 건립되는 사리탑은 설치예술가인 재일동포 최재은씨가 설계한 것으로 높이 3.39m, 조경을 제외한 연면적 1백8평규모에 성철스님 사리와 유골을 봉안해 놓았다.

시공을 맡은 삼성물산 건설부는 지난 97년 3월1일부터 98년 10월말까지 건축비 12억여원을 들여 완공했다. 석재는 인도의 사원건축에 사용되는 '애석'이 사용됐으며 기단부는 우리나라에서, 참배대와 사리탑은 일본에서 각각 제작됐다.

한편 사리탑의 규모가 너무 른데다 일본에서 제작한 것은 평소 무소유를 주장하고 왜색불교 퇴치에 앞장서 온 스님의 뜻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대해 공사를 맡고 있는 양근택소장(삼성물산)은 "대형석재의 원형절삭이나 컴퓨터절삭은 우리나라에서 어려운 실정이라 일본에서 제작한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성철스님문도회와 신도들은 열반 1주기때부터 '7일7야 8만4천배 참회기도'를 봉행해 오고 있는데 이번에도 11월 1일 오전 7시부터 해인사 백련암 고심원에서 참회기도에 돌입한다.

이윤호 기자 (yhlee@buddhapia.com)



수해 희생자 위령재

지난 8월 발생한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희생된 영가가족들이 의정부불교사암연합회(회장 혜승)가 10일 의정부시청앞 평화의 광장에서 주최한 제5회 남북통일기원 영산대재 및 수해희생자 합동위령재에 참석, 오열하고 있다. 의정부 양주불교사암연합회는 이날 수해희생자 10여 가족들에게 위로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김중근 기자

송광사 · 화엄사 · 대흥사 일대
사적 · 명승문화재 지정예고

문화관광부는 15일 전남 순천시 소재 "조계산 송광사 · 선암사 일원"등 3건을 사적 및 명승으로 지정예고했다.

조계산은 삼보사찰 중의 하나인 승보사찰 송광사와 선암사가 자리잡고 있으며, 경역내에는 국보 제56호 국사전을 비롯해 국보3점, 보물20점, 천기1점, 도지정22점 등 문화재가 산재해 있다. 국립공원 제1호인 지리산은 식생이 잘 보존되어 있고, 통일신라시대 이래 수많은 고승을 배출한 화엄사가 있다. 사찰 내에는 국보 제67호로 지정된 각황전을 비롯한 국보 4점, 보물 5점, 천기 1점, 도지정 4점이 있다. 75년부터 명승으로 지정 보존되어 왔던 대둔산은 조선시대 서산대사의 의발을 봉안한 이래 수많은 고승을 배출한 대흥사가 있다. 경내에는 보물 4점과 천연기념물 1점, 도 유형문화재 8점이 있으며, 현재 대흥사 일원은 도문화재 자료 제78호로 지정되어 있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천관산 도립공원 지정

호남의 5대 명산 중 하나이자 천관사 장안사 등이 위치해 있는 전남 장흥 천관산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된다.

전남도는 1일 장흥군 관산읍 농안리 천관산 일대를 도립공원으로 지정하는데 따른 환경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천관산 일대를 지방문화재가 있고 5백85종의 식물이 자생하는 자연생태계의 보고라는 점을 들어 지난해 10월 환경부에 도립공원 지정 승인을 요청했었다.

강지연 기자

무량사 건물 붕괴 위험

인근 아파트 공사로…벽 금가고 지반침하

부천 무량사(주지 법신)가 인근 재개발 아파트 신축공사로 사찰건물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훼손이 심각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무량사는 지난 96년부터 두산건설이 8백50여세대가 입주하는 24층 규모의 대규모 아파트 재개발 공사를 하면서 부터 소음과 분진 등으로 법회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또 두산건설측은 무량사 앞으로 진입로를 만든다며 인접민가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지반을 침하시켜 건물의 균열이 발생, 붕괴의 위험마저 않고 있다. 뿐만아니라 이 일대는 상하수도와 정화조가 묻혀있어 주민들도 무원칙적인 공사에 반발하고 있다. 특히 두산은 진입로를 현재의 위치보다 2m 정도 깍아내고 공사를 강행할 방침이어서 사찰이 절벽위에 몰릴 우려마져 않고 있는 심각한 상태이다.

주지 법신스님은 "두산에서도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해보상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있다"며 "납득할 만한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무량사측은 이같은 피해에 대해 지역 주민 부천사암연합회와 함께 진정서를 제출하는 한편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대광맹인불자회
청림 7돌 기념법회

대구 대광맹인불자회(회장 박석규)는 11일 남산동 소재 법당에서 창립 7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동화사 포교국장 지거스님과 동화사 포교원 관오사 득도스님, 대구광역시신도회 최동원 회장, 대구신행단체연합회 유상종회장 등 지역 신행단체장 및 회원 2백여명이 참석했다. 지거스님은 법문을 통해 "수많은 장애인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밝은 등불이 되자"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선본사 갓바위와 정법회 장지현 조직부장이 각각 감사패를 받았다.

김재경 기자

고침 193호 18면 '나와 현대불교' 기사 가운데 김기옥씨를 김기언씨로 고칩니다.

우리절 불사 — 하와이 '대원사'



◇미국 하와이 대원사 불교문화원 전경. 원내는 주지 도현스님.

문화원 지붕 낮추기 '후원을'

재공사비 4억원 필요
다목적용도 4층 건물
WFB대회 유치 추진

"불교문화원 마무리 불사를 위한 만등불사에 십시일반의 동참을 필요합니다."

최근 고국을 찾은 대원사 주지 도현스님은 "대원사가 부처님의 위대한 정신과 한국문화를 미국을 비롯한 세계에 널리 알리는 도량으로 거듭나는 그날, 불자님들의 거룩한 원행을 호법천신과 제불보살님 앞에 널리 칭송할 것"이라며 불교문화원 건립 만등불사에 불자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대원사(전화 080-735-7858)는 75년 기대원스님이 현지교민들의 원력을 받들어 불사를 시작, 82년에 대웅전과 명부전 종각 사리탑을 완공, 해외 한국사찰로는 가장 규모가 큰 사찰이다.

대원사 불교문화원은 88년 건물 공사를 마쳤으나, 호놀룰루시 당국에서 허가해준 높이보다 높다는 주민들의 민원으로 더 이상 진척될 수 없었다. 최근 하와이법원으로부터 지붕을 낮추라는 판결이 나옴에 따라 재공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설계 · 시공비 30만달러(약 4억원) 마련을 위해 대원사 신도들이 강통을 모으고, 만두 김치 된장 등을 만들어 팔고 있다.

불교문화원은 전통사찰건축양식의 4층 건물의 총건평 4천평 규모로 다목적 전시실과 세미나실, 회의실, 법당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150명이 묵을 수 있는 방사도 마련해 상시 수련회 개최한다. 인근 20분 거리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와이키키 해변의 자연환경을 활용해 참선과 레저를 겸한 독특한 선수행 프로그램도 개설할 계획이다. 도현스님은 또 2002년 WFB(세계불교도우의회) 대회를 대원사에 유치해 세계에 한국불교를 제대로 알리는 사업의 추진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17일 다시 하와이로 돌아간 도현스님은 "여러 국내외 불자님들 앞에 다시한번 공덕행을 권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며 거듭 고국불자들의 후원을 당부했다. 96년 2월 대원사 주지로 취임한 도현스님은 70년 혜성스님을 은사로 도선사로 출가, 버클리대학 종교학과를 졸업하고 북경대에서 범어문학을 전공으로 박사과정중에 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박애희양 최우수상

부산 '맑고…' 글짓기 대회

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회장 흥교)은 9일 한글날을 맞아 부산역광장에서 제1회 글짓기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글짓기대회에는 '아버지'라는 주제로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작문을 실시한 결과 김태희(등평여상 3), 선미선(부산여중 3), 박애희(부산진초등학교 4)학생이 각 부문 최우수상을, 정다운(학산여고 2년)학생 등 3명이 우수상으로 선정, 상장과 장학금을 받았다.

천미희 기자

· · · · · · ·
불교미술연구소
· · · · · · ·
사찰조경 및 건축설계와 불상,불화,단청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의 대학교수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불사의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0 2 · 285 · 5963
019 · 285 · 5963

인 터 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4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화보에 나섰다.

현대인에게 활력과 윤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의 영험함을 직접 몸속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합니다. 인체의 뿌리, 위가 튼튼해야 몸이 좋아집니다.

본사 생산제품
솔선식, 솔효소정액, 익수영진고, 치신왕기환, 불로화정

불로화정(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참깨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입증된 「세사미논」 성분을 대량 다.

세사미논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을 물질로 지금까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 KBS TV 6시 내고향(9월9일) 방영 -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한 사실이 있음.

▣ 가 격 : 정가 칠십만원(7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을 마지막분 선착순 2,000명에게 오십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 입금구좌 : 대구은행 033-07-172508 (대구여래한방)

如來治身自然食品會社
문의전화 : (053)655-2227
(011)808-8880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산승(山僧)은 비구니로 60여년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여든의 늙은이로 현재 대구 반야사 주지로서 어린 장애자를 양육,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20여년간 신경통, 고혈압, 위장질환, 몸이 붓는 증세(浮腫)로 고통을 받던 중, 천일지장기도가 끝나는 날 꿈속에서 뵈온 스님의 얼굴과 똑같은 시연스님을 만나게 되어 한번만 침을 맞은 후 자연건강식품 「불로화정(不老化精)」을 복용하고 모든 난치병이 완쾌되었으므로 그 너무나 큰 고마움의 말씀을 글로써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구시 반야사 (전화 053-614-7935) 주지 金 慧明 합장

저는 20여년의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52세의 비구니로서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로 있습니다. 저는 신장병, 골다공증, 위장질환, 호흡곤란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병주머니의 몸이었으나 우리 농산물로 만든 경옥고(瓊玉膏) 같이 생긴 「익수영진고(益壽永進膏)」를 복용하고 건강을 회복하였으며 몇 가지 병으로 고생하던 모친과 여동생도 같이 복용한 후 건강한 몸을 되찾게 되어 그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짧은 글로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충북 제천시 청해사 (전화 0443-646-7371) 주지 박 법륜 합장

저는 64세의 나이 많은 여성으로 여러 가지 난치병 때문에 병약하여 많은 고생을 하였으나 「不老化精」,「솔선식(松仙食)」,「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익수영진고」,「치신왕기환(治身旺氣丸)」 등 자연건강식품을 복용한 후 병을 고치고 생기 넘치는 몸으로 생활하게 되어 그 감사한 말씀을 전해 드리게 된 것을 큰 자랑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대구 거주(전화 011-545-5550) 최 청정심 올림

불자 장기기증·화장 '소극적'

서천사·한국MSI, 광명시민 500명 조사

화장찬성, 천주교-개신교-불교인順
장기기증 희망자중 70% 개신교인

불자들이 타종교인들보다 화장제에 대한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장기기증에 대한 불자들의 인지도와 의식도 타종교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덕사 광명포교원인 서천사(주지 진석)와 한국MSI(이사장 유승윤)가 9월22일~10월2일 경기 광명시민 남녀 5백명을 대상으로 공동실시한 장기기증·화장·신앙·시민생활관련 여론조사 결과 드러난 것. 이번 설문조사는 생명나눔실천회(이사장 법장스님)와 서천사의 거리캠페인(10월 10~31일 매주 토·일)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현실에서 바람직한 장묘방안'을 묻는 질문에 응답한 불자 160명 가운데 46%만이 '화장'에 찬성한 반면 천주교인(76명)은 69.6%, 개신교인(110명)은 60%, 무종교인(148명)은 56.9%가 각각 화장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장기기증에 대해 잘 알거나 들어 본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천주교인의 95.7%, 개신교인의 69%, 불교인의 54.7% 순으로 나타나 무종교인 응답자의 73.4%보다 낮았다. 게다가 장기기증 서명운동 참여 희망자의 대부분인 70%가 개신교인으로 나타났으며, 불교 등 기타 종교인은 20%에 그쳐 불교인의 소극적인 장기기증 의식을 보여줬다.

특히 장기기증 서명 희망자의 '화장 찬성률'이 72.4%에 달한 것은 장기기증 희망자가 화장제에 거부감이 없다는 통설을 입증했다.

'우리나라에 적합한 장묘방안에 대한 시민들의 견해'를 보면 '화장방안'이 58.5%, '묘지방안'이 32.9%로 각각 나타나 화장제가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화장방안 선호'를 택한 이유로는 '국토가 줄고 자연이 파괴되므로'가 35.3%, '죽은 후의 몸은 아무 가치가 없으므로'가 13.8%, '묘지를 잘못 써 화를 당할 염려가 있으므로'가 9.4% 등으로 밝혀졌다.

한편 생명나눔실천회와 서천사는 10, 11일 광명시청 앞 상가지역 광장거리에서 '장기기증 및 화장문화 장려 캠페인'을 처음으로 시작했다. 캠페인에서는 2백10명의 시민이 화장문화에 찬성하는 서명을, 31명이 장기기증 신청에 각각 서명하는 성과를 얻어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장묘법 개정따른 불교계 대응모색

22일 불교복지포럼 열린다

장묘법 개정에 따른 불교계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불교복지포럼이 열린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월주스님)은 오는 22일 오후 2시 사회복지대학 강의실에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른 불교계 대응방안'을 주제로 포럼을 연다.

보건복지부 가정복지과 신현수 과장의 주제발표와 한마음선원 금왕지원장 무애, 영각사 주지 현법, 오봉정사 주지 성조, 유정석 사회복지재단 전문위원 등이 토론으로 진행되는 이번 포럼은 장묘법 개정(안)을 앞두고 정부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장의시설 지원방안과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교계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 및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포럼은 화장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교계로 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전망이다.

김재경 기자

전통문화대학 건립
2000년 부여에 개교

국내 최초의 문화재 관련 특수대학인 국립 한국전통문화학교가 부여에 건립된다.

13일 충남도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통문화 전문인력을 양성할 국립 한국전통문화학교 건설공사가 다음달초 충남 부여군 규암면 백제역사재현단지 내 연구교육촌에서 시작된다.

2000년 3월 개교 예정인 한국전통문화학교는 4년제 국립대학으로 총 5만여평 부지에 건설되며, 개설학과는 전통건축학과를 비롯해 전통조경, 문화유적, 보존과학, 문화재관리, 미술공예학과 등 6개 학과이다. 학생정원은 미술공예학과가 40명이고 나머지 5개 학과는 20명씩이다.

강지연 기자

해외유출 문화재 환수율 5%

해외에 유출된 우리 문화재는 6만8천여점이고 외국으로부터 환수된 문화재는 5% 수준인 3천7백77점으로 집계됐다. 이는 외국의 공·사립 박물관 소유 문화재를 대상으로 파악된 것이며, 개인소장 문화재 등을 감안하면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관광부가 13일 국회 문화관광위 신영균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 4월 현재 외국 박물관 소재문화재는 미국(1만5천4백14점), 영국(7천1백89점) 등 18개국 6만8천5백20여점이다.

문화관광부는 유출문화재에 비해 환수율이 적은데는 우리 문화재의 최대 소장국인 일본(3만1천2백67점)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밝히고 있다.

또 일본, 프랑스(1천5백18점) 등 문화재 수탈국이 '문화재 불법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 금지에 관한 유네스코 협약' 등 문화재 반환에 관한 국제협약 가입 기피에서 온다고 지적했다.

강지연 기자 (jygnag@buddhapia.com)

승가원 그룹홈장애인

설악 대청봉 정복

승가원(이사장 지하스님) 산하 그룹홈의 정신지체 및 지체장애인들이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설악산 정상 정복에 성공했다.

성북그룹홈의 4명, 강북그룹홈의 1명의 대상자와 시각장애인 2명, 성북그룹홈 생활지도원 지명스님과 심재숙씨를 주축으로 한 자원봉사자 2명, 관동대 산악부 4명, 불교TV 제작팀 등 총21명은 장애인들의 사회복귀 훈련과 도전의식을 키우기 위해 이같은 등반을 기획했다.

이번 등반에서 장애인과 자원봉사자들은 1인1조가 되어 오색약수터-대청봉-봉정암-설악동 등을 무사히 등반했으며,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김재경 기자

실직자 포교책자 '소중한 인연' 발간

새불교운동전국승가회(공동회장 진관, 석담)는 조계종 포교원과 공동으로 실직자와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포교책자 〈소중한 인연〉을 펴냈다.

문고판 34쪽의 분량으로 제작된 〈소중한 인연〉에는 불교기초교리는 물론 신행안내 및 경구 설명 등 다양한 내용이 실려 있다. 또 '백척간두진일보'와 같이 관용구처럼 쓰이고 있는 화두를 쉽게 설명, IMF로 실의에 빠져 있을 실직자들에게 삶의 용기와 지혜를 주고 있다.

새불교운동전국승가회는 전국 회원사찰과 실업대책불교단체를 중심으로 〈소중한 인연〉을 배포할 방침이다.

도필선 기자



◇생명나눔실천회와 서천사는 10, 11일 오후 광명시청 앞 상가지역 광장거리에서 '장기기증 및 화장문화 장려 캠페인'을 시작했다. 캠페인은 이달 31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계속된다.

선교행위 초등교사에 경고

성동교육청, 관내학교에 선교금지 공문

공립 초등학교에서 특정종교 선교활동을 벌인 교사에게 경고 및 전보조치가 취해졌다.

서울 성동교육청은 8일 용곡초교 박숙희교사의 선교행위(본지 192호 23면 참조)와 관련 "교육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로 인정, 엄중 '경고' 조치하고 전보(인사)시 타교로 전출토록 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또 성동구 관내 전체학교에 8일자로 '교내에서의 특정종교에 대한 선교활동금지'를 주제로 '관내학교에서 교사가 특정종교에 대한 선교를 한 사례가 있는 바 교육공무원법 제6조 2항(교육의 중립)의 법정신을 주지하여 교내에서 불법적인 특정종교 선교로 물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지시키길 바란다'는 공문(초등 16300-1329)을 보냈다.

이와관련 민원을 제기한 효성스님(용암사 주지)은 "학교와 교육청에서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들여 종결하기로 용암사 사부대중회의에서 의결했다"며 "앞으로도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계에서 관심을 갖고 교육현장을 바라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교계복지관 '희망의집' 속속 개원

교계 복지관에 실직노숙자 쉼터인 '희망의 집'이 잇달아 문을 열고 있다.

지난달 서울 자양·청담복지관 희망의집이 개원한데 이어 승가원 산하 삼전종합사회복지관(관장 각우스님)은 이달 초 복지관 내 지하공간을 개·보수해 '길상희망의 집'을 개원, 실직노숙자 17명을 입소시켰다. 또한 본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혜숙)은 19일 희망의집을 개원, 교계에서는 처음으로 10명의 여자 노숙자를 수용했다.

이밖에 구로종합사회복지관이 이달중에 40명 수용 규모의 노숙자 쉼터 개원을 준비하고 있어 교계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희망의 집'은 모두 5곳이 될 예정이다. 희망의집에 수용된 노숙자들은 저녁과 아침식사 등 숙식을 제공받고 낮에는 공공근로사업에 참여, 재활에 나서고 있다.

김재경 기자

목탁소리

자원봉사 방해

이 은 자 〈취재1부 기자〉

자원봉사에도 색깔이 있는가.

올해 3월부터 장애인과 무의탁노인, 소년소녀가장등이 살고 있는 중랑구 신내동 서울시립대복지관에서 반찬봉사를 해 온 홍희숙씨는 얼마전 복지관측에서 일방적으로 자신들이 직접 반찬봉사를 운영하겠으니 손을 떼라고 요구해 오자 기가 막혔다.

자신도 결코 넉넉한 형편이 아니면서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로 반찬봉사를 해 온 그로서는 당연한 것이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않아 복지관측에서 직접 운영하겠다던 반찬봉사를 신내동 D교회가 맡아 하기 시작했다. 홍씨는 그래도 누가 하든 어려운 이들에게 매주 반찬을 나눠줄 수 있으면 된다는 생각이었다. 그런데 그동안 매주 배달되던 반찬이 격주로 배달되고 양과 종류도 훨씬 부실하게 전달되자 지역 노인들과 장애인들이 불안한 나머지 전화를 걸어왔다.

"왜 반찬을 안주냐" "D교회에서 주는 반찬은 안먹겠다"면서 말이다.

급기야 복지관측에 어떻게 된 일이냐며 항의를 했으나 "복지관 사업이니 간섭하지 말라"는 답변만을 되풀이 했다. 지역 구의회 의원들에게도 이런 사실을 알렸지만 별도움을 받지 못했다. 오히려 지역주민과 노인, 장애인들이 홍씨에게 힘을 주었다.

"지역 통장님들도 다시와서 반찬봉사를 해달라고 사정을 하고, 신내동 새마을부녀회와 중랑구 장애인협회에서도 도와주겠다고 발벗고 나서서 다음주부터 다시 반찬봉사를 나갈 계획"이라는 홍씨는 "진정한 자원봉사가 무엇인지를 복지관측에 깨우쳐 줄 겁니다"라고 말했다.

모든 종교는 사랑과 자비로써 통한다. 소외되고 어려운 우리의 이웃을 돕는 자원봉사자의 마음도 사랑과 자비로 한결같다. 야박하게 종교성을 따지며 편을 가르는 시립대 복지관측은 편협한 발상에서 벗어나 복지사업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야 할 것이다.

(ejlee@buddhapia.com)

뉴스 & 뉴스

전국 승가학인대회

수행자 본연의 자세를 정립하고 도약의 21세기를 준비하기 위한 제9회 전국승가학인대회가 전국전통강원연합의 주관으로 24일~25일 경기도 화성 신흥사에서 열린다.

승가학인연합체육대회는 법고 창불 경연대회, 학술발표 등 문화행사와 축구, 배구, 줄다리기 등 체육행사를 통해 학인 상호간의 일체감형성과 화합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은자 기자

참사람결사 도반과 만남

백양사(주지 지선)는 '참사람 수행결사 도반과의 만남'을 31일~11월 1일 1박2일간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97년 7월부터 시작한 참사람 수행결사를 되짚어보고 그동안의 수행을 점검하기 위해 준비됐다. 이은자 기자

사면·복권추진위 발족

조계종 승려 사면·복권추진의원회가 13일 한국일보 송현클럽에서 발족식을 갖고 정식 출범했다.

94년 종단 개혁과정에서 제적, 체탈도첩 등의 징계를 받은 1백80여명 스님들에 대한 사면·복권을 위해 결성된 추진위는 △사면복권추진 △월주스님 3선저지 △불법에 귀의할 것 등을 결의했다.

임연태 기자(ytlim@buddhapia.com)

나라안정 기원법회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총재 인광 한국대승불교여래종 종정)는 19일 오후 3시20분 서울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나라안정기원불교최고지도자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선화종, 대각종, 천우종, 용화불교 등 20여개 종단 대표와 신도 등 3천여명이 참석했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보광사 장기수묘역 참배

불교장기수후원회(회장 지원)는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장기수가족후원회(이하 천정연후원회)와 함께 파주 보광사 장기수 및 민족민주열사 묘역을 참배했다.

이 자리에는 보광사 주지 효륜스님, 천정연후원회와 불교장기수후원회 회원, 장기수 이종 권낙기씨 등 50여명이 함께했다. 도필선 기자

수몰실종선원 위령재

불교자원봉사연합회(회장 성덕)는 9일 인천 연안부두 선착장 선상에서 지난 8월 백령도 근해에서 수몰실종된 선원을 위한 합동위령재를 봉행했다.

이날 위령재는 불교자원봉사연합회가 8월23일 15일간의 일정으로 12명의 선원이 출항한 이후 수몰돼 9명의 시신을 찾지 못한 선원과 그 가족들을 위해 무상으로 마련해 열린 것이다. 이희명화 명예기자

국내 최초 고려대장경 해설서

"고려대장경해제"

팔만사천여 경판 천오백십사종의 경전으로 구성된 팔만대장경을 보기 쉽고 찾기 쉽게 하나하나 풀어 정리하였습니다.



정가 150,000원 (총6권, 우송료 포함)

고려대장경 해제는

■고려대장경에 포함된 1,845종의 경전을 해설하였습니다.
고려대장경에는 1,514종의 경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제에서는 대장경에 입장된 1,514종의 경전과 소경전 331종, 모두 1,845종의 경전을 해설하였습니다.

■주제 분류에 따라 경전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각 경전마다 주제어를 주고, 주제어를 몇 개의 범주로 묶어서 경전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총 6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제 3권, 목록 2권, 색인 1권, 총 6권 1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고려대장경을 해설한 불교전문 사전입니다.
고려대장경의 판각이 완료된 지 올해로 727년이 되었지만, 중요한 소의경전들에 대한 해설서만 있었을 뿐, 대장경에 입장된 경전 전체를 해설한 책은 없었습니다.
대장경의 경전 하나 하나가 모두 부처님 말씀이기 때문에 어느 경전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경전을 한글 음순으로 배열하여 보다 편리합니다.
1,845개의 표제어로 구성된 일종의 고려대장경 해설 사전입니다.
보고자 하는 경전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글 음순으로 배열하였습니다.

오는 10월 21일 출간 될 고려대장경 해제는 1,000질 한정 판매합니다.
이로 인해 부득이 전화예약을 통한 주문판매만을 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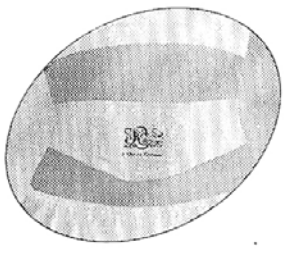
고려대장경연구소

〈 예약 및 구입문의 〉 고려대장경연구소 (02)797-0585
온라인 번호 : 상업은행 169-07-096250 (예금주 : 고려대장경연구소 출판부)

여성고민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자연향) 테크팬과 멘톨이라는 정유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지방질을 산화시킵니다.

향비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고민은 끝!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악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체험사례

생리통·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생리때가 되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며 거기다 두통까지 겹친 생리통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양약이며 한약도 여러번 지어 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했던 터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한영채 박사의 향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팩을 배꼽(신궐혈)에 차는 것만으로 치료가 된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 생리를 하게 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약 한달여일이 지난 후에는 눈주위의 기미 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자신도 놀라 볼 정도로 피부와 혈색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겨질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서초구 김미선)

해당되는 증상에 (○)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목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2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고려물산 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입 문

문답속에 흐르는 법리 감로수



■전등록4/문재현 옮김

스승과 제자의 문답 사이에서 드러나는 명철한 법리. 그러나 선문답이 어찌 본답에 그칠 것인가. 법을 구하는 자의 갈증을 풀어주고, 삿된 견해를 짚어 정도로 이끌어주며, 범상치 않은 문답 속에서 제자를 한 걸음 한 걸음 끌어 올려주니, 이야말로 진정한 감로수라 할 것이다. 전등록이 전등록일 수밖에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전등록은 전5권짜리 '바로보인 전등록'의 네 번째 권. 법리의 측면에서 깊이 살펴 기존에 번역 출간된 것보다 원문의 취지에 더욱 근접해 있다. 조사의 참뜻을 제대로 옮기는 일은 쉽지 않은 일. 이런 점에서 법리에 밝은 문재현 법사가 번역해 낸 이 책은 선불교가 가지는 특성의 맥을 짚고 갖가지 표현에 대한 진의를 바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읽어볼 만 하다.

바로보인 18,000원 (02)597-2460

유식불교의 역사, 마음구조 분석



■미망에서 깨달음으로 /최병식 지음

한대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유식불교를 쉽게 설명한 책. 유식불교에 대한 개념과 불법의 진리를 밝힌 후 인도의 유식불교 형성과정과 중국 법상종 성립을 통해 유식불교의 역사를 짚었다. 그리고 주체적 측면과 작용적 측면의 분석을 통해 '마음의 구조'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곁들였다. 그런 후 삼성설(三性說)을 통해 존재와 미망(迷妄)과 깨달음의 관념을 풀어내고, 유식수행의 5단계를 제시했다.

깨달음에 깊은 부처님 가르침을 하나하나 소중히 여기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서 시작됨을 보여준다.

도서출판 여래 7,000원 (02)730-8976

에 세 이

푸른 납자의 '없음' 공부



■無를 향해 기어가는 달팽이/박재현 지음

불교를 공부하는 젊은 사람이 쓴 산문집이다. 열한 개의 짧지 않은 글들로 이루어져 있다. 세상을 보고 불교를 생각하고 해제철학을 이야기한다. 자신의 이야기에서 시작되는 글들은 생활과 불교를 잘도 오간다. 그래서 문학이 느껴지고 불교가 느껴진다.

불교를 통해 바라 본 세상을 반성하고, 이 땅에서 불교가 어떠해야 할지를 반성한다. 젊은 혈기로 치부하기엔 담담하면서도 냉정한 눈초리가 매섭다.

저자가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없음'이다. 하지만 그것이 명료하고 깨끗이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無와 空, 불교를 말한다.

시공사 7,000원 (02)588-0831

수행자의 구도열정 고백



■덧없는 세월 속에 덧없는 깨달음 하나 얻게나/혜민스님 지음

혜민스님(도봉산 무문관)이 자신의 삶에 접촉있는 잔영들을 모은 지적인 에세이. 출가의 인연과 세상의 닻을 벗어난 자유로움, 함께 했던 만남들이 산사의 숲내음으로 다가선다. 어렸을 적의 아련한 추억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세상을 뒤집어서 보는 통찰의 혜안, 그리고 참묵 거친 세상 속에 거칠어진 호흡을 고르고 마음을 가다듬은 가르침인가.

"불교의 밀림 속에서 들어다 본 자유는 남만이 아닌 저 다보기조차 부려운 해탈이었다"는 고백 속에 담긴 구도열정이 당당하게 독백하듯 내밀한 목경소리로 열린다.

들녘 7,000원 (02)323-7366

기 타

신앙고백을 통한 종교적 삶



■법화행자의 초상/자일스님 편역

제바달다는 부처님의 사촌동생이면서도 부처님을 모함하고 살해하려 한 인물이다. 그러나 〈법화경〉은 그 또한 구제받아 성불할 것이라고 설하고 있다. 이 책은 이런 〈법화경〉을 예닐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읽었으며, 어떤 공덕을 성취했는가를 정리해 놓은 고려시대 고승 요원(了圓)스님의 〈법화영험전〉을 번역한 것으로 기이하면서도 신심을 북돋을 수 있는 설화를 감동적으로 그린다. 상계이 비슷한 내용을 '법화합기 그리고 꽃에' '개불보살이 강등하시니' 등 6가지로 분류하고 해제를 붙였다. 책 속에 나오는 법화행자들의 신앙고백은 알만 보고 내닫려은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종교적 삶이 어떤 것인지를 배울 수 있게 한다.

불교시대사 6,500원 (02)730-2500

불교이해의 자료



■100문 100답-불보살·신중 편/고명석·고광영 지음

'불·보살·신중을 모두 망라해 그들의 이름과 탄생 배경 등에 관한 역사, 역할, 간직된 이야기, 신앙상의 특징과 문화적 양상 등을 일목요연하고 알기쉽게 정리한 최초의 책. 상·하 두 권 대원정사가 펴내고 있는 '100문 100답 시리즈'의 하나다.

이 책의 또 다른 특징은 불·보살·신중을 설명하면서 인도의 신들 및 중국과 한국의 토속신들이 불교 속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부터 그 문화적 양상과 신앙의 특징까지 소개하고 있다는 점. 인도 신화의 체계적 이해는 물론 우리 문화 속에 들어 온 많은 신들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불교를 이해하는데 사전과 같은 자료로 활용할만한 가치가 있는 책.

대원정사 각권 8,500원 (02)754-1614

금주의 명저순례

깨달음으로 가는 진솔한 과정



■그낭 갈 수 없는 길/이도원 지음

"버릇처럼 잘간을 찾아 복을 비는 아내를 보고 불교를 알고 싶었다.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내의 신앙생활을 심판하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불교를 접한 나는 진리 앞에 참잠하게 되었고, 경전과 여러 선지식을 통해 자연과 인생을 배울 수 있었다."

저자와 불교가 이미 한 몸체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불교를 만나면서부터 깨달음을 얻기 까지의 과정을 마치 그림 그리듯이 글적 보이고 있는 자전적 구도기. 불교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불교의 진리를 알아나가는 과정을 꾸밈없이 진솔하게 써내려 갔다. "깨달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 마지막 고백.

불광출판부 7,500원 (02)420-3200

흔들리는 모습에 던지는 방향제시



■저 푸르른 하늘을 보면 갈대가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는가/청담스님 외 지음

사람들은 인과의 법을 믿지 않는다. 아무도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채 무작정 앞으로 내달리기만 한다. 그 절제한 무책임성 어디라 밥 그릇을 뚜치지한 채 돌아앉아 자신의 입에만 밥을 퍼넣는 이기심.

〈저 푸르른 하늘을 보면 갈대가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는가〉는 이런 우리에 삶에 대한 구체적 방향을 제시한다. 청담·효봉·경허스님 등 25인 스님의 법문과 동아대 곽만연 교수 등 6인 지성의 글이 실려있다. 단편 에세이를 연상케 하는 이야기들의 묶음. 그 이야기들 속에서 깨달음의 세계를 만날 수 있다.

솔과학 8,000원 (02)928-1871

과거의 거울 - 현재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종본스님 지음

버지니아 대학의 사회심리학자인 이언 스티븐슨 박사 연구팀은 윤회설에 대한 연구끝에 놀랍게도 전생을 기억하는 20여건의 사례를 밝혀내고, 그 이야기를 책으로 펴낸 바 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을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다고 했다. 복도 그렇고 업도 그렇다.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전생에 관한 갖가지 이야기들을 묶은 책.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에게 전생 이야기는 터무니없이 들릴지도 모른다. 과거사를 알고 싶으면 지금 현재를, 미래사를 알고 싶으면 현재 자기의 행동을 살피라는 부처님 말씀이 있다. 이 책도 바로 현재를 바르고 선하게 살라는 부처님 가르침을 전한다는 의미에서 과녁다고 저자는 밝히고 있다.

솔과학 8,000원 (02)928-1871

맑고 청빈한 얘기 '한폭 수채화'



■산에는 꽃이 피네/법정 스님 지음

평생을 청빈한 삶을 실천해 온 법정스님(맑고 향기롭게 화주)의 법문이 때로는 거센 물줄기처럼, 때로는 겸허히 내리는 싸락눈처럼 녹아 내린다. 그리고 가만히 귀를 기울이노라면 단순하면서도 가난하되 잘재된 아름다움을 지닌 스님의 삶은 우리가 갇혀있는 '풍요로운 감옥'에서 벗어나라는 메우침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 깨우침을 류시화 시인이 법정스님의 말과 법문을 채으로 옮기면서 고구마를 캐는 듯한 풋풋한 흙내로 담아냈다. 영통성당 축성 1백주년 기념강연과 작은 모임에서의 법문, 서너 사람이 모인 사석에서 들려준 얘기 등 아주 다양한 내용이 마치 시어처럼 맑고 잔잔하게 흐른다.

동쪽나라 7,000원 (02)263-1941

마음 찾는 아름다운 단편들



■그 마음을 바쳐라/김재웅 지음

순간순간 올라오는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생선을 튀었던 새끼줄에서는 비린내가 나고 향을 쌌던 종이에서는 향내가 나는 법. 탐진치 삼독심이 비린내라면 밝은 마음, 아름다운 마음은 향내일 것이다. 과연 내게선 어떤 냄새가 날까를 생각한다면 그 해답은 명약관화.

그러나 알고 있어도 찾지 않으면 아무 의미도 없는 일. 이 책이 그 의미를 찾게 해준다. 삶에 대한 회의, 직장이나 가정에서의 갈등 등 인생의 아픔은 누구나 겪는 일. 단풍이 아무런 고통없이 아름다운 빛깔을 낼 수 있을까. 밝음의 세계도 그와 마찬가지. 아름다운 이야기들의 단편이 단풍처럼 걸려 있다. 그 단풍의 주인은 바로 독자들.

용화 7,500원 (02)720-9372

금주의추천도서

중생의 화두 '나'에 대한 풀이



■단지 그대 모습대로 살라/원연스님 지음

운명이라는 것은 한 번 정해지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인가요?" 보살의 질문에 스님은 "네가 지금 짓고 있는 생각과 행동이 그대로 너의 미래의 모습이자 운명"이라는 부처님 말씀을 예로 들며 자세히 답한다.

우리는 모두가 '나'란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갖는다. 욕심에 지쳐 한세상을 허덕이기만 하는 사람과 삶의 본질을 알아 여유있는 인생살이를 하는 사람을 보라. 무엇이 다른가. 단지 '나'란 무엇인가를 알고 모르고의 차이일 뿐이다.

이 책이 가치로운 이유는 고통받는 중생의 삶을 감싸주는 진솔한 이야기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질문과 대답형식으로 구성된 법문집이라 올바른 삶을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도 이 책의 장점. 괴로움과 욕심, 본래 자기에 대한 궁금증을 속시원히 풀어준다. 어리석음의 근원은 욕심에 있고, 욕심의 근원은 자기를 알지 못하는 데에 있으며, 그것은 결국 괴로움이 되어 나타난다는 것이 법문의 핵심이다. 읽고 나면 텅 빈 마음만 남는 책. 그래야만 새로운 무욕의 진리를 가득 채울 수 있을 테니까.

운주사 6,000원 (02)720-9372

99년 달력

부다가야 (대표 김주환)



목조건축 나무결 빛과 멋 담아

불교제1의 도시 부산지역의 대표적인 달력업체로 손꼽히는 부다가야는 내년 달력을 딱 1종만으로 전력을 쏟아냈다. 내용은 사찰의 상징과도 같은 목조건축의 나무결과 그 속에서 묻어나는 아름다움을 상징한 '목조건축의 美'. 그래서 부다가야 달력에는 불교건축의 빛과 결 그리고 멋이 함께 담겨있다.

개암사 대웅보전의 어간 공포의 섬세하고 장엄한 미, 수덕사 대웅전 천 불교출판, 불교용품 기획 제작 보급, 어린이 포교에 관심을 둔 여름불교학교 후원, 각종 어린이 불교관련 이벤트에 주력해온 부다가야는 달력제작에도 자존심을 잃지 않는다. 그러면서 IMF체제에 적응토록 단가를 1천원대로 낮춘것은 올해의 큰 성과.

조상들의 목조건축 속의 멋과 지혜를 현재의 시간속에 오롯이 되살려내고 있다. 단순히 1년 사용하는 것이 만족하지 않고 한국 목조건축의 자료적 가치까지 고려한 달력으로 평가된다.

· 크기cm/30.0×21.0 · 인쇄/전면칼라 · 가격/1000원

■ 부다가야 ■ 전화 : (051)865-4383 팩스 (051)865-4821

본 지면은 출판사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신간도서의 홍보기회를 제공하고 독자들에게는 정리된 책의 내용을 미리 파악하게 하여 꼭 필요한 책을 구입할 수 있도록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획기사형 광고면입니다.

■참여문의 : 현대불교신문 영업부 ☎ 02)732-1522(직)